



“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다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이 세상을 바꾼다
이 세상을 만든다
이 세상을...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발 행 일 2022년 5월 17일

발 행 처 인디펍

발 행 인 민승원

출 판 등 록 2019년 1월 28일 제2019-8호

주 소 61180 광주광역시 북구 용주로 40번길 7 (용봉동)

전 자 우 편 cs@indiepub.kr

대 표 전 화 070-8848-8004

팩 스 0303-3444-7982

조 사 수 행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연구책임자 정성조

공동연구자 김보미, 심기용, 한성진

편 집 정성조

홈 페이지 <http://dawoom-t4c.org>

이 메 일 dawoom@dawoom-t4c.org

정가 비매품/무료

ISBN 979-11-6756-097-1 (03330)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을 소개합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이하 '다움')은 2020년 1월 창설된 청년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청년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움은 지난 2년 간 성소수자 인권 의제와 캠페인에 대한 입문용 교육 프로그램 '무지개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청년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제작소', 청년 성소수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해 성소수자차별 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여러 연대체들에서 활동하고, ILGA(국제성소수자협회), 일본 동성혼 운동단체와 교류하는 등 국제 연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움은 '청년 성소수자'를 하나의 의제로 접근하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청년담론에 비판적이고 실천적으로 개입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신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청년에 성소수자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은 비성소수자 청년들의 그것과 다를 수 없습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다소간 특수한 경험과 이들의 욕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움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재생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활동가 간 교류와 캠페인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다움과 함께 활동하고 싶은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활동을 만듭니다

이 모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다움은 이번 조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이를 실천적인 변화로 만들어나가고 싶습니다. 청년 성소수자와 청년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사무실 공간, 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후속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한 탄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더 많습니다. 다움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기후원 신청

<https://dawoom-t4c.org/pages/donate>

일시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3-894043

(예금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목차

다움을 소개합니다	03
용어 소개	06
인사말	08
감사의 글	10
좌충우돌 조사과정	20

12

Chapter 1
조사배경

14

Chapter 2
조사방법

24

Chapter 3
조사참여자의 분포 및 특성

32

Chapter 4
정체성과 커뮤니티

58

Chapter 5
혐오와 차별 경험

68

Chapter 6
구직과 직장 경험

78

Chapter 7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84

Chapter 8
건강

90

Chapter 9
사회정치적 욕구

102

Chapter 10
코로나19

106

Chapter 11
결론 및 함의

122

Chapter 12
제언

용어 설명

성소수자

Gender and Sexual Minorities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사회에서 주류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에이섹슈얼(aseexual), 인터섹스(intersex), 퀴어(queer) 등의 정체성 범주가 포함되며, 국제적으로는 정체성의 앞글자를 따서 LGBT, LGBTI, LGBTAIQ 등의 약어로 부르기도 한다.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개인이 어떤 성별의 상대방에게 성적 혹은 정서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이성애 등이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성적정체성(sexual identity)의 범주들이다. 성적(sexual) 끌림과 정서적(romantic) 끌림을 구분하여 '에이섹슈얼 호모로맨틱(성적으로는 끌리지 않지만 정서적으로는 동성에 끌리는 경우)'와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정체화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태어날 때 신체의 외면적 특성에 의해 의학적으로 지정되는 '지정성별'과는 구분된다. 크게는 지정성별과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cisgender)와 그렇지 않은 트랜스젠더로 나뉜다.

성별표현

Gender Expression

외모, 복장, 행동거지, 말투 등을 통해 표현되는 성별특성을 가리키는 언어이다.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 또는 그밖의 성별적 특성과 결부하여 평가된다.

레즈비언

Lesbian

여성에게 성적, 정서적 끌림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성을 가리킨다.

게이

Gay

남성에게 성적, 정서적 끌림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남성을 가리킨다.

바이섹슈얼

Bisexual

자신과 같은 성별이나 다른 성별 모두에게 성적, 정서적 끌림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팬섹슈얼

Pansexual

상대방의 성별에 무관하게 성적, 정서적 끌림을 경험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에이섹슈얼

Asexual

어떤 성별에게도 성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끌리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퀴어

Queer

사전적 의미는 '기이한, 이상한' 등으로 과거에는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용어였다. 오늘날에는 좁은 의미에서는 이성애규범성과 성별이분법에 불화하는 실천 혹은 정치적 지향을 가리키며, 보다 넓게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포괄하는 우산용어(umbrella term)로도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젠더

Transgender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정체화하는 성별이 다른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트랜스젠더를 바이너리(binary) 트랜스젠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별정체성을 지닌 트랜스젠더를 논바이너리(non-binary) 트랜스젠더라고 나누기도 한다. 지정성별은 여성이나 남성으로 정체화한 경우 트랜스남성(FTM; 트랜스젠더 남성), 지정성별은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체화한 경우 트랜스여성(MTF;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부른다.

논바이너리

Non-binary

남성 혹은 여성의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넓은 범주에서 보면 젠더퀴어(genderqueer), 젠더비순응(gender nonconforming) 등도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정체성 표현이다.

젠더퀴어

Genderqueer

남성 혹은 여성의 성별이분법에 저항하여 고정되고 확고한 성별의 범주를 거부하거나 그에서 벗어나는 성별정체성의 실천 혹은 정치적 지향을 가리키며,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커밍아웃

Coming Out

커밍아웃은 타인에게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알리는 행위이다. 반대로 아웃팅(outing)은 제3자가 누군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뜻한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표 한성진입니다.

2022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에 맞춰 <"나 같은 사람이 혼자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 해 8월, 다움이 진행한 조사에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3,911명, 면접조사에 참여해주신 50명의 청년 성소수자 분들, 그리고 조사 과정에 지지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다움의 키워드는 '청년 성소수자의 삶'이었고, 올해의 키워드는 '청년 성소수자의 삶에 실천적으로 개입하기'입니다. 다움이 이처럼 청년 성소수자에 주목하게 된 것은 다움 구성원의 연령대가 청년에 해당해서만은 아닙니다. 성소수자로서 청년기를 보내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성소수자가 아닌 청년들과는 다르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성소수자는 집, 학교, 기업, 군대, 종교 시설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공간은 물론 가족, 친구, 파트너, 동료, 업무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소간 특수한 경험과 감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청년'에 주목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청년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합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삶은 철저히 비가시화된 채로 말입니다. 다움 구성원들이 단체를 처음 만들 때부터 청년 성소수자의 인식과 경험을 드러내는 조사를 계획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청년 성소수자. 여느 청년들이 그렇듯 먹고 살기 어려운 시국에서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아프고, 조금 더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경제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가로막혀 서로 사랑하는 동반자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성소수자들은 취약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부단히 탐색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서로 지지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숨기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갑니다. 거의 모든 청년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점이 자신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평등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청년 성소수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3,911명. 한국에서 지금까지 수행된 성소수자 대상의 조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조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당초 예상보다도 청년 성소수자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설문참여자의 절반은 추가적으로 면접조사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 연구진 또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속에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내용이 많아 아쉬움도 큼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일회성의 사건으로 남기지 않고 앞으로 후속 조사는 물론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입니다. 면접참여자 중 한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성소수자 모임에 나갔을 때, 성소수자 축제와 행사에 나갔을 때,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는 술집과 클럽에 나갔을 때, 성소수자들은 일상에서 느끼기 어려운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곤 합니다. 이는 안도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가 지워지고 배제된 현실에서 성소수자가 느끼는 이 안도감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함께 곱씹어보고 싶었습니다.

청년 성소수자의 삶 속 이야기가 담긴 본 보고서가 조금이나마 성소수자가 살기 좋은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도 많은 청년 성소수자의 바람과 함께 실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서 변화를 만들어냅시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5월 17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한성진



감사의 글

<"나 같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구나":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는 다음의 활동과 연구조사를 헌신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준 후원자와 지지자, 동료 활동가와 연구자, 그리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참여해준 3,911명의 청년 성소수자 분들 덕분에 무사히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의 2021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대규모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에서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관련 변화에 앞장서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사 문항 설계와 해석을 위해 몇 차례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문에 참여해주신 동료 활동가 및 연구자 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자문에는 나영정(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 SHARE),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호림(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이희영(알바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정재훈(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허성원(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본 조사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한 차례 결과발표회를 진행하여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국회 결과발표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의원님(이상 15인), 그리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자로 참여하여 풍부한 논평을 제공해주신 이호림(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땃동), 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구상(생명존중희망재단), 최준석(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김보경(통계청 통계정책과)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911명이라는 많은 청년 성소수자가 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곳에서 조사를 홍보하기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흔쾌히 설문조사 홍보물을 게시해주신 이반시티·잭디(Jack'D)·탐엘, 에브리타임에 설문조사를 홍보해주신 각 대학의 성소수자 모임,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해주신 유튜브 채널 망원택tv·토마털·Ryu&Ray, 그밖에 성소수자 단톡방 및 SNS에 자발적으로 설문조사를 홍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는 네 명의 연구진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조사 수행에 도움을 주신 고현, 동글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마지막 과정과 보고서 편집 체계를 검토하는 데 힘써주신 구름, 에스텔, 이광두, 여물, 푸스, 혜윤, MECO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면접조사에 참여해주신 50명의 청년 성소수자,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3,911명의

청년 성소수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동안 조사에 참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다음은 본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성소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01 조사배경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음 제안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한 종결과 미류, 두 활동가는 이 보고서가 발간되는 날까지도 단식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제는 이를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때로는 혐오에 앞장서온 정치권이다. 보수 개신교 집단의 조직적인 반대에 발맞춘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청년 성소수자들은 무수한 혐오발언과 차별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다. 더불어 청년세대 담론이 이른바 '젠더 갈등'으로 포장되는 가운데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와 편견의 언어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 담긴 청년 성소수자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작은 걸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와 2020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를 제외하면 정부 기관이 실시한 성소수자 대상의 조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대규모의 조사 또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2014년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가 사실상 유일하다.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혐오의 심각성은 물론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성소수자 관련 통계조사 시행에 있어 미온적인 반응만 보이고 있다.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은 이러한 조사와 정책 개발에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년 성소수자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본 조사가 시급히 필요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성소수자에 무관심한 정치권은 최근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열심이다. 그에 발맞추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방면의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정책은 많은 경우 결혼과 출산이라는

정상적인 생애주기를 청년세대의 '바람직한' 경로로 전제한다. 다음은 청년세대를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는 대신 그 내부의 이질성에 주목해야 하며, 성소수자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 및 다방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 질문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 대상의 국내 실태조사와 성소수자 대상의 국내외 실태조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조사 내용과 대상, 조사 과정 및 자료의 분석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정체성과 커뮤니티, 혐오와 차별 경험, 구직 과정과 직장 경험,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건강, 사회정치적 욕구, 코로나19 등의 주제별로 정리하고, 면접조사 결과를 활용해 설문 결과에서 나타난 청년 성소수자의 인식과 경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조사의 결과와 함의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제언으로 마무리하였다.

02 조사방법

설문조사 설계 및 수행

설문조사 문항의 구성은 국내외에서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가 초안을 작성한 후, 전체 연구진이 여덟 차례의 회의를 거쳐 수정하였다. 이후 외부 전문가 7인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커뮤니티 경험, 혐오와 차별 경험, 구직과 직장 경험,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건강과 심리상태, 사회정치적 욕구, 인구사회학적 정보, 사례비 지급을 위한 추가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문항을 통해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일반 청년과 구분되는 청년 성소수자의 특수한 경험과 욕구는 무엇인지, 전반적인 성소수자 차별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자 스스로 성소수자로 정체화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오면서의 경험과 욕구,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대상을 최근 10년간 한국에 거주한 자로 제한하였으며, 최근 청년 대상 실태조사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기에 비교를 위해 동일한 연령 기준을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을 모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사이트인 쉐트릭스(Qualtrics)를 통해 수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주간 1차로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 응답수가 적었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대상의 추가 조사를 2021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2차로 실시하였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조사들이 연령과 성별,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층화 표집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대상 조사는 정확한 모집단을 알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무작위 표집을 실시할 수 없었다. 설문참여자는 온라인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 성소수자 만남 어플리케이션(데이팅 앱), 각 대학의 에브리타임 성소수자 게시판, 성소수자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모집하였다. 홍보를 위해 설문조사의 목적과 내용,

표 1. 설문조사 문항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기본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 여부
정체성과 커뮤니티	-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및 의료적 조치 - 정체화 시기 및 정체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 커밍아웃 시기 및 대상 - 커밍아웃 이후의 반응과 차별 경험 - 내면화된 동성애혐오 및 트랜스혐오 - 연애 관계 및 파트너십 욕구 -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경험 및 바라는 점 -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 성소수자여서 좋은 점
혐오와 차별 경험	- 최근 1년 차별 경험 - 차별 경험에 대한 대응 - 군복무 경험 및 차별 경험
노동과 경제 상태	-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 - 현재 취업상태 및 고용 형태 -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 - 직장에서의 욕구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 가구소득 및 가구 구성 형태 - 주거 독립 여부 및 요인
건강	- 주관적 건강 상태 및 행복도 - 우울증상 및 자살 - 장애 및 HIV/AIDS 감염 여부 - 성생활
사회정치적 욕구	-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및 정치적 의제 - 선호 정당 및 차기 대선후보 - 정치성향 - 인권단체 후원 여부 및 이유 - 페미니스트 여부 및 페미니즘 의제 선호도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인구사회학적 정보	- 출생연도, 최종학력, 직업, 수입, 혼인상태, 거주지역, 종교, 주관적 계층 인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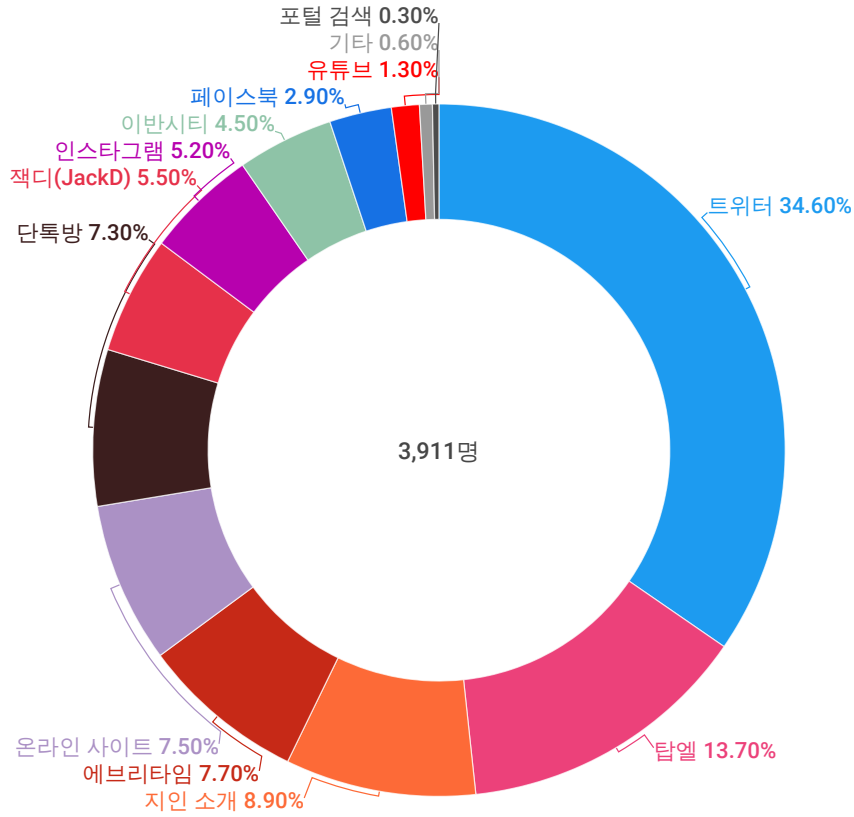


그림 1. 유입경로별 비중

참여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을 끝까지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휴대폰 번호를 입력받아 4,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기프티콘으로 지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하고자 퀘트릭스 설문지에 접속한 참여자는 총 6,764명이었다. 이들 중 조사 참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참여자(n=32)와 본 조사의 참여 대상이 아닌 참여자(n=1,218), 설문 문항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참여자(n=1,603)를 제외한 3,911명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설문 의 응답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가장 많은 유입 경로는 트위터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탭엘(13.7%), 친구 및 지인의 소개(8.9%), 각 대학의 에브리타임 내 성소수자 게시판(7.7%), 온라인 성소수자 사이트(다음 카페, 디씨인사이드 LGBT 갤러리 등)(7.5%), 카카오톡-라인

등 단톡방(7.3%), 잭디(JackD)(5.5%), 인스타그램(5.2%), 이반시티(4.5%), 페이스북(2.9%), 유튜브(1.3%)의 순으로 나타났다.

퀘트릭스 서버에 저장된 응답을 내려받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STATA/IC 14.2와 IBM SPSS 26을 사용하였다. 서버에서 내려받은 원시자료(RAW data)에서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생성하여 전체적인 응답의 분포를 살펴보았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연령대 등의 범주에 따라 구분한 청년 성소수자 집단 내부의 차이 및 일반 청년 인구 집단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면접조사 설계 및 수행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청년 성소수자의 보다 구체적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및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FGI는 비슷한 경험을 지닌 이들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함으로써 특정 주제 또는 집단의 풍부한 이야기를 청취할 수 있는 조사 방법으로 청년 성소수자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도 더 비가시화된 집단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유용하다. 다만 불특정 다수와 공개된 자리에서 공유하기 민감한 경험을 지닌 이들의 경우 FGI가 아닌 개별 심층면접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자가 반구조화 질문지의 초안을 작성한 후, 전체 연구진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면접조사에 활용할 반구조화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반구조화 질문지의 문항은 성소수자 정체성,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회정치적 욕구, 주거와 독립 욕구, 구직과 직장 경험, 차별 경험, 코로나19 등을 공통 질문으로 삼았으며, 집단별로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 질문을 마련하였다. 면접조사는 반구조화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되, 면접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제의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다.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 가운데 추가적인 조사에 응하기를 희망한 이들 가운데 선정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은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한국에서 최근 10년간 거주하였으며 만 19세에서 만 34세에 해당하는 성소수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에이섹슈얼, 바이섹슈얼, 비수도권 거주자, 직장인, 군 전역자, 대학생,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 고졸, HIV 감염인 및 약물사용자 등을 면접조사 대상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후보자를 설문참여자 가운데 3배수로 선정하여 SMS를 통해 면접조사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였다.

면접조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파일럿

표 2. 면접조사 질문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성소수자 정체성	정체화 시기 및 정체화 과정에서의 어려움 커밍아웃 시기 및 대상 커밍아웃 이후의 반응과 커밍아웃의 의미 성소수자 정체성의 중요도
성소수자 커뮤니티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 경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장벽
사회정치적 욕구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태도 성소수자 인권 활동에 대한 욕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적 변화
주거와 독립 욕구	가구 형태 및 독립 여부 성소수자로서 독립이 갖는 의미 성소수자로서 서울에 사는 의미
구직과 직장 경험	구직 경험 및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성소수자인 점이 직업 선택에 미친 영향 직장 내 차별 경험
차별 경험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은 경험 차별에 대처한 방식
코로나19 경험	코로나19가 성소수자로서 자신에게 미친 영향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건에 대한 인식
바라는 점	한국 사회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

조사 2회, FGI 12회, 심층면접 3회를 실시하였으며, 파일럿 조사 5인을 포함하여 총 50명이 면접조사에 참여하였다.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2인이 주 면접자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조연구원 및 면접조사 보조 4인이 보조면접자로 참여하였다. 면접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면접조사의 목적과 전체, 방법에 대해 연구진 내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모두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녹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록하였다. 면접 시작시 면접참여자의 권리, 개인정보 동의, 조사 목적과 결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참여자에게 설명한 뒤, 본격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참여자에게는 사례비로 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녹화 파일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녹취록을 면접조사의 분석 자료로 삼았다.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 2인이 교차로 녹취록을 검토하였으며, 반구조화 질문에 따른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경험을 보다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결과발표회

전문가 자문회의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두 시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첫째, 설문조사 수행 이전에 문항지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수행 이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의 풍부한 분석과 제언을 위해 자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에는 나영정(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세어 SHARE), 신진욱(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호림(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이희영(알바니 뉴욕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정재훈(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허성원(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이 참여하였다.

조사가 완료된 이후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차례의 결과발표회와 두 번의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먼저 2022년 2월 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국 청년 성소수자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진행하였다. 결과발표회는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음, 김상희 국회의장님,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의원님(이상 15인),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 결과발표회는 조사 결과 중 청년 성소수자의 정체화 과정과 차별 경험, 건강 및 심리상태, 사회정치적 욕구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토론자로는 이호림(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정민석(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띠동), 이승윤(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송효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구상(생명존중희망재단), 최준석(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김보경(통계청 통계정책과)이 참석하여 청년 성소수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나누었다.

더불어 조사 결과의 보다 풍부한 해석과 향후 공동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해 단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성소수자 대학생/신진연구자 네트워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 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각 1회의 간담회를 갖고 조사 결과를 나누고 결과 제언 및 향후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였다.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한다

국회토론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22. 2. 3 (목) 09:3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효정 박주민 배준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 국회



2022년 2월 국회 결과발표회

다채로운 우리의 솔직한 이야기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참여대상 | 한국 거주 만19세~만34세 청년 성소수자(1987년생~2002년생)

본 설문은 청년 성소수자의 사회적 욕구와 생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성소수자 인권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기간 | 2021년 9월 2일(목) ~ 9월 7일(화)

참여링크 | bit.ly/2021lgbtqyouth2

참여링크 QR코드

조사진행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후원 | 서울특별시

설문조사 홍보 포스터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한다

국회토론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2022. 02. 03. 목요일
9:30AM - 12PM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온라인 중계 동시 진행

사회
삼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발제
정성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연구책임자)

토론
이호림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박사)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활동 대표)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최준석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 조사관)
김보경 (통계청 통계정책과 과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총괄본부장)

협장방문 신청
bit.ly/220203youthLGBT
* 중계 및 한장 모두 문자통역이 제공됩니다.
* 정원 초과 시 현장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 다음 dawoom@dawoom-t4c.org
장혜영 의원실 02-784-1845-6
권인숙 의원실 02-784-9241-2

주최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국회부의장 김성희
국회의원 강민정 강은미 권인숙 류효정
박주민 배준희 심상정 용혜인 유정주
이동주 이상민 이은주 이탄희 장혜영
국회 여성아동인권위원회

국회 결과발표회 포스터

좌충우돌 조사과정

항상 본 이야기와 더불어 궁금해지는 것이 그 뒷이야기다. 네 명의 연구진이 이 연구조사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서, 참 많은 좌충우돌이 있었다. 보고서에서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보고서의 제작 과정과 그 내용에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기기로 했다.

1. 이 연구조사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당시 청년청)의 2021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부로 진행됐다. 설문조사가 배포되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이 “우와, 서울시가 이런 것도 지원하네” 라는 반응을 남겨주시기도 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던 계기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다음이 청년프로젝트에 지원한 계기 중 하나도, 사업 지원공고에 명확하게 ‘LGBTI 인식 개선 사업’이 예시로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예시 문구는 지원사업 담당자의 강한 의지였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물론 이 조사 결과는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지만, 당시 지원사업을 심사했던 위원 및 결과를 평가한 위원 모두가 성소수자 인권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던 모습은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그 공감과 지지가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과제다.

2. 3,911명의 대규모 설문 참여는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다. 연구진들이 소심했던 것인지, 처음에는 1,000명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지를 가지고 의논을 많이 했다. 다음 구성원들이 함께 활동했던 대학 내 성소수자 모임과 학생회,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를 통한 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조력을 받았다. 코로나19가 기승이었던 때였기에 오프라인보다는 성소수자들이 모이는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리고자 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설문조사가 배포된지 하루 채 지나지 않아 응답자가 1,000명을 돌파했고, 이튿날에는 2,000명을 돌파해버렸다.

3. 설문조사 답례품으로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준비했다. 처음에 준비했던 수량은 1,000개였다. 최대한 많은 분에게 답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전체 인구 규모를 알기 어려우므로 표본이 조금이라도 더

모일수록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변경을 통해 2배의 수량을 확보했다. 물론 그조차도 정말 빠르게 소진되었다. 모든 상품권이 소진되어 추가적인 답례가 어렵다는 공지를 했지만, 이후로도 3주간 약 1,900여명의 청년 성소수자 분께서 추가로 응답을 남겨주셨다.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대표성 있는 통계조사는 물론 다방면의 실태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성소수자들이 이런 조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열망이 참 크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4. 설문조사 응답 유입 경로를 다원화하기 위해서도 제법 노력했다. 최대한 다양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접근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대상의 이전 조사들에 비해 정체성의 분포가 매우 다양한 편이고,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조금 많지만) 성비도 꽤 고르게 모집되었다. 20대 초중반 응답자에 비해 30대 참여자가 적었던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이러한 편중이 온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실제 인구 분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과제로 남겨둔다. 다음 조사에서는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는 등,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소수자에게 닿아 그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이어가고자 한다. 홍보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5. 설문조사 종료 후 인터섹스 표본이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해당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간략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제 인터섹스 당사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처음 응답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여러 정체성 용어가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생경할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응답해주신 인터섹스 분들이 인터섹스로서 무엇을 바라는지에 관해 들을 수 있었고, 향후 이를 추가적인 조사로 이어가고자 한다.

6. 설문조사의 분량이 너무 많다는 피드백도 받았다. 자문을 해주셨던 활동가 한 분은 "이걸 누가하나"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변명을 하자면 그만큼 궁금한 게 많았다. 처음 질문지를 구성했을 당시에는 지금보다 문항수가 두 배 가량 많았고, 이를 압축적으로 줄여나가는 데 제법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연구진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질문들을 남긴 뒤에는 각자의 다양한 관심사를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이 질문만은 남기고 싶다"는 결단의 순간도 찾아왔다. 하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다. 대학 관련 경험이나 인식에 관해서는 통째로 삭제하고, 군 관련 경험들도 더 자세하게 묻고 싶었지만 간소화했다. 건강 관련한 질문도 많은 부분을 덜어냈다. 그밖에도 여러 질문을 간소화하면서 하나의 조사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질문지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그러면서도 청년 성소수자의 인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구성하려고 나름대로 애썼다. 남은 아쉬움은 향후 다른 조사를 통해 이어가도록 하겠다.

7. 그런데 연구자들이 묻고 싶은 게 많았던 만큼이나 설문참여자들도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 설문참여자 가운데 추가로 면접조사에 응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50%를 넘겼다. 면접조사 대상을 추리고 추려서 45명과 FGI를 진행했는데, 언제나 예정된 면접시간을 초과해서 질답이 이어졌다. 면접을 통해서 많이 웃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했다. 본 조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의 이야기를 사회가 듣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연구를 하시도록 응원할게요" 면접조사의 과정은 언제나 연구자들이 힘을 받고, 더 많은 고민과 과제를 얻어오는 시간이었다.

8. 국회에 가서 토론회를 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청년'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국회 정치인들이 3,911명의 청년 성소수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믿었다. 의도치 않게 대선 준비 기간과 시기가 맞물리기도 했다. 성소수자혐오를 일삼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토론회만 줄곧 열리던 국회의 풍경에 작은 균열을 내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님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님이 국회 결과발표회 개최에 힘써주셨다. 두 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모아주어서 뜻깊은 국회 결과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9. 국회 결과발표회에서 공동주최로 참여하셨던 상당수 국회의원분께서는 끝까지 자리에 남아 발표와 토론을 들어주셨다. 국회 결과발표회의 제목은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였다. '청년 성소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첫 국회토론회였다. 이날 결과발표회는 다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자료집에서 국회의원들의 축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심기용 활동가가 "차별금지법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저도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자 강민정 의원이 "우리 심기용 사회자 결혼 꼭 할 수 있게 합시다"라고 답변하는 등 모처럼 마음이 모이는 순간이었다.

10. 결과발표회에서는 흥미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 담당자,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등 다양한 분들이 청년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누었다. 다만 섭외 과정에서 몇몇 정부 부처에서 끝내 참여를 고사한 점은 무척이나 아쉽다. 본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다양한 가족구성권은 성소수자에 국한되지 않는 중요한 이슈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정책적 이슈가 많은 결과발표회였음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거나 준비된 입장이니 정책이 없어 곤란하다며 토론 참석을 손사래치기 바빴다.

11. 각국 대사관들에서도 본 연구조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한 대사관이 꽤 있는데, 최근 캐나다 대사관을 주축으로 15개의 대사관이 모여 성소수자 권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다음도 이곳에 참석하여 연구조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후로도 다음이 별도로 대사관들에 연구조사 관련된 일정들에 대해서 공유하기도 하고, 직접 국회토론회에 참석하시기도 하는 등 교류가 있었다. 그 외에도 몇몇 대사관과 직간접적으로 협력을 쌓아온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본 결과보고서를 영어로도 번역해 배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조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외 성소수자 실태조사 등을 상당수 참고하기도 했고, 국제적인 연대 활동도 앞으로 다음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2. 조사를 수행하는 내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대면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즐거운 행사를 시급히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잦았다. 본 조사와 같은 본격적인 연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모여 자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자리가 청년 성소수자에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사회가 외면하고 배제해온 삶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화수분처럼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있다.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러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다음에게 남겨진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13.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점은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께 제공하는 답례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큰 규모의 지원사업이 없다면 홍보비나 인건비 등 조사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뜻이다. 다음은 앞으로 본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년 성소수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후속 조사를 준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 담긴 청년 성소수자들의 바람을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가열차게 활동하겠다. 다음의 활동과 방향에 공감하신다면, 다음이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3 조사참여자의 분포와 특성

설문조사 참여자

설문조사 응답자 3,911명의 성소수자 정체성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출생 시 성별, 현재 법적 성별,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정체성 분포는 시스젠더 여성 1,704명(43.6%), 시스젠더 남성 1,469명(37.5%), 트랜스남성(FTM) 62명(1.6%), 트랜스여성(MTF) 109명(2.8%), 논바이너리/젠더퀴어 569명(14.5%)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성적지향에 따른 정체성 분포는 동성애자(레즈비언·게이) 1,984명(50.7%), 양성애자(바이섹슈얼) 876명(22.4%), 범성애자(팬섹슈얼) 423명(10.8%), 무성애자(에이섹슈얼) 285명(7.3%), 퀴어 214명(5.5%), 이성애자 24명 (0.6%), 기타(직접입력) 107명(2.7%)으로 나타났다.

시스젠더 여성 중에서는 레즈비언이 641명(37.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양성애자(바이섹슈얼) 606명(35.6%), 범성애자(팬섹슈얼) 226명(13.3%), 무성애자(에이섹슈얼) 124명(7.3%)으로 나타났다. 시스젠더 남성 중에서는 게이가 1,207명(82.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양성애자(바이섹슈얼) (171명, 11.7%)가 뒤를 이었다. 트랜스젠더의 성적지향 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범성애자(팬섹슈얼) 137명(24.1%), 무성애자(에이섹슈얼) 127명(22.3%), 퀴어 101명(17.8%)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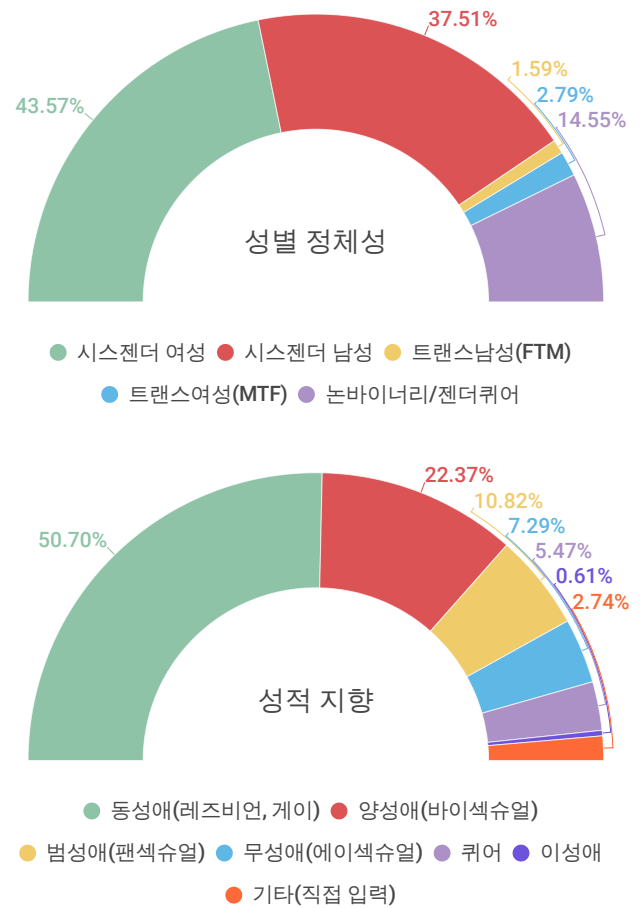


그림 2.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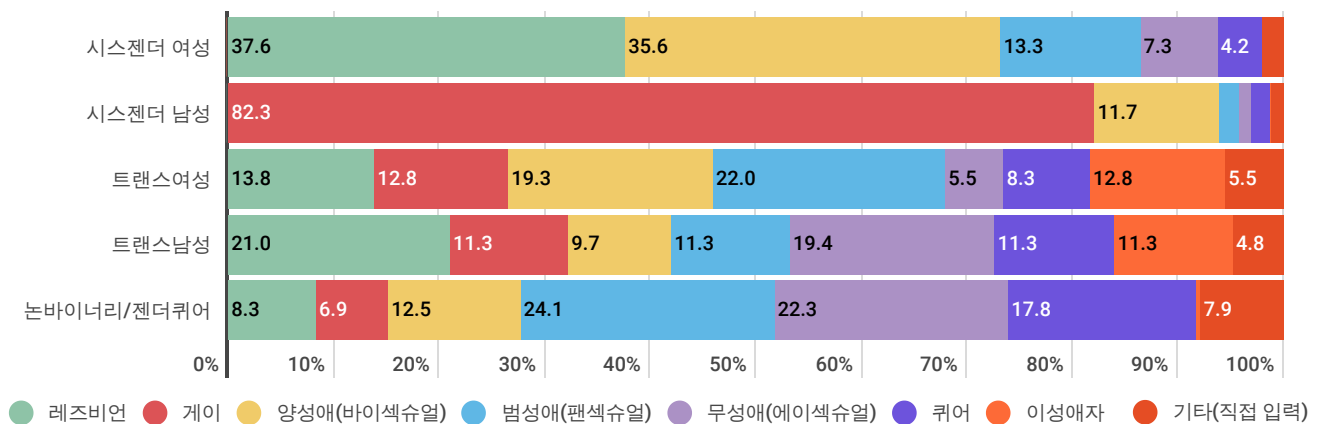


그림 3. 성별정체성별 성적지향 분포

분석에 활용한 정체성 범주

본 조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설문참여자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분포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정체성의 범주로 흔히 알려진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외에도 논바이너리와 젠더퀴어, 팬섹슈얼, 에이섹슈얼, 퀴어, 그밖의 다양한 정체성 용어로 자신을 설명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졌다.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극명해진다. 당시 설문에 참여한 청년(만 19세~만 34세) 응답자 2,391명 가운데 시스젠더는 90.2%, 동성애자는 5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시스젠더 81.1%, 동성애자 50.7%로 꽤 하락한 반면 2014년 조사에는 적은 수에 불과했던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14.6%, 범성애(팬섹슈얼)이 7.3%를 차지했다. 스스로 '퀴어'라고 부르는 응답자도 5.5%나 되었고, 전체 응답자의 2.7%는 이러한 범주들이 충분히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며 다양한 정체성 범주로 자신을 소개했다. 예를 들면 성적 끌림의 유형을 '로맨틱(정서적 끌림)'과 '섹슈얼(성애적 끌림)'로 나누어 데미로맨틱, 팬로맨틱, 그레이섹슈얼 등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고, 호모플렉시블 등 다소 유동적인 끌림의 유형으로 정체화하는 이들도 있었다. 성별정체성의 경우에도 에이젠더, 안드로진, 데미걸, 젠더플루이드 등 기존 범주들의 경계에 놓여있거나, 범주들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표 3.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분포 비교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n=2,391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n=3,911
성별정체성		
시스젠더 여성	64.3	43.6
시스젠더 남성	25.9	37.5
트랜스여성	2.6	2.8
트랜스남성	3.2	1.6
논바이너리/젠더퀴어**	4.0	14.6
성적지향		
동성애(레즈비언, 게이)	58.5	50.7
양성애(바이섹슈얼)	34.7	22.4
범성애(팬섹슈얼)	2.3	10.8
무성애(에이섹슈얼)	0.7	7.3
퀴어***	-	5.5
이성애	3.3	0.6
기타(직접입력)****	0.5	2.7

* 해당 조사를 비교군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사의 응답자 3,159명 가운데 청년(만 19세~만 34세)에 해당하는 2,391명의 분석 대상으로 삼음

** 2014년 조사에서는 '논바이너리'라는 항목으로 포함됨

*** 2014년 조사에서는 '퀴어' 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음

**** 2014년 조사에서는 '퀴어' 항목으로 포함됨

이러한 변화는 성소수자 당사자 혹은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새로운 과제를 의미한다. 즉, LGBT라는 기존의 범주로는 성소수자 집단의 인구를 적절하게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는 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는 데도 중요한 과제였다. 문항별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전반적인 경향에 더해 정체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자 할 때, 그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가 됐다. 가령 '시스젠더/트랜스젠더'와 '동성애/양성애/이성애'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청년 성소수자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반대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정체성을 모두 분석 범주로 삼기에는 그 종류가 너무도 많았던 것이다.

미리 당부하자면 본 보고서에서 활용한 범주화는 분석을 위한 임시적이고 임의적인 분류다. 가령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 가운데 자신의 성적지향을 퀴어나 에이섹슈얼이라고 답한 자도 적지 않다. 바이섹슈얼이면서 동시에 트랜스젠더인 응답자도 무척 많다. 그러나 통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한 범주의 응답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하고, 그러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응답 경향의 차이가 존재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정체성 범주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교차하여 분류한 다음 9가지의 범주를 비교분석의 틀로 활용하였다. 이 범주들은 각 정체성 집단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고안된 임시방편이다.

- 1) 레즈비언(n=641)
- 2) 게이(n=1,207)
- 3) 바이섹슈얼 여성(시스젠더)(n=832)
- 4) 바이섹슈얼 남성(시스젠더)(n=200)
- 5) 퀴어(시스젠더)(n=150)
- 6) 에이섹슈얼(시스젠더)(n=140)
- 7) 트랜스여성(n=109)
- 8) 트랜스남성(n=62)
- 9)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1) 레즈비언부터 6) 에이섹슈얼까지는 시스젠더 응답자 중에서만 성적지향을 분류한 것이고, 성별정체성이 시스젠더가 아닌 응답자들은 성별정체성만을 기준으로 7) 트랜스여성부터 9) 논바이너리/젠더퀴어로 분류하였다. 아쉽지만 만일 이 이상으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의 세부적인 교집합들을 고려한다면 분석 범주로서는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기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다른 지면을 통해 조사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5.1세로, 19~24세가 1,909명(48.8%), 25~29세가 1,270명(32.5%), 30~34세가 732명(18.7%)으로 나타났다(*본 보고서에 표기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임).

설문조사 응답자의 성별정체성을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본 분포는 다음과 같다. 시스젠더 여성은 19~24세가 1,035명(60.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5~29세는 463명(27.2%), 30~34세는 206명(12.1%)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스젠더 남성은 19~24세 500명(34.1%), 25~29세 576명(39.3%), 30~34세 391명(26.7%)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트랜스남성은 19~24세가 28명 (45.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5~29세가 21명(33.9%), 30~34세가 13명(21.0%)을 차지했다. 트랜스여성은 19~24세가 54명(49.5%), 25~29세가 31명(28.4%), 30~34세가 24명(22.0%)의 분포를 보였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19~24세가 292명(51.3%)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5세~29세가 179명(31.5%), 30~34세가 98명(17.2%)의 분포를 나타냈다.

학력은 고졸 이하 718명(18.4%), 대학교 재학 1,457명(37.3%), 대학교 졸업 1,329명(34.0%), 대학원 이상 407명(10.4%)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3,884명(99.3%)이 현재 미혼 또는 비혼 상태였다. 24명(0.6%)는 현재 기혼 상태이며, 3명(0.1%)는 이혼/사별/ 별거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종교는 전체 응답자의 74.3%(2,905명)가 무교였으며, 믿고 있는 신앙이 있는 응답자는 개신교 380명(9.7%), 천주교 291명(7.4%), 불교 290명(7.4%), 기타 45명(1.2%)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1,694명(43.31%)은 현재 학생이었으며, 1,621명(41.45%)는 고용되었거나 자영업 등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무직, 전업 가사노동 혹은 구직 중인 응답자는 596명(15.24%)였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이 1,688명(43.2%), 사무/기술직이 634명(16.2%), 취업준비생이 429명(11.0%), 무직이 210명(5.4%), 자유직이 173명(4.4%), 교육직이 156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 인식은 상층 99명(2.5%), 중상층 735명(18.8%), 중중층 1,437명(36.7%), 중하층 1,284명(32.8%), 하층 356명(9.1%)의 분포를 보였다. 장애 여부는 등록 장애 35명(0.9%), 비등록 장애 291명(7.4%),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 3,585명(91.7%)의 분포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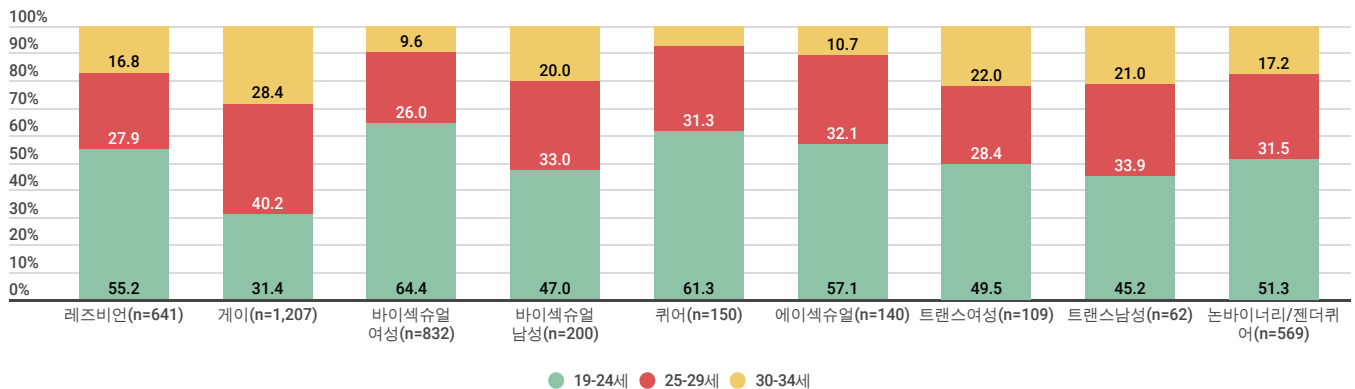


그림 4. 정체성별 연령대 분포

표 4. 설문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전체(n)=3,911		n	%
연령대	19-24세	1,909	48.8
	25-29세	1,270	32.5
	30-34세	732	18.7
최종학력	고졸	718	18.4
	대학교 재학	1,457	37.3
	대학교 졸업	1,329	34
	대학원 이상	407	10.4
혼인상태	미혼/비혼	3,884	99.3
	기혼	24	0.6
	이혼/사별/별거	3	0.1
종교	불교	290	7.4
	가톨릭(천주교)	291	7.4
	개신교	380	9.7
	무교	2,905	74.3
거주지역	서울특별시	1,564	40.0
	부산광역시	189	4.8
	인천광역시	177	4.5
	대구광역시	129	3.3
	광주광역시	96	2.5
	대전광역시	149	3.8
	울산광역시	39	1.0
	세종특별자치시	27	0.7
	경기도	921	23.6
	강원도	68	1.7
	충청북도	92	2.4
	충청남도	86	2.2
	전라북도	83	2.1
	전라남도	39	1.0
	경상북도	90	2.3
	경상남도	118	3.0
	제주특별자치도	44	1.1

전체(n)=3,911		n	%
취업상태	취업자	1,621	41.5
	학생	1,694	43.3
	무직, 주부, 구직 중	596	15.2
주관적 계층	상층	99	2.5
	중상층	735	18.8
	중중층	1,437	36.7
	중하층	1,284	32.8
직업	하층	356	9.1
	학생	1,688	43.2
	취업준비생	429	11.0
	경영/관리직	23	0.6
	전문직	100	2.6
	사무/기술직	634	16.2
	서비스종사자	110	2.8
	판매/서비스직	93	2.4
	교육직	156	4.0
	자영업	62	1.6
	기능/숙련공	18	0.5
	자유직	173	4.4
	유흥업소 종사자	12	0.3
	단순노무 종사자	43	1.1
	취로 및 공공사업	13	0.3
	군인	57	1.5
	농업, 임업, 어업	2	0.1
가정주부	4	0.1	
무직	210	5.4	
장애 여부	등록 장애	35	0.9
	비등록 장애	291	7.4
	장애를 갖지 않음	3,585	91.7

면접조사 참여자

파일럿 조사를 제외한 FGI와 심층면접에 참여한 면접조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였다.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은 연구진이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참여자가 스스로 작성하거나 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였다.

표 5. 면접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

인용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만 나이	거주지역	최종학력	현재직업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4	경기도	대졸	학생
참여자 2	논바이너리 뉴트로이스	에이섹슈얼	33	서울특별시	석사	사무직
참여자 3	트랜스젠더 남성	에이섹슈얼	28	울산광역시	박사 재학	학생
참여자 4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5	서울특별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5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33	경기도	대졸	교육직
참여자 6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1	서울특별시	대재	학생
참여자 7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26	경기도	대졸	사무직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3	서울특별시	대재	학생
참여자 9	트랜스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게이	29	대전광역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10	여성	레즈비언	27	대전광역시	대졸	취준생
참여자 1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	대전광역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12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	대전광역시	석사	사무직
참여자 13	논바이너리	게이	23	대전광역시	대재	학생
참여자 1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9	서울특별시	대졸	사무직
참여자 1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	부산광역시	대졸	서비스업
참여자 16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	경기도	대졸	사무직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2	서울특별시	대졸	교육직
참여자 18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4	경상남도	석사	전문직
참여자 19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9	서울특별시	대졸	기타
참여자 20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32	서울특별시	대재	기타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	강원도	대재	학생
참여자 22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	서울특별시	박사 재학	학생

인용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만 나이	거주지역	최종학력	현재직업
참여자 23	시스젠더 남성	게이	23	부산광역시	고졸	예술직
참여자 2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	경기도	대재	학생
참여자 25	논바이너리	퀴어	25	경기도	대재	학생
참여자 26	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	20	부산광역시	대재	학생
참여자 27	시스젠더 남성	게이	25	부산광역시	대졸	취준생
참여자 28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	서울특별시	대졸	예술직
참여자 29	트랜스젠더 남성	팬섹슈얼 데미로맨틱	25	경기도	대재	학생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	전라북도	대졸	사무직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	충청남도	대졸	취준생
참여자 32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31	서울특별시	석사	전문직
참여자 33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2	대전광역시	대재	교육직
참여자 34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6	서울특별시	대재	학생
참여자 35	트랜스젠더 여성	에이섹슈얼	22	서울특별시	대재	기술직
참여자 36	여성	레즈비언	27	대전광역시	대재	학생
참여자 37	남성	게이	31	경기도	고졸	서비스직
참여자 38	데이보이플루이드	안드로섹슈얼	26	서울특별시	고졸	공공사업
참여자 39	시스젠더 여성	오토코리섹슈얼	26	부산광역시	고졸	서비스직
참여자 40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6	경기도	고졸	기타
참여자 41	남성	팬섹슈얼	23	서울특별시	고졸	공공사업
참여자 42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7	경기도	고졸	사무직
참여자 43	시스젠더 남성	게이	31	부산광역시	석사	교육직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	경기도	석사	기술직
참여자 4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4	서울특별시	고졸	서비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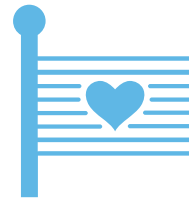
04 정체성과 커뮤니티

언제 알았고, 언제 받아들였는가



14.7세

평균 정체성 인지 시기



17.8세

평균 정체성 수용 시기

응답자가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언제 처음으로 인지하고 수용하였는지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의 두 질문을 제시하였다. “귀하가 귀하의 성소수자로서의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귀하가 귀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성소수자로서의 성향을 최초로 인지한 시기의 응답자 전체 평균은 14.7세이다. 정체성별로 살펴본 평균 정체성 인지 시기는 트랜스여성(13.0세)로 가장 빨랐고, 게이 13.4세, 트랜스남성 13.8세 순으로 이어졌다. 정체성 인지 시기가 가장 가장 늦은 것은 에이섹슈얼(17.2세)이었다.

성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시기의 응답자 전체 평균은 17.8세로 나타났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게이 17.2세로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장 빠르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레즈비언 17.3세, 트랜스남성 17.6세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정체성을 수용하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가장 늦은 것은 에이섹슈얼(19.8세)이었다. 트랜스여성의 경우 인지 시기가 가장 빨랐던 것에 비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체성 인지 및 수용 시기

단위: 세, 만나이	정체성 인지 시기	정체성 수용 시기
전체(n=3,911)	14.7	17.8
레즈비언(n=641)	14.8	17.3
게이(n=1,207)	13.4	17.2
바이섹슈얼 여성(n=832)	16.1	18.2
바이섹슈얼 남성(n=200)	15.5	18.7
퀴어(n=150)	15.4	17.7
에이섹슈얼(n=140)	17.2	19.8
트랜스여성(n=109)	13.0	19.4
트랜스남성(n=62)	13.8	17.6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14.3	18.0

정체성을 받아들인다는 것

면접참여자들은 자신이 언제 성소수자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었는지 꽤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많은 경우 정체화 과정에 있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당연하게 제가 여자도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주변에 혐오자가 많이 없었어요. (...) 20대부터 여자친구도 사귀어보면서 '나는 바이섹슈얼이구나. 나는 둘 다 좋아할 수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참여자 4, 시스템더 여성 바이섹슈얼, 25세)

첫사랑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는 OO라는 되게 예쁜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이제 좋아하고 나서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은 거죠. 처음엔 제가 바이섹슈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이섹슈얼로 정체화를 하고 그렇게 지내 왔는데 고등학교가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남자에게는 좀 관심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레즈비언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계기가 이제 한 20대 초반, 24살 정도였고. 그때쯤에 이제 지금 사귀는 연인을 만났어요. (참여자 42, 시스템더 여성 레즈비언, 27세)

저는 유치원생 때부터 꿈 같은 것도 남다르게 현모양처였고 남편을 두고 내가 집안 살림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역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 초등학교 2학년 쯤에 남자랑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좀 많이 놀림을 받았어요. 그때 "너 남자 좋아하냐"고.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서 그냥 그렇구나 한 거 같았는데, 그때 괴롭힘인지도 모르고 괴롭힘 당하다가 애들이 안 놀아 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싫어서 티 내면 안 된다는 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41, 시스템더 남성 팬섹슈얼, 23세)

흔히 말하는 성 고정 역할 때문에, 보통 남자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로봇을 가지고 논다든지 좀 개구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노는 거 되게 좋아라

했고 로봇이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었던 꼬마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흔히 말하는 성 고정 역할에 대한 것과는 좀 핏트가 나가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참여자 43, 시스템더 남성 게이, 31세)

사실 남자한테 관심을 가졌던 거는 되게 오래 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동네형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 그 때는 자각을 아예 못 했어요. 게이라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었지만 내면화 시키지를 못해서 다른 사람 일인줄 알았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올라와서 관련 컨텐츠 좀 접하고 책도 읽으면서 '아 내가 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 19살때쯤. (참여자 44, 시스템더 남성 게이, 28세)

유치원 때부터 그냥 남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 남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속 쪽 지나다가 이런 게 어떤 흔히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것은 중학생 때였고. 그리고 이것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이걸 게이라고 부르거나 이런 걸 트랜스젠더라고 부르거나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구나. (...) 근데 이런 전반적인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 뭔가 고민하고 이런 거에 큰 저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3, 논바이너리 게이, 23세)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소위 말하는 여자 대우를 받은 적이 한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교복을 좀 바지 교복을 입거나 머리가 좀 짧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를 안 하셨고 그래 가지고 정체화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 (참여자 29, 트랜스젠더 남성 팬섹슈얼 데미로맨틱, 25세)

2차 성징이 오면서 원하는 쪽에 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표현하는 것과 불일치가 심해지면서 그때부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심해졌는데. 중학교 때쯤까지만 해도 트랜스젠더 하면은 하리수 같이 여성으로 수술을 하신 분밖에 가시화가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얘기해도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되는 거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세)

저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도 하고 사실 어머니가 좀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셔서 가정으로부터 남성으로서의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받았었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좀 버거워했었고 또래 여자 애들이 부러웠고 '어쩌면 나는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어렸을 때부터 했었고. 그 얘기를 했다가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보내셨는데 그게 뭐 소리냐" 하면서 되게 엄청 크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 회개하라고. 그 이후로 이제 잘 안 드러내고 그냥 좀 이렇게 숨기고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쿼어퍼레이드에 가서 거기서 트랜스젠더가 뭔지도 사실은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고. 그때 '내가 사실은 이제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트랜스젠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제 정체성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참여자 33, 트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2세)

중학교 쯤에 2차 성징이 올 때 몸이 아무래도 점점 남성의 특징이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수염이 난 첫 날에는 진짜 전 구토까지 할 정도로 되게 심했는데 그때는 아예 그런 개념을 잘 몰랐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디나이얼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자꾸 이렇게 부정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거의 20대 초반 쯤에 정체화 자체는 완전히 했었던 걸로. (참여자 34,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6세)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걱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이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면 보일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라는 문항에 대한 동의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때문에"가 82.4%로 그 뒤를 이었다. "친구, 지인 등 주변 사람이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면 보일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도 72.1%로 동의 비율이 높았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때문에"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4.5%, "내가 이상한 사람일까봐"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5.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들이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나, 대부분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걱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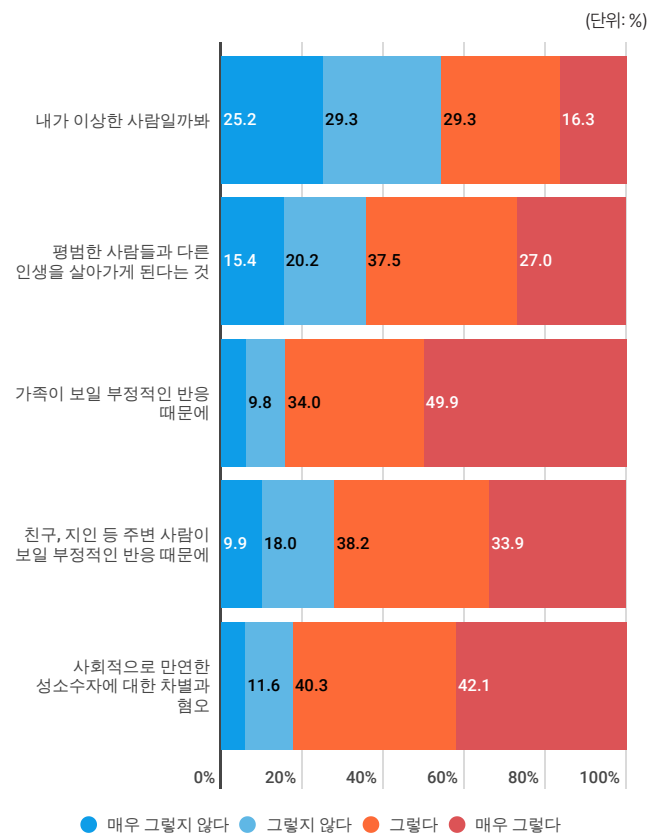


그림 5. 정체화 과정에서의 걱정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

많은 면접참여자들에게 가족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지만 동시에 커밍아웃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다.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나 가까운 가족이 이를 부정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또,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는 등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로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혈연 직계가족 빼고는 대부분 혐오자가 아니었던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말할 수 없다 혹은 거부당했다는 점이 가장 슬프고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3세)

제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생각이나 고민이나 노력은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지만 저희는 집안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가족들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혼자서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었고 고등학교 때가 그때가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2세)

가족한테 제일 두려움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가족들이 되게 막 난리가 나고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거예요. 또 집안에서 제가 장남이라고 남자 형제는 없고 여자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되게 계속 '너는 집안을 이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여자 27, 시스젠더 남성 게이, 25세)

중학교 때에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급식소에서 저보고 게이라고. 선생님들 다 같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저를 보듬어주는 사람은 없었고 선생님들은 무시하기 바빴고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참여자 2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주변의 환경 특히 종교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부모님의 언행 이런 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22,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세)

서른 살이 들어가는 시기가 오니까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게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왔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이나 가정을 꾸리는 거나 앞으로 직장의 커리어를 어떻게 쌓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그때부터 디스포리아가 엄청 심해졌었어요. (참여자 32,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31세)

맨 처음에 인지했을 때 그렇게 걱정됐던 게 끝이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보통 가정이라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나중에 또 손자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정상 루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나서 자녀도 없이 그냥 돌이서 쪽 갈 수도 없고 아니면 나중에 혼자서 그냥 쪽 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참여자 1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세)

의례적으로 다 나쁘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잖아요. (...) 미디어 같은 거 보면은 막 여장하고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냥 되게 더럽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됐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참여자 28,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세)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과 의료적 조치

표 7. 호르몬 요법 진행 여부

단위: %	전체 n=604	트랜스 여성 n=93	트랜스 남성 n=49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462
현재 호르몬 요법을 진행 중이다	18.2	63.4	38.8	6.9
과거에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2.6	3.2	4.1	2.4
과거에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았으나, 추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18.9	24.7	40.8	15.4
과거에 호르몬 요법을 받지 않았고, 추후 계획도 없다	60.3	8.6	16.3	75.3

표 8. 성확정(성전환) 수술 여부

단위: %	전체 n=604	트랜스 여성 n=93	트랜스 남성 n=49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462
전혀 받지 않았다	92.4	79.6	71.4	97.2
가슴 수술	4.6	8.6	28.6	1.3
난소, 자궁/고환, 정소 제거 수술	4.8	10.8	24.5	1.5
성기형성 수술	1.7	5.4	2.0	0.9
기타	0.8	4.3	2.0	0.0

표 9.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복수응답	전체 n=558	트랜스 여성 n=74	트랜스 남성 n=35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449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50.4	5.4	8.6	61.0
경제적 부담 때문에	45.2	79.7	69.0	38.0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사회적 관계와 지위를 잃기 싫어서)	28.1	39.2	42.9	25.2
수술 이후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21.7	17.6	17.1	22.7
수술과정의 위험성(수술 자체의 위험)	19.4	14.9	17.1	20.3
가족이나 지인들의 반대 때문에	13.3	25.7	22.9	10.5
정상적인 성기능을 가질 수 없어서	8.4	8.1	17.1	7.8
기타	5.4	4.1	8.6	5.3

자신이 트랜스젠더 혹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라고 응답한 604명의 응답자에게 정체화 과정의 성별정체성 관련 이슈를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의료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먼저 현재 호르몬 요법을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트랜스젠더 혹은 젠더퀴어라고 응답한 604명 가운데 16.9%는 현재 호르몬 요법을 진행 중에 있었고, 17.5%는 향후에 호르몬 요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호르몬 요법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트랜스여성(88.1%)과 트랜스남성(79.6%)이 높았고, 논바이너리/젠더퀴어(22.3%)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성별정체성 관련 의료적 조치 여부로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 604명의 응답자 가운데 558명(92.4%)은 성확정 수술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트랜스남성의 28.6%, 트랜스여성의 20.4%는 최소 한 가지 이상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대부분 응답자가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성확정 수술을 전혀 받지 않은 558명에게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50.4%)였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45.2%),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사회적 관계와 지위를 잃기 싫어서)'(28.1%), '수술 이후 장기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21.7%), '수술과정의 위험성(수술 자체의 위험)'(19.4%) 등 경제적, 사회적 이유와 건강에 대한 걱정 등도 응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61.0%)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의료적 조치를 통한 성별정정에 대한 욕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트랜스젠더에서는 '직장이나 주위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사회적 관계와 지위를 잃기 싫어서)'와 '가족이나 지인들의 반대 때문에'가 비교적 응답의 높은 비율을 차지해 사회적 관계로 인한 요소가 성확정 수술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확정 수술을 최소 한 가지 이상 받은 응답자 48명에게 수술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물어보았다. 응답자의 54.2%는 본인의 수입을 통해 스스로 수술 비용을 마련했다고 응답하였다. 또, 응답자의 12.5%는 대출을 통해, 4.2%는 파트너의 지원을 통해 수술 비용을 마련하였고, 부모의 지원을 받은 응답자는 29.2%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들은 성확정 수술의 비용 문제로 인해 성확정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트랜스여성의 79.7%, 트랜스남성의 69%), 실제로 성확정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가족의 지원보다는 스스로 비용을 해결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법적으로 성별정정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향후 할 계획인지 물어보았다. 트랜스남성의 14.3%, 트랜스여성의 5.4%는 현재 공적 기록상 성별정정을 완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향후에 공적 기록상 성별정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트랜스여성의 82.8%, 트랜스남성의 61.2%를 차지했으며,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의 22.5%도 향후 법적 성별정정을 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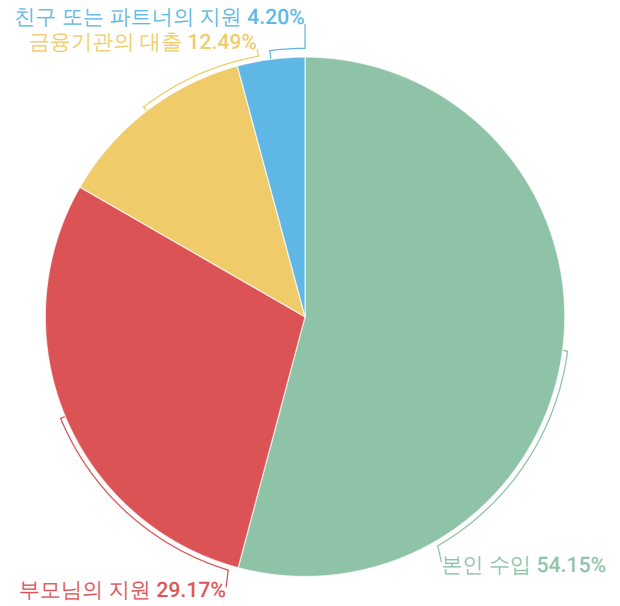


그림 6. 성확정 수술 비용의 출처

표 10. 성별 정정여부

단위: %	전체 n=664	트랜스 여성 n=93	트랜스 남성 n=49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462
법적 성별정정을 했다	3.2	5.4	14.3	1.3
신청했지만 기각되었다	0.6	2.2	0	0.2
시도한 적 없지만, 언젠가 할 계획이다	31.8	82.8	61.2	22.5
시도하지도 않았고, 할 계획도 없다	64.5	9.7	24.5	76.0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표현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표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최근 6개월간,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대체로 자신이 어떤 성별로 인식된다고 느끼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타인에게 인지된 성별표현과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동일하게 인식("패싱")되는 비율은 시스젠더 여성 84.1%, 시스젠더 남성 93.9%, 트랜스남성 32.3%, 트랜스여성 18.3%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최소 한 가지라도 성확정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 편차가 나타났다. 성확정 수술을 받은 트랜스남성의 59.3%가 항상 남성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해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11.4%)보다 패싱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성확정 수술을 받은 트랜스여성의 34.3%는 항상 여성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해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10.8%)와 비교할 때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표현과 자신의 성별정체성 간에 차이가 드러났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응답을 지정성별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정성별이 여성인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의 55.8%가 "항상 여성으로 인식됨", 지정성별이 남성인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의 53.4%가 "항상 남성으로 인식됨"으로 답하였다. 즉,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표현과 출생 시 성별(지정성별)의 관련성이 시스젠더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11. 지정성별에 따른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

단위: %	지정성별 여성 n=423	지정성별 남성 n=146
항상 남성으로 인식됨	1.2	53.4
대체로 남성으로 인식되나, 종종 여성으로 인식	4.7	26.0
남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고 여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음	9.2	10.3
대체로 여성으로 인식되나, 종종 남성으로 인식	24.3	3.4
항상 여성으로 인식됨	55.8	2.7
어떤 성별로도 인식되지 않음	4.7	4.1

표 12.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

단위: %	시스젠더 여성 n=1,704	시스젠더 남성 n=1,467	트랜스 여성 n=109	트랜스 남성 n=62	논바이너리/젠더퀴어 n=569
	항상 남성으로 인식됨	0.4	93.9	24.8	32.3
대체로 남성으로 인식되나, 종종 여성으로 인식	0.9	4.4	19.3	12.9	10.2
남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고 여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음	2.0	1.3	20.2	19.4	9.5
대체로 여성으로 인식되나, 종종 남성으로 인식	12.2	0.2	14.7	16.1	19.0
항상 여성으로 인식됨	84.1	0.0	18.3	17.7	42.2
어떤 성별로도 인식되지 않음	0.4	0.2	2.8	1.6	4.6

표 13. 성확정 수술 여부에 따른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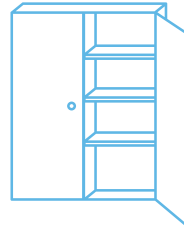
단위: %	트랜스여성 n=109		트랜스남성 n=62	
	성확정 수술 함 n=35	하지 않음 n=74	성확정 수술 함 n=27	하지 않음 n=35
항상 남성으로 인식됨	17.1	28.4	59.3	11.4
대체로 남성으로 인식되나, 종종 여성으로 인식	11.4	23.0	7.4	17.1
남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고 여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음	22.9	18.9	14.8	22.9
대체로 여성으로 인식되나, 종종 남성으로 인식	11.4	16.2	11.1	25.7
항상 여성으로 인식됨	34.3	10.8	7.4	11.4
어떤 성별로도 인식되지 않음	2.9	2.7	0.0	2.9

커밍아웃



11.8%

살면서 커밍아웃 한 적 없음



19.2세

평균 최초 커밍아웃 시기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대상은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가 1,715명(43.9%), '성소수자 친구, 동료' 1,315명(33.6%)으로 친구나 동료에게 가장 먼저 커밍아웃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커밍아웃을 한 적 없는 사람도 460명(11.8%)이나 되었다. 이외에도 '어머니' 130명(3.3%), '부모님을 제외한 (핵)가족 구성원' 101명(2.6%), '기타' 67명(1.7%), '심리상담 전문가' 53명(1.4%), '의료진 등 건강 관련 전문가' 20명(0.5%), '아버지' 16명(0.4%), '그 외 친척들' 14명(0.4%), '교사' 13명(0.3%), '종교인' 8명(0.2%)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족보다는 친구나 동료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표 14. 최초 커밍아웃 상대

전체(n)=3,911	%
비성소수자 친구, 동료	43.9
성소수자 친구, 동료	33.6
어머니	3.3
부모님을 제외한 (핵)가족 구성원	2.6
심리상담 전문가	1.4
의료진 등 건강 관련 전문가	0.5
아버지	0.4
그 외 친척들	0.4
교사	0.3
종교인	0.2
기타	1.7
해당사항 없음(커밍아웃 한 적 없음)	11.8

커밍아웃 경험이 없는 460명을 제외한 3,451명의 응답자의 평균 최초 커밍아웃한 시기는 19.2세로 나타났다. 정체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트랜스남성이 평균 18.3세로 가장 빨랐고, 레즈비언 18.4세, 퀴어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18.8세로 그 뒤를 이었다. 에이섹슈얼(20.8세), 트랜스여성(20.1세), 바이섹슈얼 남성(20.0세)은 상대적으로 커밍아웃이 늦었다.

상대방에 따른 커밍아웃 여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7%는 어머니에게, 16.2%는 아버지에게 커밍아웃을 한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의 만 19세~만 34세 결과와 비교하면 부모에게 커밍아웃 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약 1.5배가량 늘어났다.

표 15. 최초 커밍아웃 시기

단위: 세, 만 나이	
전체(n=3,451)	19.2
레즈비언(n=641)	18.4
게이(n=1,207)	19.8
바이섹슈얼 여성(n=832)	19.0
바이섹슈얼 남성(n=200)	20.0
퀴어(n=150)	18.8
에이섹슈얼(n=140)	20.8
트랜스여성(n=109)	20.1
트랜스남성(n=62)	18.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18.8

'나로 인정받고자 하는 바람

응답자의 78%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비성소수자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 동료나 상사의 경우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가 각각 64.8%와 71.3%로 나타나, 직장에서의 커밍아웃은 비교적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26.4%는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17.9%는 의료진 등 건강 전문가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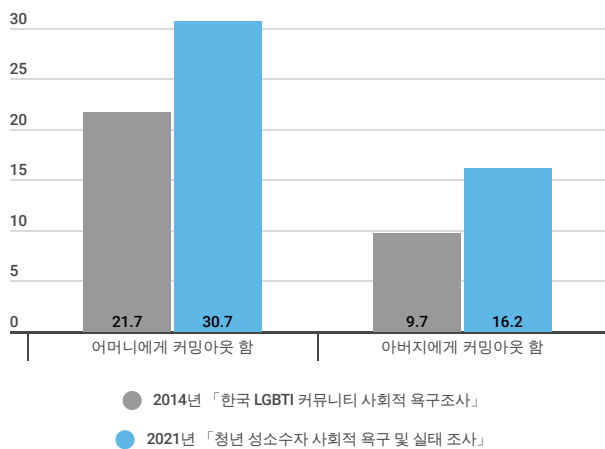


그림 7. 부모에 대한 커밍아웃 여부

표 16. 대상별 커밍아웃 여부

전체 (n)=3,451 (단위: %)	커밍아웃 했음*	커밍아웃 하지 않음	해당없음
어머니	30.7	63.6	5.7
아버지	16.2	74.8	9
형제자매	37.1	52.0	10.8
비성소수자 친구	78.0	20.2	1.8
직장 동료	15.2	64.8	19.9
직장 상사	7.3	71.3	21.5
심리상담 전문가	26.4	48.0	25.7
의료진 등 건강 전문가	17.9	58.6	23.6

* '커밍아웃 했음'은 선택지 가운데 '전혀 알지 못 함'을 제외한 '일부 알고 있음', '대부분 알고 있음', '모두 알고 있음'을 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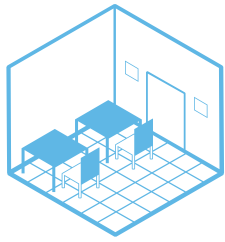
면접참여자들은 커밍아웃을 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간절히 성공하고 싶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교적 또래 친구들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받아들여주는 편이지만 커밍아웃의 결과가 좋지 못했을 때 교우 관계의 단절이 발생할 수 있고, 부모에게 커밍아웃하는 것은 더욱 큰 위험을 무릅쓰는 일로 여겨졌다.

제일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중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스무 살 때쯤 이야기를 했었고요. 남자인데, 처음에 해줬던 말이. "뭐, 괜찮아 어차피 친구잖아"라는 식의 반응이었어서 되게 많이 안심했어요. (참여자 28, 트랜스젠더 남성 게이, 27세)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때 타이밍이 맞아서 그 친구에게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생각 외로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고, '사실 자기 지인 중에 FTM인 분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의 지지가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세)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내가 내 자식이었으면 진짜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집안에 쳐박아 뒀을 거다"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매일 붙어다니는 친구였는데도 커밍아웃 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자랑 말도 안 하고 아예 이제 약간 무시한 채 지내고. (참여자 17, 트랜스젠더 남성 게이, 32세)

커밍아웃이나 트랜스젠더로 사는 거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 제가 있을 공동체가 없어지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게 될까 봐. 그게 특히 가족이라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친구들이라거나 해서 이제 제가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커밍아웃을 한다면 이제 그런 무리에서 "이런 나라도 좀 받아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봐 진짜 많이 무섭기는 하네요. (참여자 32,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31세)



66.3%

직장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림



77.3%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을 꺼림

“귀하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을 당할까봐 걱정되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곳은 어디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가장 정체성을 드러내기 꺼려하는 곳으로 꼽은 장소는 직장(66.3%)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44.4%), 가족과 함께 있을 때(39.8%), 집(36.9%), 길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33.5%)의 순으로 이어졌다. ‘해당 없음’에 답한 사람은 425명(10.9%)로, 설문조사 가운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열 명에 한 명 꼴로 나타났다.

“귀하는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손잡기, 키스, 포옹)을 꺼려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해당 없음(동성에 끌리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166명을 제외한 3,745명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7.3%(‘항상 꺼린다’, ‘종종 꺼린다’, ‘가끔 꺼린다를 합친 값’)는 폭력이나 위협,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손잡기, 키스, 포옹)을 꺼려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청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동성 파트너와의 공개적인 스킨십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이(86.9%)와 바이섹슈얼 남성(82.2%)에서 스킨십을 꺼린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항상 꺼린다’라는 응답이 게이 응답자의 37.0%, 바이섹슈얼 남성 응답자의 41.6%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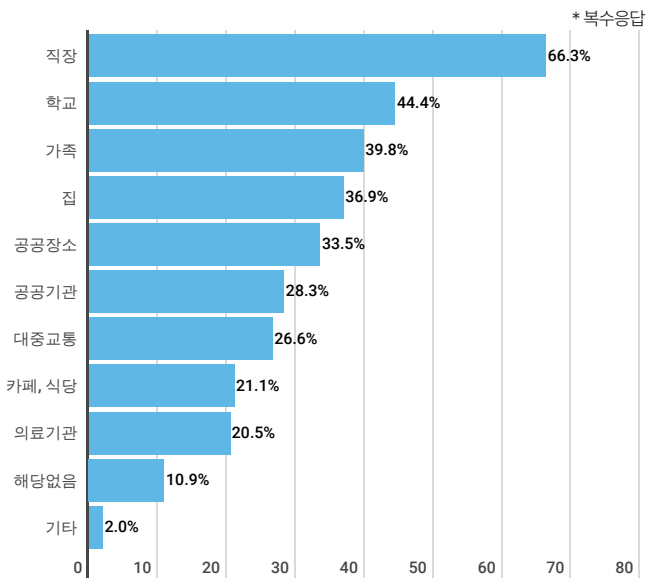


그림 8.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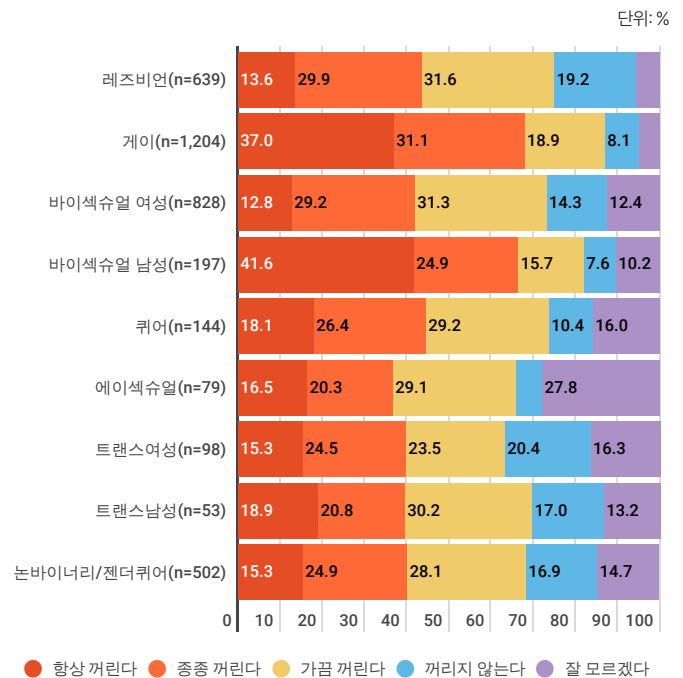


그림 9.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 스킨십 기피 여부

가족과의 관계

"현재 가족들은 귀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얼마나 지지해 줍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1,955명을 제외한 1,956명 응답자 가운데 커밍아웃을 했을 때 가족이 자신을 지지해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02명(30.8%)이었다. 773명(39.5%)은 가족이 자신을 지지하지도, 반대하거나 무시하지도 않았고 응답하였고, 581명(29.7%)는 가족이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무시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가족 중 내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1,892명과 해당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102명을 제외한 1,91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가장 빈번한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지만 모른 체 했다'가 875명(45.6%)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가 498명(26.0%), '오랜 시간동안 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326명(17.0%), '웃이나 화장 등 원하는 성별표현을 못 하게 했다'가 209명(10.9%)로 나타났으며,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 상담사 또는 종교인에게 데려갔다'(84명, 4.4%),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75명, 3.9%) 등 심각한 차별 및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가족에게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41.7%는 위와 같은 차별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29.7%

커밍아웃을 하자 이를 반대하거나 무시함

45.6%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것을 가족이 알면서 모른척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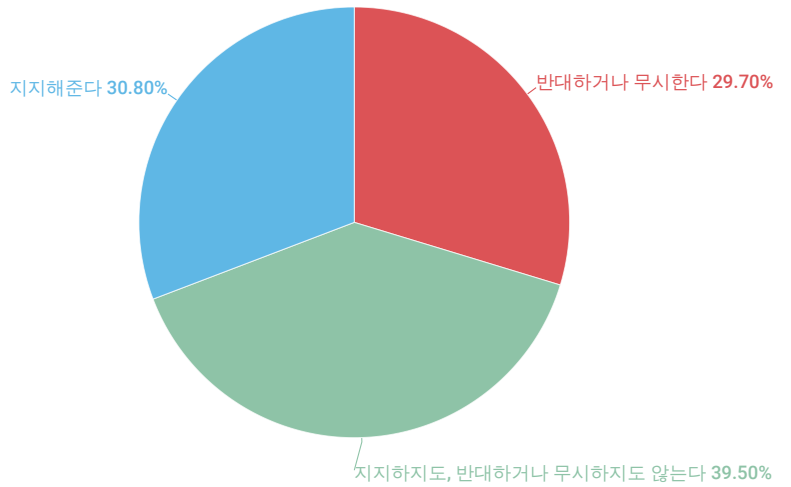


그림 10. 커밍아웃에 대한 가족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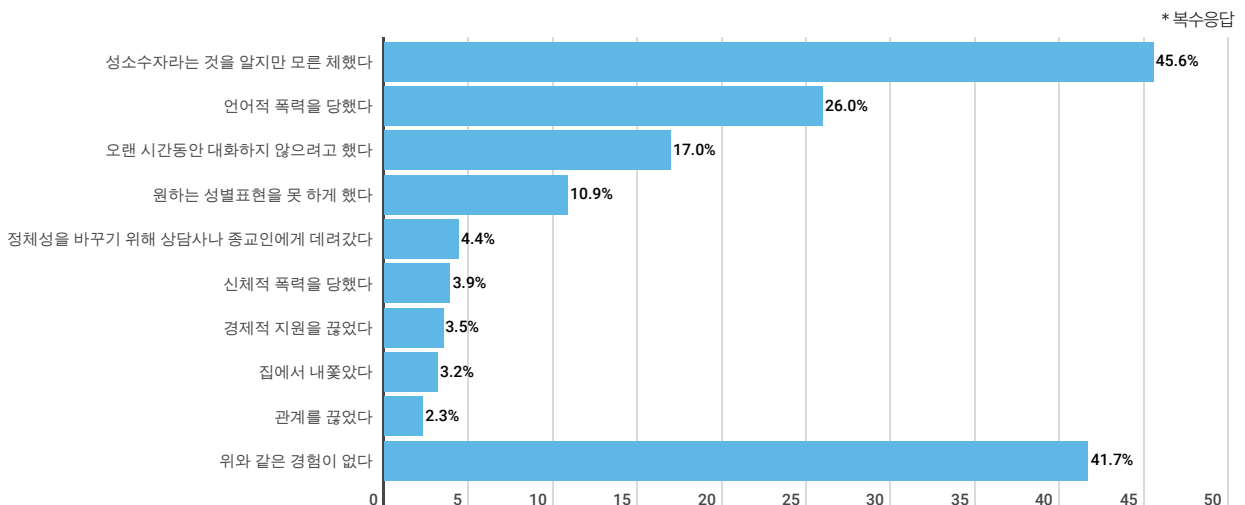


그림 11. 가족으로부터의 부정적인 경험

부모라는 가장 어려운 커밍아웃

큰 결심 끝에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한 면접참여자들 중에는 따뜻한 인정과 지지를 받은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커밍아웃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커밍아웃을 무시하고 없던 일처럼 해버리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고, 언어적 폭력이나 전환치료의 시도 또한 적지 않았다. 많은 면접참여자들은 커밍아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각오한 일이지 않지만 그보다도 상처가 크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한테만 말씀을 드렸고 어머니도 약간 반응이 개념이나 이런 거는 이해하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를 이해하기는 하겠지만 주변의 시선을 생각해서라도 그거는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였어서 그게 지금도 조금은 좀 상처로 남아요.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4세)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빠 내가 여자라면 어떨 것 같애?" 이렇게 여쭙았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자. 남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저희 언니는 대충 아는 것 같은데 저한테 '성불구자'라고 얘기를 했고. 엄마한테도 얘기 했는데 아직 안 좋게 보고요.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3세)

저는 부모님께 먼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채시고 "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들어줄 수 없으니까 네가 고쳐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와 부모님과 가족 관계에 완전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참여자 9, 트랜스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게이, 29세)

일단 한 번 운을 떠봤어요 엄마한테. "엄마 레즈비언 어떻게 생각해?" 이랬는데, "미친 것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참여자 36,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7세)

어머니께서 "자기는 괜찮다"면서 "남자 좋아하나"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술자리에서 그랬거든요. 어머니랑 같이 먹다가 "사실 맞아" 이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막 누구 죽은 것처럼 우셔 가지고. (참여자 28,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세)

어머니께서 "너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힘든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처음에 '아 내가 그래도 무난하게 커밍아웃 잘 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남성 파트너와의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근데 그게 뭔가 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냐면 파트너랑 되게 관계도 좋고 아직 파트너랑 만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불편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또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참여자 19,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9세)

저희 엄마는 아직도 제가 여성과 결혼을 하길 바라세요. 동성애자인 거 알고. "네가 그런 건 알지만 엄마의 바람에서는 그렇다 너가 꿈꿨던 여성과 결혼을 해서 너의 미래를 좀 책임질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은 "남자면 안 될까?"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한 그런 게 좀 되게 심했거든요. 그리고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성애자인 게 싫어서 "엄마한테 말하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되게 했었어요. (참여자 2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언제 한번 집에 내려가서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지?" 그러니까 "아유 그럼 언제나 내 편이지". "엄마가 내 편이 아니게 될 때는 언제일까" 그랬는데 어머니가 "네가 동성애자일 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아는데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얘기를 계속 못했던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왔고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2세)

부모님한테는 절대 못 해요. 아버지랑은 제가 평소에 사이가 정말 많이 안 좋고요. 어머니는 아마 기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아파하실 것 같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한 회피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외면하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대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하실 게 뻔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굶아터지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안 하려고요. (참여자 4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4세)

연애와 파트너십

“귀하는 현재 누군가와 연인 혹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는 ‘연인 혹은 파트너 관계’가 1,399명(35.8%)이며 ‘한국에서 법적 혼인(법률혼) 관계’가 13명(0.3%), ‘연애 중이며, 폴리아모리 등의 다자 관계’가 87명(2.2%),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가 2,412명(61.7%)이었다.

연애 형태의 경우 ‘성별정체성 기준 이성커플이고 법적으로도 이성커플’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159명(11.3%)이었으며, ‘성별정체성 기준 이성커플이지만 법적으로는 동성커플’은 72명(5.1%), ‘성별정체성 기준 동성커플이지만 법적으로는 이성커플’은 49명(3.5%), ‘성별정체성 기준 동성커플이고 법적으로도 동성커플’은 1,132명(80.2%)이었다.

현재의 파트너와 연애 관계를 맺은 기간의 전체 평균은 24.6개월이며, 최소값은 1개월, 최대값은 167개월이었다. 성적지향별은 퀴어가 평균 30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레즈비언이 평균 21개월로 가장 짧았다. 성별정체성별로 보면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평균 29.8개월로 가장 길었다.

현재 연애 관계에 있는 응답자 가운데 278명(19.7%)이 파트너와 현재 동거 중이었다. 이들의 동거 기간은 평균 27.2개월이었으며, 범위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14개월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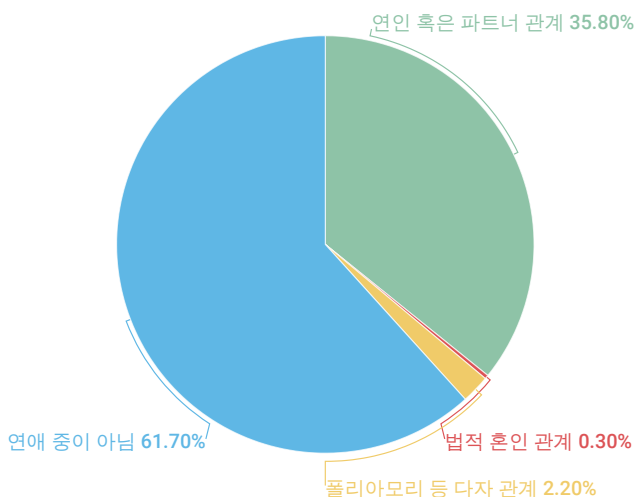


그림 12. 현재 연애 상태

한국에서 동성 간 혼인제도(동성혼) 또는 생활동반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은 결과, '동성혼과 생활동반자제도 모두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66.5%를 차지했으며, 생활동반자제도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4.1%, 혼인제도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파트너십 관련 제도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3%에 불과했다. 혼인제도와 생활동반자 모두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레즈비언(78.6%)이었고, 에이섹슈얼 응답자들은 생활동반자제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3.6%로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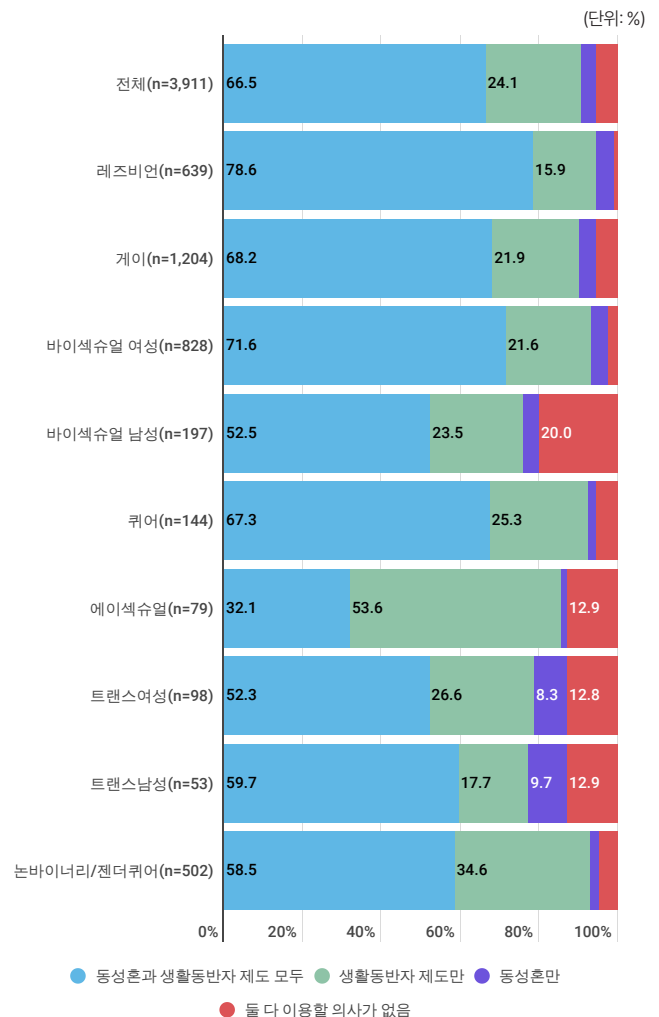


그림 13. 동성혼 및 생활동반자 제도 이용 의사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이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면접참여자들은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진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사회적 소수자로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단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속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저는 제가 성소수자인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성소수자라서 불행한 일을 훨씬 많이 겪긴 하지만 적어도 다른 성소수자나 다른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 않게 되었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3세)

저의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면 남들에게 당연한 상식이나 당연한 관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내게 당연한 게 누군가한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걸 일찍이 깨닫게 되고. (참여자 4, 시스템더 여성 바이섹슈얼, 25세)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너가 너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을 때와 드러낸 후에 대해서를 언제가 더 행복하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지금,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행복하다는 게, 뭐, 물질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제 자신 스스로가 어떤 마음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참여자 37, 시스템더 남성 게이, 31세)

가능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소수자의 입장에서 있어 보니까,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상처가 되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면서,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할 때 좀 더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했던 거 같고. (참여자 36, 시스템더 여성 레즈비언, 27세)

성소수자 커뮤니티



88.2%

내가 성소수자인 것은 나에게 중요함

다음으로는 성소수자 정체성이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귀하께서는 삶의 여러 측면 가운데 성소수자인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응답자의 88.2%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성소수자 정체성을 자신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체성별로 나누어보면 성소수자 정체성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게이(92.4%)였고, 논바이너리/젠더퀴어(90.7%), 레즈비언(90.6%), 트랜스남성(90.3%) 순으로 이어졌다.

표 17. 성소수자 정체성의 중요성

단위: %	중요하다*
전체(n)=3,911	88.2
레즈비언(n=641)	90.6
게이(n=1,207)	92.4
바이섹슈얼 여성(n=832)	82.7
바이섹슈얼 남성(n=200)	79.5
퀴어(n=150)	82.0
에이섹슈얼(n=140)	80.7
트랜스여성(n=109)	89.0
트랜스남성(n=62)	90.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90.7

*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6가지 답변 가운데 '그런 편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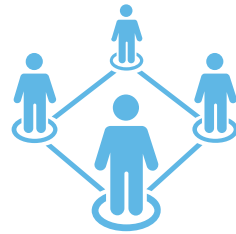
청년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성소수자의 커뮤니티와의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총 7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성소수자 커뮤니티 연결감 척도를 활용하였다. 그 중에서 "나는 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낀다"라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61.4%는 자신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부로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67.7%), 게이(64.5%), 트랜스남성(64.5%) 등이었고, 에이섹슈얼(41.4%), 바이섹슈얼 남성(48.5%) 등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 이상 고른 응답자의 비율은 75.4%로 나타나, 상당수의 응답자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이섹슈얼(85.3%) 응답자에서는 다른 정체성 집단에 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가장 큰 이유로는 '신분 노출 등 아웃팅의 위험'(45.9%)이 꼽혔다. 다음으로는 '지방에 거주하여 접근성이 떨어짐'(29.6%), '지나치게 연애나 성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28.6%),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27.5%), '이미 친한 사람들 위주임'(26.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레즈비언과 게이를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성소수자 중에서도 비주류인 정체성 때문에 배척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이유(회비, 교통비 등)' 때문에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의 비율을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나누어보면 상층 7.1%, 중상층 10.1%, 중중층 11.7%, 중하층 20.3%, 하층 29.5%로 차이가 나타났다.

'지방에 거주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9.6%이다. 거주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서울 거주자의 3.6%,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응답자의 8.7%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반면 비수도권 응답자의 57.6%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1.4%

나는 내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일부라고 느낀다



75.4%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57.6%

지방에 거주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표 18. 성소수자 커뮤니티와의 연결감

단위: %	동의한다*
전체 (n=3,911)	61.4
레즈비언(n=641)	62.1
게이(n=1,207)	64.5
바이섹슈얼 여성(n=832)	59.7
바이섹슈얼 남성(n=200)	48.5
퀴어(n=150)	55.3
에이섹슈얼(n=140)	41.4
트랜스여성(n=109)	58.7
트랜스남성(n=62)	64.5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7.7

*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의 4가지 답변 가운데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를 합한 값임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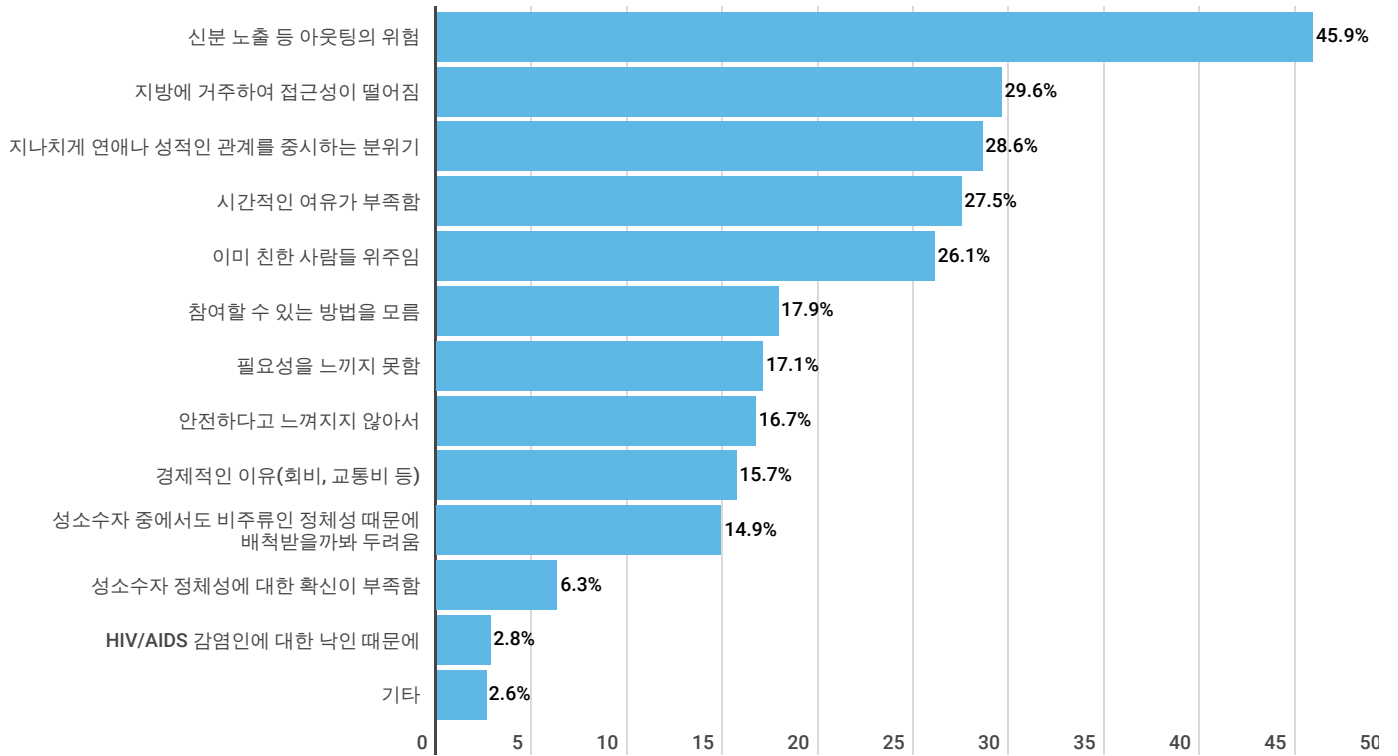


그림 14.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표 19.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복수응답	전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여성	바이섹슈얼 남성	퀴어	에이섹슈얼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논바이너리/젠더퀴어
	n=3,911	n=641	n=1,207	n=832	n=200	n=150	n=140	n=109	n=62	n=569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어렵다	75.4	70.4	70.8	78.5	75.5	84.7	87.9	78.0	80.6	78.4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 중	n=2,924	n=451	n=855	n=653	n=151	n=127	n=123	n=85	n=50	n=446
신분 노출 등 아웃팅의 위험	45.9	51.4	47.1	50.8	66.9	32.3	27.6	49.4	40.0	32.7
지방에 거주하여 접근성이 떨어짐	29.6	31.7	29.4	27.7	27.8	22.8	34.1	18.8	34.0	33.6
지나치게 연애나 성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	28.6	27.3	24.8	26.8	17.2	39.4	44.7	17.6	36.0	37.2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	27.5	27.7	30.1	24.3	25.2	26.8	19.5	25.9	14.0	32.1
이미 친한 사람들 위주임	26.1	25.5	30.8	22.7	25.8	26.0	17.9	20.0	34.0	25.8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름	17.9	20.6	18.2	17.3	13.9	22.0	14.6	17.6	16.0	16.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7.1	16.0	16.1	17.3	16.6	22.0	35.0	20.0	8.0	13.9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	16.7	18.2	16.5	17.8	23.8	10.2	13.8	18.8	14.0	13.9
경제적인 이유(회비, 교통비 등)	15.7	18.0	15.6	11.2	6.6	17.3	10.6	23.5	10.0	23.3
성소수자 중에서도 비주류인 정체성 때문에 배척받을까봐 두려움	14.9	2.7	3.9	14.4	7.9	18.9	35.8	29.4	36.0	39.5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함	6.3	2.9	2.5	8.6	9.3	17.3	16.3	4.7	0.0	7.6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 때문에	2.8	0.2	5.7	0.5	10.6	1.6	0.0	7.1	2.0	1.1
기타	2.6	2.7	3.0	2.1	0.0	1.6	0.0	8.2	2.0	3.1

성소수자 커뮤니티, 보이지 않는 장벽

면접참여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 특정 정체성이나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배제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라며 경험을 털어놓았다.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의 바이섹슈얼 및 에이섹슈얼에 대한 배제, 지나치게 성적인 분위기,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적개심, 온라인 커뮤니티에 만연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 HIV 감염인에 대한 혐오 등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도 다양한 배제가 존재하며, 이는 더욱 취약한 이들의 커뮤니티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 및 의료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놓고 '바이(섹슈얼)는 싫다'라고 시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이 사람은 남자한테도 끌릴 수 있다. 남자한테 갈 수도 있다.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남자랑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싫다는 얘기를 면전에서 들은 적이 좀 있어서. (참여자 4,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5세)

게이 어플? 어플도 (커뮤니티에) 포함이 될까요. 그런 것에 항상 써놓은 게 '여성스러운 사람, 끼부리는 사람 싫다'고 하는데 저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저는 대놓고 페미니스트라고 적어놓거든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얘기가 통해야 좋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오는 메시지가 '게이면서 페미니 남자한테 사랑받기 어려운데 괜찮으시겠냐' 이런 얘기들을 공격적으로 한다면 '82년생 김지영 보고 우셨냐' 해서 '울었다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시지가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오고요. (참여자 2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이반시티나 이런 데는 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오픈 채팅 거기서 그냥 노는 것 같아요 (...) 오픈 채팅은 취미를 공유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어플은 자기 스타일이 안 되면 한 번 보고 다 연락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연락이 와도 제가 에너지 낭비하는 것 같아서 친구 목적으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9세)

조금 가벼운 관계 이상으로 조금 진지한 관계 아니면 진짜 친구 같은 관계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저는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에 여러 가지 어떤 문화들이 있다 치면은 당연히 가벼운 문화도 있을 테고 진중한 문화도 있어야지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건강한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여자 23, 시스젠더 남성 게이, 23세)

HIV가 있기 때문에 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 거고 어플을 활용하자니 역시나 겉으로 보이는 외형에 치중되는 경향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물론 헤테로들도 그렇지 않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특히 게이는 더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속상하죠. '사람들이 참 외모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다음으로는 “귀하는 아래와 같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에 방문하거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험한 커뮤니티 참여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59.0%)가 꼽혔으며,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54.0%),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44.5%), ‘오프라인 상업시설(바, 클럽, 주점 등)’(40.1%) 순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9~24세에서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6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대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46.3%), ‘퀴어문화축제(퀴어퍼레이드)’(38.6%), ‘오프라인 상업시설(바, 클럽, 주점 등)’(29.5%), ‘오프라인 친목모임(동호회, 성소수자 동아리 등)’(20.8%)의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30~34세의

경우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 참여 경험이 66.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일회성 친목모임(술번개, 조인트 등)’(41.5%)과 ‘오프라인 친목모임(동호회, 성소수자 동아리 등)’(41.4%), ‘영화제 등 성소수자 관련 문화행사’(32.5%),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개최하는 공개 행사(교육, 토론회 등)’(21.3%) 등의 참여 경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19~24세의 경우 SNS를 통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지만 퀴어문화축제나 오프라인 상업시설 등 오프라인 기반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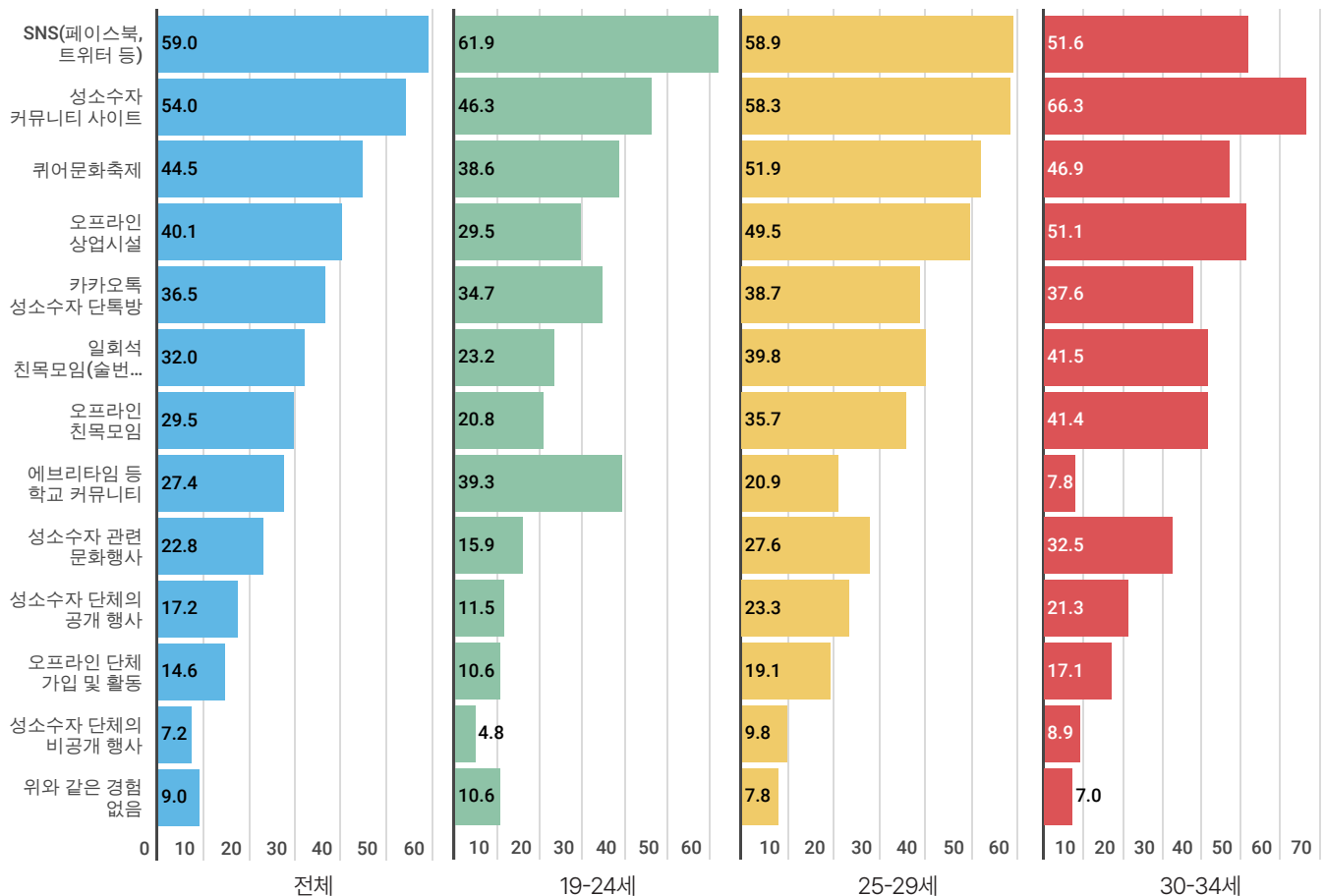


그림 15. 성소수자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이용경험

다음으로는 “귀하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나 기대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8.0%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간의 친교’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이유로 꼽았다. 그밖에도 ‘내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57.3%),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38.7%),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35.6%), ‘연인을 찾고 사귄 수 있는 공간’(33.4%) 등이 높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에이섹슈얼 응답자들은 다른 설문참여자들에 비해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56.6%)을 기대하는 비율이 높았고,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 간의 친교’(46.5%)를 기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시스젠더 응답자들에 비해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이 응답자의 18.4%와 바이섹슈얼 남성 응답자의 20.7%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대로 ‘성관계를 맺을 상대를 찾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표 20.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대

단위: %, 복수응답	전체 n=3,837	레즈비언 n=633	게이 n=1,188	바이섹슈얼 여성 n=815	바이섹슈얼 남성 n=193	퀴어 n=149	에이섹슈얼 n=129	트랜스 여성 n=105	트랜스 남성 n=62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563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간의 친교	68.0	73.3	72.1	67.9	64.2	63.8	46.5	50.5	59.7	65.4
내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	57.3	57.0	52.4	60.2	49.2	61.1	57.4	61.0	58.1	64.7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38.7	37.6	42.3	37.1	43.0	44.3	31.0	30.5	30.6	35.9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	35.6	27.8	28.7	34.8	36.3	41.6	56.6	52.4	51.6	48.1
연인을 찾고 사귄 수 있는 공간	33.4	48.0	40.0	35.8	21.8	25.5	5.4	13.3	24.2	16.7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려고	17.8	13.3	12.5	18.7	10.4	20.1	27.9	23.8	16.1	31.6
성관계를 맺을 상대를 찾기 위해서	9.1	4.1	18.4	3.4	20.7	6.7	0.0	7.6	3.2	3.2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7.5	8.1	6.3	6.4	7.3	6.7	11.6	10.5	12.9	9.2
삶의 롤모델을 찾기 위해서	1.9	1.1	1.8	1.1	2.6	1.3	3.9	3.8	1.6	3.4
기타	0.9	0.5	0.4	1.2	2.6	0.7	1.6	1.9	1.6	0.7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전한 현대의 공간

앞서 가족과의 관계와 커밍아웃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부정적인 경험을 털어놓았던 면접참여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만난 기억을 떠올려달라는 질문에 밝게 화답했다. 자신의 존재를 자유롭게 드러내도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처음으로 마주했을 때의 행복한 기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다는 듯 말이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일종의 소속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면접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성소수자와 교류하며 자신만의 안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프로그램이나 대외활동,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로 접근할 수 있는 긍정적인 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스스로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껴요. 그게 저 자신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줬던 것 같았어요.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4세)

그냥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욕망이 컸고, 그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 대전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대전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가서 이제 제 첫 커뮤니티 활동이 서울이었고. (참여자 12,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세)

(성소수자 단체 활동에서 만난) 평범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거기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또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참여자 32, 트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31세)

친구사이 오픈데이블을 한 번 가봤거든요. 딱 한 번 가본 게 공식행사로는 처음인 거 같아요. 어플 돌리는데 위에 광고가 뜨더라구요. '재밌어 보이는데?' 하고 참여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한 열 명 정도가 얘기를 하는데,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았습니다.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정체화를 한 이후에 카톡 오픈 채팅방에 논바이너리 채팅방이 있어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다보니 저랑은 다른 케이스의 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좀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집단의 소속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논바이너리 뉴트로이스 에이섹슈얼, 33세)

퀴어퍼레이드 갔을 때 안에서 소속감을 느꼈을 때 되게 '이게 좋다. 중요하다. 내가 여기 켜 있을 수 있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7,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26세)

올해 취업하면서 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심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이쪽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받기도 해서 친밀감이 좀 더 생겼던 거 같아요. 소속감이랄까. 제가 HIV 감염자거든요. 채용과정에서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도움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그 문제로 협박을 당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아웃팅 관련해서는 KNP+를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법적인 조치를 이렇게 취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제가 좀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소수자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권이라든가 장애인부터 난민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래도 관찮은 사람이 되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끔은 아찔해요. 제가 똑같이 그냥 살았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내고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스스로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참여자 1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9세)

저희한테 퀴어문화축제는 명절 같은 날이잖아요.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다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정말 보고 싶은데 뭔가 마땅히 구실이 없어서 못 만났던 친구들 다 만나는. 그리고 그날에서만 느낄 수 있는 퀴어로서의 소속감, 연대감. 절대 내 세상엔 나 혼자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어떤 안정감. 그런 것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0점(0%)부터 10점(100%)까지 가운데 고르게 하였다. 응답자의 평균은 4.6으로 나타났다. 자신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게 응답한 정체성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5.4)였으며, 트랜스남성(5.1), 트랜스여성(4.9) 순으로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에이섹슈얼(3.7), 바이섹슈얼 남성(3.8), 바이섹슈얼 여성(4.1)은 인간관계 중 성소수자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10명 중 **4.6명**
인간관계에서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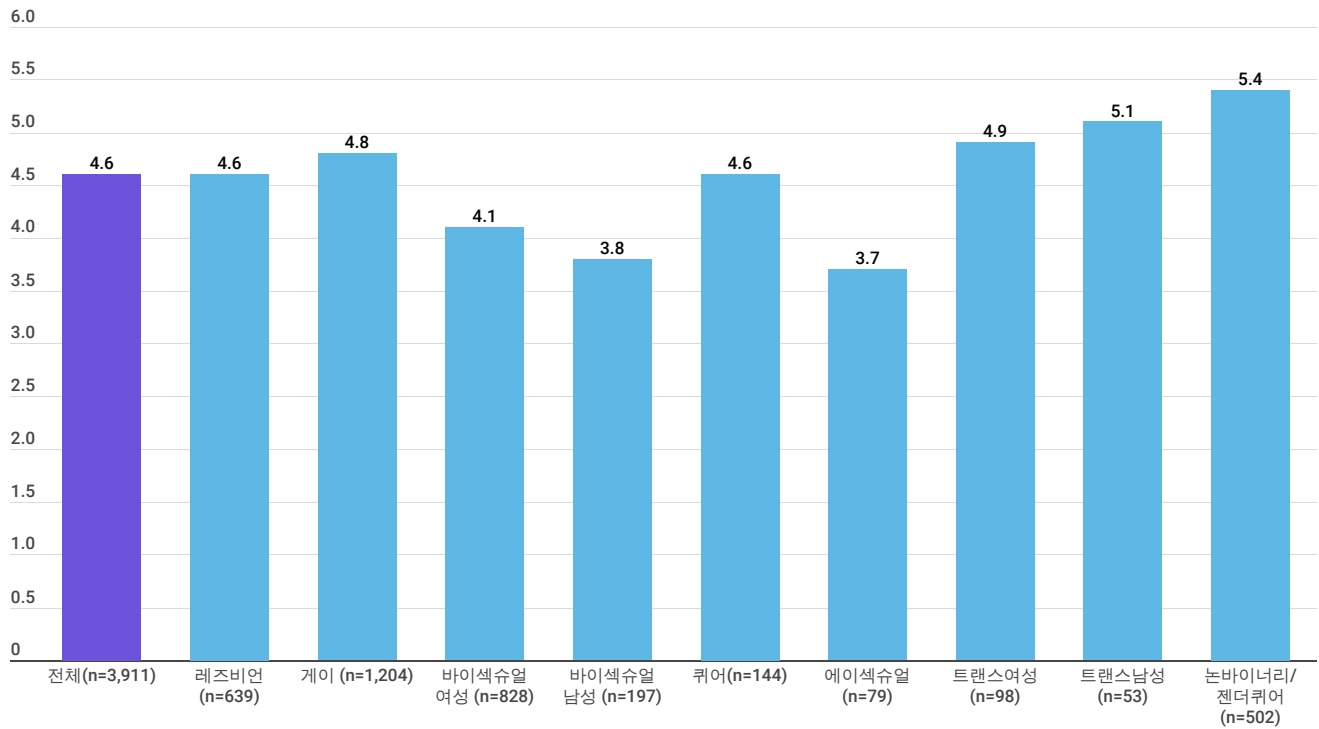


그림 16.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중

소셜미디어 이용 경험

다음으로는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습득했는지 물어보았다. “귀하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경로로는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26.0%)가 꼽혔다. 다음으로는 ‘트위터’(25.7%), ‘포털사이트 및 위키 검색(지식인, 위키피디아 등)’(13.5%), ‘만남 어플리케이션’(9.8%), ‘친구 및 지인’(8.1%)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9~24세에서는 트위터(33.4%)가 정체성 탐색 경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25~29세와 30~34세에서는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각각 31.3%, 44.7%)가 주된 정체성 탐색 경로로 나타났다.

“귀하는 소셜미디어를 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에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용’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1,025명(26.2%), ‘정체성을 감추고 사용’이 1,165명(29.8%),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도의 계정 사용’이 1,355명(34.7%), ‘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366명(9.4%)이었다. 이를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의 만 19세~만 34세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용하거나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정체성을 감추는 비중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366명을 제외한 3,545명의 응답자에게 성소수자와 교류하기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를 3개 이하로 선택하도록 하였을 때, 응답의 분포는 트위터가 6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이 33.1%, 카카오톡(오픈채팅 등 단톡방)이 30.9%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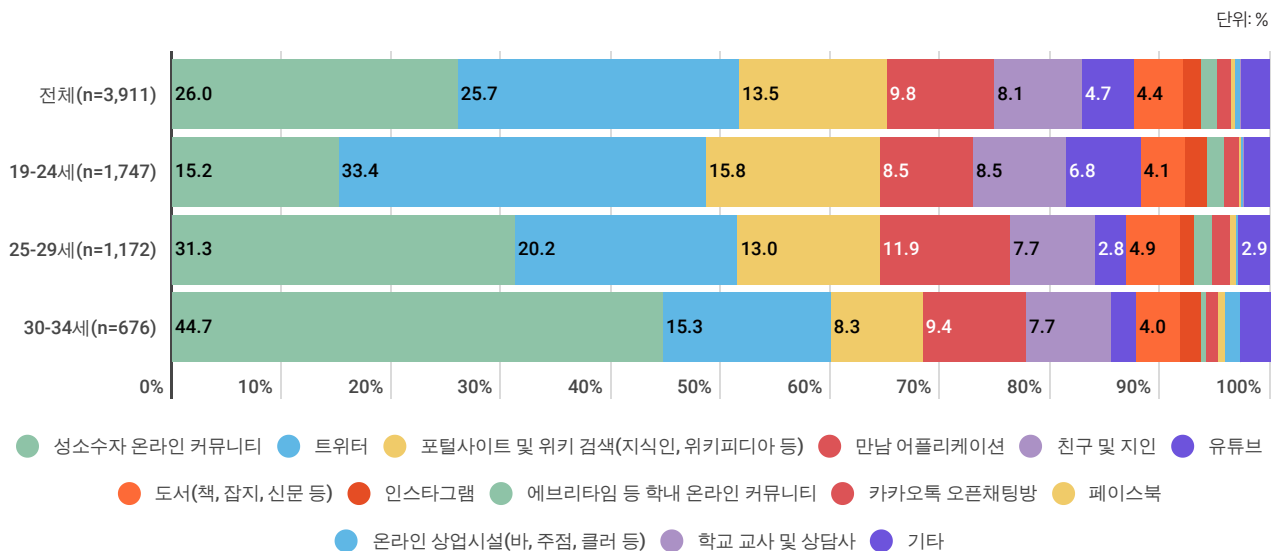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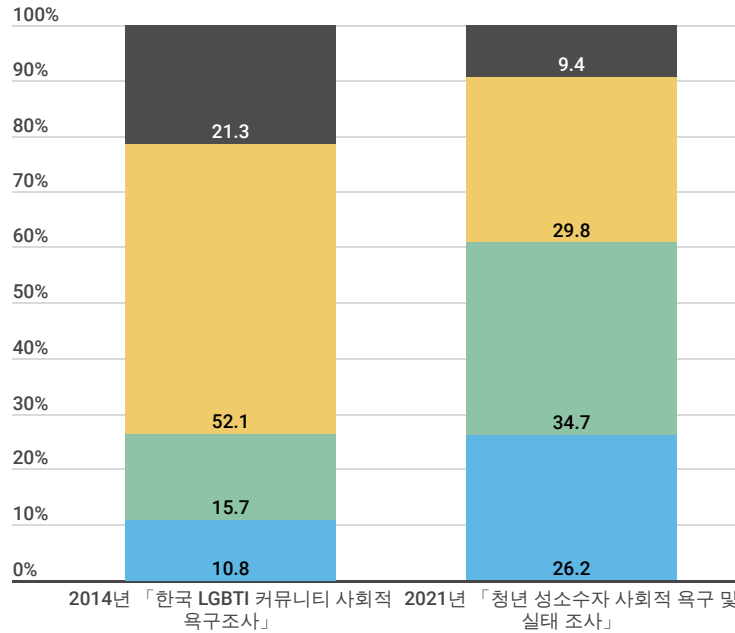


그림 17. 정체성 탐색 경로



-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용
-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도 계정 사용
- 정체성 감추고 사용
- 전혀 사용 안 함

그림 18. 소셜미디어에서의 정체성 공개 여부

*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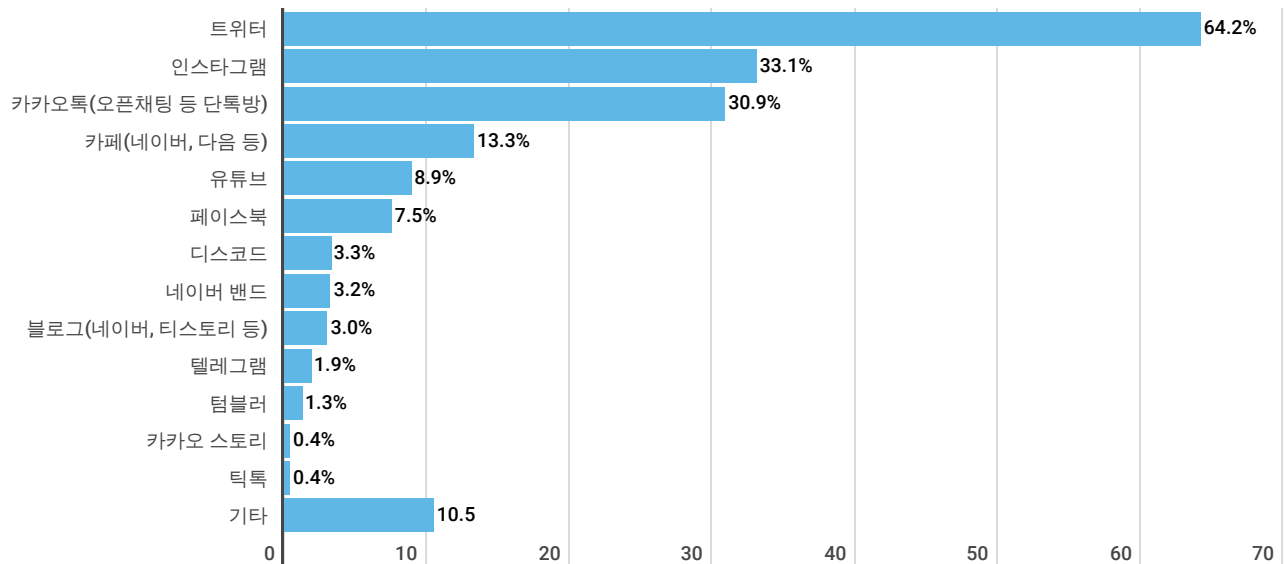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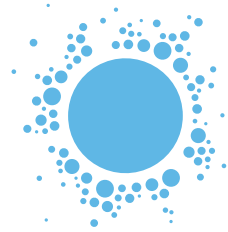


그림 19. 성소수자와 교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으로는 '성소수자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42.8%, '성소수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생산과 제공' 40.9%, '정체성, 연애 등과 관련된 상담' 36.9%, '인권침해나 차별 구제' 34.2%, '비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인프라 마련' 3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랜스젠더의 경우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과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2.8%

성소수자간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주기를 바람

표 21.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는 점

단위(%), 복수응답	전체 n=3,911	레즈비언 n=641	게이 n=1,207	바이섹슈얼 여성 n=832	바이섹슈얼 남성 n=200	퀴어 n=150	에이섹슈얼 n=140	트랜스 여성 n=109	트랜스 남성 n=62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569
성소수자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42.8	48.0	44.3	42.3	36.5	43.3	21.4	34.9	35.5	43.9
성소수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생산과 제공	40.9	47.7	41.0	40.1	27.5	40.0	26.4	32.1	25.8	46.0
정체성, 연애 등과 관련된 상담	36.9	36.3	38.4	38.5	40.0	35.3	29.3	33.9	40.3	33.4
인권침해나 차별 구제	34.2	29.5	34.1	33.1	22.5	42.7	30.0	43.1	32.3	42.5
비수도권 거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인프라 마련	31.1	28.5	27.3	30.5	27.5	34.0	38.6	33.0	27.4	41.7
법률적 지원이나 상담	27.7	26.4	28.7	22.6	21.5	26.0	20.7	50.5	43.5	32.9
의료적 지원이나 상담	21.3	12.9	22.4	11.8	24.0	22.0	11.4	65.1	50.0	32.0
세대별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17.0	18.1	15.2	16.7	14.0	19.3	10.0	12.8	17.7	22.7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 및 기금 지원	13.6	11.1	16.2	11.2	10.0	13.3	8.6	14.7	9.7	17.0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구축 제공	13.1	9.7	13.4	10.6	12.0	19.3	7.9	11.0	16.1	19.9
가출이나 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 운영	11.3	10.1	7.1	10.7	7.5	17.3	12.9	18.3	17.7	19.7
잘 모르겠음	13.1	10.9	14.4	12.3	20.5	17.3	25.0	11.9	6.5	8.4
기타	0.8	0.6	1.2	0.7	0.5	1.3	0.0	0.0	1.6	0.9

성소수자라서 좋은 점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응답자들에게 성소수자여서 좋은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서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전체 응답자 3,911명 가운데 총 2,873명이 서술형 문항에 답변을 남겨주었다. 이를 연구자가 직접 읽고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총 2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의견으로는 성소수자여서 좋은 점이 '없다'는 응답이었다(27.6%, 794건). 이 주제에 속한 응답 가운데에는 "좋은 점이 아니라 힘든 점이 많다"며 성소수자여서 좋은 점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한 불쾌감을 표출한 응답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었고, 다양한 소수자와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소수자' 주제에 속하는 응답이 10.9%(314건), 편견없이 사고하며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유연해졌다는 '다양성'에 속하는 의견이 9.7%(278건), 남자다움-여자다움 같은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고정관념 해소'에 속하는 의견이 1.4%(40건)을 차지하였다.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자아성찰'에 속하는 의견은 6.5%(187건)을 차지하였다. 성소수자라는 점이 '특별함'(3.1%, 89건), 섬세하고 풍부한 '독특한 감각', 퀴어만의 독특한 창의성을 지녀서(2.9%, 80건), '그냥' 나라서 좋다(2.8%, 79), 성소수자로 사는 게 '재미'있어서(0.7%, 19건), 성소수자인 것에 '자긍심'을 느껴서(0.3%,

9건) 등의 의견 또한 존재했다.

비성소수자에 비해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이 가능해서 좋다는 의견은 5.7%(163건), 현재의 애인 또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좋다는 '인연'은 2.9%(83건), 다른 성소수자와 교류하며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2.8%(79건),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2.7%(78건)을 차지하였다.

연애와 결혼 등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에 오롯이 집중하는 '혼자만의 삶을 살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1.3%(37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롭다는 의견은 0.4%(10건), '임신'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의견이 1.2%(34건)을 차지하였다. 한편 손쉽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는 '성관계'가 1.1%(31건), '이성'과(성적인) 문제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0.6%(18건)을 차지하였다.

같은 성별을 만나는 게 더 편하고 잘 통한다고 느껴진다는 '동성'에 속하는 의견이 7.7%(222건), 이성 관계에 비해 동성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껴진다는 의견이 1.53%(44건)을 차지했다. 또, 사랑의 가능성이 다양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는 '다양한 사랑'에 속하는 의견이 3.3%(95건)을 차지했다.

한편 '남성'과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의견이 1.7%(49건), '여성'과 연애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의견도 0.1%(4건)을 차지하였다.



그림 20. 성소수자라서 좋은 점

05 혐오와 차별 경험

차별 경험과 대응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13명(33.6%)이 최근 1년간 각종 상황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트랜스남성 응답자 10명 중 7.1명, 트랜스여성 응답자 10명 중 6.9명은 최근 1년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65.3%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경험하는 차별이 심각다는 점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33.6%

최근 1년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함

69.6%

최근 1년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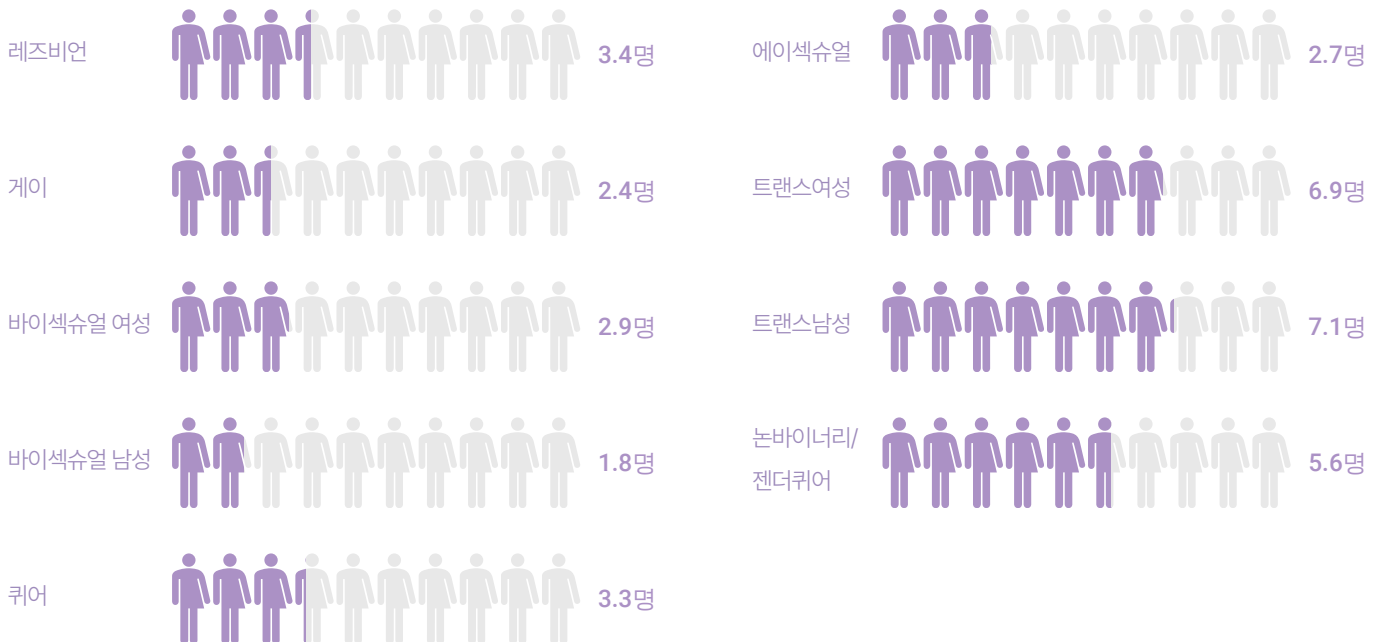


그림 21. 지난 1년간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

지난 1년간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1,313명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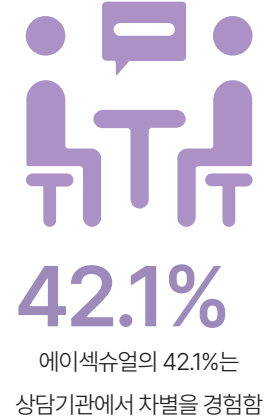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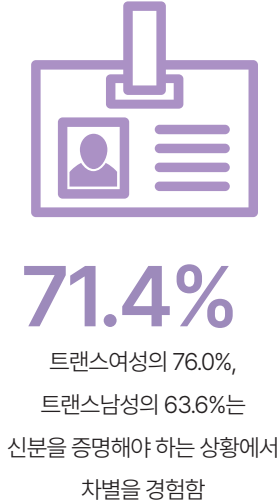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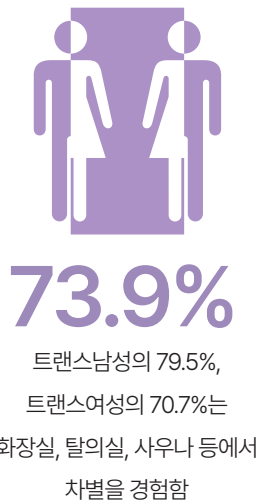


표 22. 정체성별 차별 경험의 장소(상황)

단위: %	전체 n=3,911	레즈비언 n=641	게이 n=1,207	바이섹슈얼 여성 n=832	바이섹슈얼 남성 n=200	퀴어 n=150	에이섹슈얼 n=140	트랜스 여성 n=109	트랜스 남성 n=62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569
차별을 경험함	33.6	34.0	24.3	29.0	18.0	32.7	27.1	68.8	71.0	56.1
차별을 경험한 경우, 차별이 발생한 장소(상황) *중복응답										
대학(원)에서	37.8	39.9	35.8	41.9	36.1	44.9	36.8	30.7	31.8	36.7
직장에서	36.1	33.5	41.0	28.6	36.1	36.7	26.3	40.0	36.4	39.2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35.5	27.1	23.5	16.6	30.6	20.4	5.3	70.7	79.5	58.6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	28.9	25.7	30.7	20.7	25.0	24.5	34.2	42.7	36.4	32.0
카페, 식당, 바, 클럽 등에서	28.1	27.1	29.0	25.3	27.8	22.4	15.8	32.0	22.7	32.3
의료기관 및 복지센터 등에서	26.8	22.0	22.9	20.7	13.9	22.4	21.1	49.3	40.9	33.9
일자리를 구할 때	26.4	21.1	18.8	18.7	19.4	24.5	18.4	57.3	47.7	34.8
상담기관에서	23.1	20.6	16.0	29.0	25.0	24.5	42.1	22.7	11.4	25.7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21.3	7.8	4.4	5.8	16.7	8.2	5.3	76.0	63.6	43.6
상점에서	19.7	14.7	19.5	17.8	22.2	14.3	7.9	28.0	18.2	25.1
자취방, 주택 등 거주지를 구할 때	13.6	15.6	13.0	10.4	16.7	14.3	18.4	16.0	9.1	14.4

지난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차별 경험을 묻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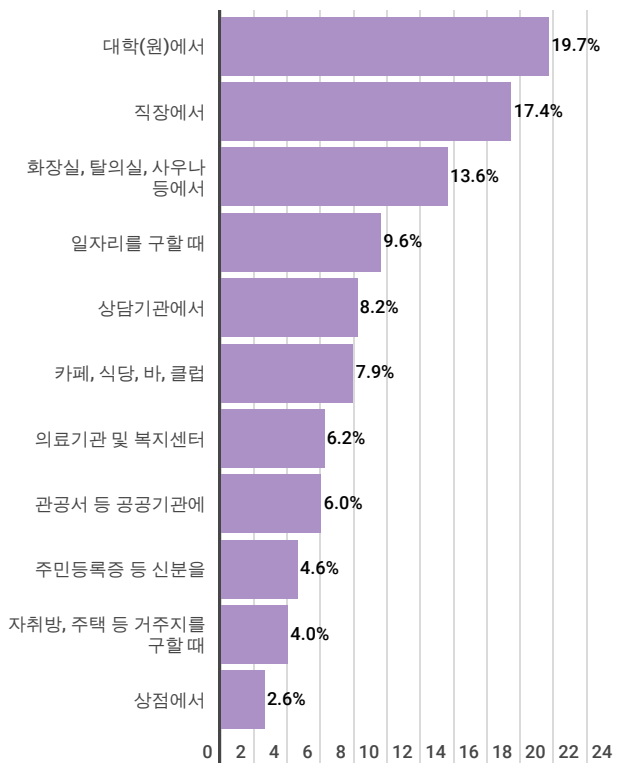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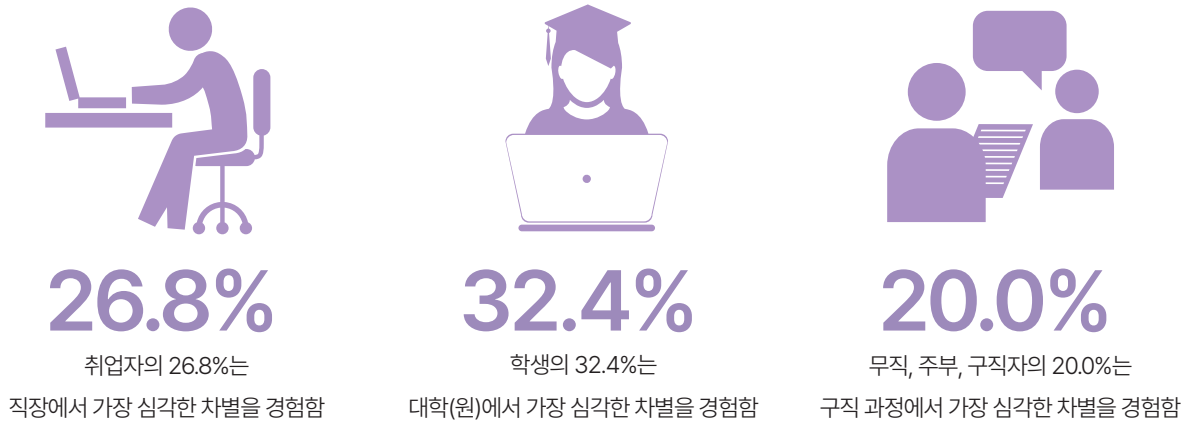


그림 22. 가장 심각한 차별 경험의 장소(상황)

최근 1년간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1,313명에게 구체적으로 차별을 경험한 장소(상황)를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차별 경험의 장소로는 '대학(원)에서'(37.8%)가 꼽혔으며, '직장에서'(36.1%),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35.5%)순으로 이어졌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화장실, 탈의실, 사우나 등에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3.9%나 되었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증명해야 하는 상황'도 71.4%를 차지했다. 에이섹슈얼의 경우 차별 경험의 장소로 '상당기관에서'라는 응답이 42.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여러 차별 가운데 가장 심각했던 사건은 무엇이었냐고 물었다. 그 결과 취업 상태에 따른 심각한 차별 경험의 장소(상황)의 분포가 두드러졌다. 최근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취업자들은 '직장에서'가 26.8%, 학생은 '대학(원)에서'가 32.4%, 무직, 주부, 구직 중인 자는 '일자리를 구할 때'가 20.0%로 나타나 취업상태와 차별 경험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12개월 동안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1,313명에게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했을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85.6%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신고 비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경찰 및 국가인권위 등 시정기관에 대한 청년 성소수자의 신뢰도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경험에 대해 직접 또는 누군가가 대신 신고한 응답자 52명이 차별을 신고한 기관으로는 '경찰'(30.8%), '학교 내 관련 조직(인권센터, 학생회 등)'(23.1%), '성소수자 단체'(1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 1,125명은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신고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53.0%),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53.0%),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38.6%),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28.6%) 등을 꼽았다.

표 23. 신고 기관

전체(n)=1,313	% (복수응답)
경찰	30.8
학교 내 관련 조직(인권센터, 학생회 등)	23.1
성소수자 단체	15.4
고용주	11.5
사건이 벌어진 장소	11.5
기타	11.5
국가인권위원회	9.6
변호사 등 법률 서비스	9.6
노동조합	5.8
비정부기구 및 시민단체	5.8
모르겠음	3.8
지방자치단체	1.9



신고한 비율

4.4% 4.0%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2021년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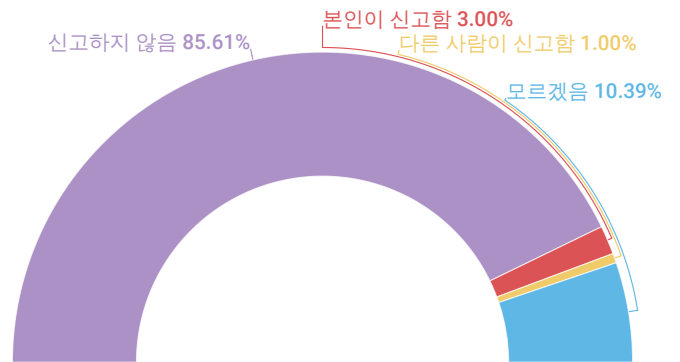


그림 23. 차별 경험에 대한 대응 여부

표 24. 신고하지 않은 이유

전체(n)=1,313	% (복수응답)
신고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	53.0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 이니까)	53.0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38.6
사람들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	28.6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18.8
당국 등을 믿을 수 없어서	16.5
어떻게 혹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13.6
가해자의 위협이 두려워서	6.1
본인 스스로 혹은 가까운 가족 또는 친구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4.0
기타	4.2

군대와 차별 경험

군대에서의 차별 경험 및 전반적인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군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응답자 가운데 지정성별 여성 등 군복무에 해당사항이 없는 응답자가 2,253명(57.6%)이었다.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1, 2, 3급) 응답자는 912명(23.3%), 4급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응답자는 178명(4.6%), 병역을 면제 받은(5,6급) 응답자는 137명(3.5%),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응답자는 79명(2%), 직업군인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친 응답자는 52명(1.3%), 아직 병역판정검사나 군복무 시작 전인 응답자는 275명(7%)이었다.

병역을 면제받은 응답자들의 군면제 사유는 '그 외의 신체적 사유'(51.1%), '정신질환'(24.8%), '성주체성 장애'(19.7%), '교환 결손'(7.3%), '성확정 수술'(5.1%) 등의 분포를 보였다.

표 25. 군복무 유형

* '해당 없음'에 응답한 2,253명 제외

전체(n)=1,658	%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복무 마친(1, 2, 3급)	55.0
아직 병역판정검사나 군복무 시작 전임	16.6
4급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 마친	10.7
병역 면제 받음(5급, 6급)	8.3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거나 복무 마친	4.8
직업군인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복무 마친	3.1
기타	1.5

표 26. 병역면제 사유

전체(n)=137	%
그외의 신체적 사유	51.1
정신질환	24.8
성주체성 장애	19.7
교환 결손	7.3
성확정/성전환 수술	5.1
기타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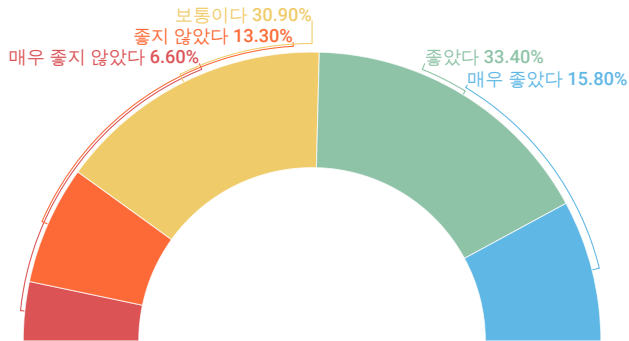


그림 24. 전반적인 군대생활 평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마침’ 및 ‘직업군인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마침’에 해당하는 964명에게 “귀하의 군대생활은 전반적으로 어떠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매우 좋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2명(15.8%), ‘좋았다’는 322명(33.4%), ‘보통’이었다는 298명(30.9%), ‘좋지 않았다’는 128명(13.3%), ‘매우 좋지 않았다’는 64명(6.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군복무 경험에 대해 ‘강압 및 규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30.4%), ‘나를 숨겨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29.4%),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26.2%),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과 성적인 경험을 했다.’(19.6%),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확신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14.4%) 등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인식되는 성별표현에 따라서는 ‘대체로 여성으로 인식’되거나, ‘종종 여성으로 인식’되거나, ‘남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고 여성으로 인식될 때도 있는 경우’에 ‘강압 및 규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각각 57.1%, 40%, 22.2%)거나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각각 57.1%, 44%, 33.3%)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아, 여성스러운 성별표현을 하는 이들이 비교적 군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복무 중 군대 내에서의 커밍아웃 경험에 대해서는 직접 정체성을 알렸다고 답한 응답자가 179명(18.6%), 다른 사람에게 의해 알려졌다고 답한 응답자가 84명(8.7%),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7명(75.4%)이었다.

표 27. 전반적인 군복무 경험

전체(n)=964	복수응답	%
무난하게 군생활을 마쳤다		70.3
강압 및 규율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30.4
나를 숨겨야 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29.4
마초적이고 성차별적인 군대 문화 때문에 힘들었다		26.2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과 성적인 경험을 했다		19.6
나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확신하거나 인정하게 되었다		14.4
군대생활이 적성에 맞았다		12.4
부대 내에서 다른 군인과 연애 관계를 가졌다		6.5
기타		1.1

표 28. 군복무의 어려움

전체(n)=964	복수응답	%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		56.7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53.6
공동 샤워시설 이용하기		13.4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9.0
공동 취침시설에서 생활하기		7.7
위와 같은 경험 없음		27.1
기타		0.8

표 29. 군복무 중 커밍아웃 여부

전체(n)=964, 복수응답	%
스스로 커밍아웃 함	18.6
타인에 의해 밝혀짐	8.7
커밍아웃 하지 않음	75.4



56.7%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



17.9%

성희롱 또는 성폭력 경험
* 타인에 의해 정체성이 폭로된 경우



13.1%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 차별 경험
* 타인에 의해 정체성이 폭로된 경우

군복무 중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경험한 어려움은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56.7%),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53.6%)이 주로 꼽혔고,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61명(27.1%)이었다.

한편 군복무 중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경험한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는 '관심사병으로 분류됨'(7.7%), '성희롱 또는 성폭력'(5.2%) 등이 있었으며, 차별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829명(86.0%)이었다. 주목할 점은 군대 내 커밍아웃 여부에 따라 군복무 중 부정적인 경험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부정적인 경험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92.6%에 달했지만, 스스로 커밍아웃한 경우는 72.1%, 타인에 의해 아웃팅을 당한 경우는 45.2%까지 그 비율이 떨어졌다. 타인에 의해 아웃팅을 당한 경우에는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관심사병으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거나(17.9%),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 차별을 경험(13.1%)하는 등 폭력과 차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군복무 중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은 부정적인 경험

단위(%) 중복응답	전체 n=964	스스로 커밍아웃 함 n=179	타인에 의해 밝혀짐 n=84	커밍아웃 하지 않음 n=727
관심사병으로 분류됨	7.7	19.6	31.0	3.2
성희롱 또는 성폭력	5.2	8.9	17.9	3.4
업무 수행 또는 배정 등에서 차별	1.9	3.9	13.1	0.4
비전캠프 등 부적응 기관으로 이송	1.8	5.0	9.5	0.6
원하지 않는 강제 검 진 또는 입원을 요구 받음	0.4	2.2	2.4	0.0
휴가가 찢림	0.6	1.7	3.6	0.1
강제 전역 요구	0.4	0.6	2.4	0.1
위와 같은 경험 없음	86.0	72.1	45.2	92.6
기타	2.2	3.9	13.1	1.0

군대에서 게이로 살아남기

군생활을 마친 면접참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대 내에서 정체성을 숨기는 지난한 노력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7년 'A 대위' 사건 이후 군에 입대한 이들의 경우 군대 내에서 정체성이 탄로나면 막대한 차별과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동료를 찾기 위해 전략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커밍아웃에 성공하기도 했다.

일단 군대에서는 무조건 숨겨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입대하기 전에도 이제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거를 봐왔기 때문에 '군대는 절대 안 된다' 알고 있었어요.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훈련소에서 상담을 했을 때 상담한 내용이 전부 다 자대로 넘어갔을 때 인수인계가 된 거예요. 그걸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행정보급관과의 제 첫 면담 때 책상에 그게 올려져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대화했던 거의 모든 내용이. 민간 상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면 어차피 다 알려줄 것이다.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비밀도 없고 상담사 윤리 규칙인가, 그런 서약서 같은 거. 상담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그런 비밀 유지 서약 같은 것도 없구나, 여기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저는 사실 그렇게 으뜸병사 되고 나서 이런 또래상담 역할을 하면서 저희 대대에다가 다 커밍아웃을 해버렸거든요. (...) 뭐랄까요. 다른 소대에서는 저를 되게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중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동기들도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 (참여자 22,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세)

제가 커밍아웃을 한 건 아니고 이제 은근슬쩍 물어봤죠. 그랬더니 애들이 저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처럼 여자를 밝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성적 대상화하는 거랑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만약에 들리고 싶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해라." 나는 군대에서도.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게이 얘기 나오면 이제 같이 욕하고 막 그랬죠. 사실 그러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적으로.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그 (게이) 선임이 맨날 일을 막도말아서 하니깐 당직 사관한테 얘기해가지고 허락을 얻어서 저녁 점호 이후에 혼자 샤워하고,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그런 잡무 아니면 사역 이런 거를 어쨌든 많이 받아가지고 마치 '내가 바빠서 샤워를 못했으니까 샤워 좀 시켜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선임이 상황을 일부러 만들었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사서 하나' 약간 그런 생각은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고 나면 참 딱한 일이었네. (참여자 22,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세)



'다음'과 '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가 청년 성소수자의 군대 경험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2022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열린 기념집회에 다음이 함께 참여하였다.

06 구직과 직장 경험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

노동 및 경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최근 5년간 구직활동(알바 포함)을 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최근 5년간 구직활동(알바 포함)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84.8%였다.

최근 5년간 구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318명을 대상으로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26.7%는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트랜스여성(62.9%), 트랜스남성(60.7%)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 구직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논바이너리/젠더퀴어(42.5%)에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 분포를 보였다.



26.7%

성소수자 정체성이 구직에 영향을 미침

표 31. 최근 5년간 구직 경험

단위: %	있다
전체(n=3,911)	84.8
레즈비언(n=641)	87.7
게이(n=1,207)	84.6
바이섹슈얼 여성(n=832)	86.4
바이섹슈얼 남성(n=200)	79.0
퀴어(n=150)	80.0
에이섹슈얼(n=140)	72.9
트랜스여성(n=109)	89.0
트랜스남성(n=62)	90.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84.7

표 32.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미치는 영향

단위: %	영향을 미쳤다*
전체(n=3,318)	26.7
레즈비언(n=562)	21.7
게이(n=1,021)	25.9
바이섹슈얼 여성(n=719)	16.8
바이섹슈얼 남성(n=158)	20.3
퀴어(n=120)	26.7
에이섹슈얼(n=102)	14.7
트랜스여성(n=97)	62.9
트랜스남성(n=56)	60.7
논바이너리/젠더퀴어(n=482)	42.5

* 매우 영향을 미쳤다,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의 응답 가운데 '매우 영향을 미쳤다'와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다'를 합한 값임.

구직 시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구직 시 선호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레즈비언(61.7%)과 바이섹슈얼 여성(55.6%), 에이섹슈얼(57.4%)에서는 '여성이 많은 직장(일)'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바이섹슈얼 남성(40.6%)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40.8%)에서는 '종교적 색채가 없는 직장'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트랜스여성의 54.7%는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장(일)'을

선호했고, 트랜스여성의 42.7%, 트랜스남성의 41.5%는 '성별에 따른 유니폼이 없는 직장(일)'을 선호했다. 그 밖에도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일)', '고향 친구, 동창 등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직장(일)',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 등에서 트랜스젠더의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3,318명에게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는지 물어본 결과, 21.8%가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구직 시 선호사항

전체 (n)=1,699 단위: %, 중복응답	선호한다
여성이 많은 직장	38.9
다양성이 존중되는 직장	33.5
종교적 색채가 없는 직장	32.5
복장/두발 자율성이 보장되는 직장	31.4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장	25.3
객관적 자격(시험이나 자격증)을 중시하는 직업	22.9
성별에 따른 유니폼이 없는 직장	20.8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인이 있는 직장	17.3
비슷한 정체성의 동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	17.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된 직장	15.8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업	14.5
인권단체, 시민단체	10.4
성소수자라는 점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직업	8.6
고향 친구, 동창 등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직장	7.8
외국계 회사	7.4
자영업	4.2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	4.1
남성이 많은 직장	2.1
기타	1.4

구직 과정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꼽은 구체적인 차별 사유로는 '내 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았다'가 7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에 국한되지 않고 시스젠더 응답자들에게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청년 성소수자들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성별표현에 있어서 차별을 겪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가 응답한 차별 경험으로는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서류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트랜스남성의 8.8%, 트랜스여성의 17.9%는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응답해 많은 트랜스젠더가 구직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8%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함



트랜스여성의

17.9%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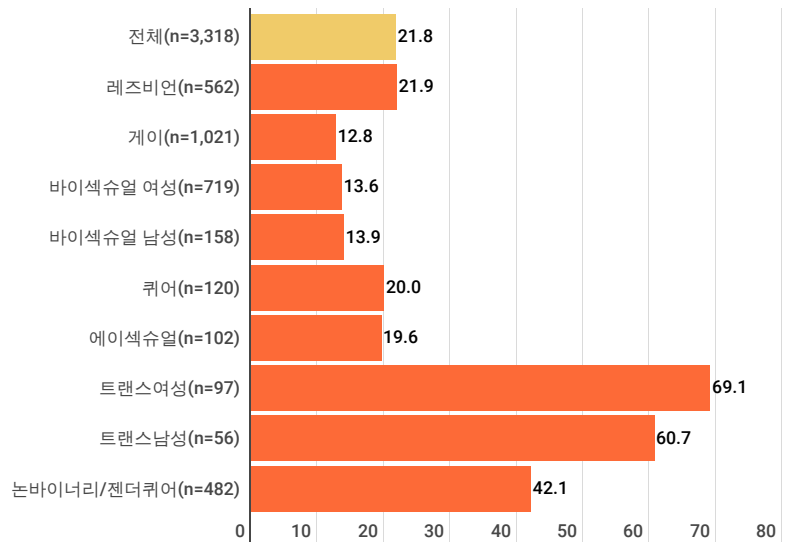


그림 25. 정체성별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여부

표 34. 정체성별 구직 과정에서의 차별 내용

단위: %, 중복응답	전체 n=722	레즈비언 n=562	게이 n=1,021	바이섹슈얼 여성 n=719	바이섹슈얼 남성 n=158	퀴어 n=120	에이섹슈얼 n=102	트랜스 여성 n=97	트랜스 남성 n=56	논바이너리/젠더퀴어 n=482
내 외모, 복장, 말투, 행동 등이 남자/여자답지 못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이나 평가를 받았다	73.7	81.3	65.6	81.6	77.3	79.2	80.0	56.7	50.0	78.3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직장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19.1	12.2	18.3	6.1	9.1	8.3	0.0	46.3	35.3	22.7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예: 출신 학교 및 병역사항 기재, 사진 첨부 등)	16.6	7.3	16.0	7.1	13.6	12.5	0.0	47.8	29.4	17.2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또는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11.4	1.6	0.8	1.0	0.0	0.0	5.0	43.3	38.2	17.2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평가를 받았다	9.6	12.2	10.7	11.2	13.6	0.0	10.0	4.5	2.9	9.9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되었다	5.4	4.1	2.3	1.0	0.0	4.2	5.0	17.9	8.8	6.4
서류에 법적 성별을 정정한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지원하는 것을 포기했다	3.0	0.0	1.5	1.0	0.0	0.0	0.0	14.9	14.7	2.0
기타	2.2	0.8	4.6	1.0	4.5	8.3	5.0	1.5	2.9	1.0

성소수자만의 또다른 취업 관문

면접참여자들은 구직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고민으로 지원 자체를 포기하거나, 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성별에 다른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나 성별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가 느끼는 어려움이 상당하였다. 또, HIV 감염인의 경우 감염 사실로 인해 고용 차별을 겪거나 자신의 병력이 주변에게 알려질까봐 걱정이 큰 편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한 구직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호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제가 원래 전공이 OO학과인데, 그쪽 전공인 애들은 보통 임용 고시를 많이 준비 해요. 근데 저는 게이란 정체성이 그때 생각으로는 뭐랄까 모범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사기업 쪽으로 그때 처음 마음을 돌렸고, 사기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항상 학생들한테 노출이 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받은 게 많고, 또 내가 모범이나 본보기가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참여자 16,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원래 지금 다니는 과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합격한 게 있었어요. 사이버 국방인데 사이버 국방을 졸업을 하면 7년 의무 복무를 해야 돼요. 근데 의무 복무를 하면 당연히 군인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군대라는 집단 자체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딱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정복을 입을 일이 있으면은 저는 여자 정복을 입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도저히 버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자로 대해지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택한 과는 완전히 연구 중심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택한 것도 있어요. 정복을 입을 쪽의 직업은 도저히 가지지 못하겠구나. (참여자 29, 트랜스젠더 남성 팬섹슈얼 데미로맨틱, 25세)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에 보니까는 그거 있잖아요. 군대를 갔다 왔다는 병적 증명서인가요.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나 초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취업,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서류 자체를 접수하는 거를 포기한 적도 있었어요.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세)

처음에 면접에 통과를 했는데 집에 알리지를 못 했거든요. 제가 혹시나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에도 곤란한 일이 생길까 봐. 다 알게 되니까. 제가 군면제를 그걸(HIV)로 받았어요. 집에서는 제가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병역특례로 때웠다고 알고 있긴 한데 사실은 HIV로 6급 면제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채용검진 프로세스 상에서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 놓고 검사를 받았는데 면제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면역문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시스템에 올라가지 않는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담당 의사선생님한테 여쭙보니까 '이거는 사실대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얘기해야 된다 거짓말로 얘기했을 때 그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직장에서의 경험

다음으로는 직장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들의 취업상태를 확인하였다. 응답자들의 취업상태는 학생이 1,694명(43.3%),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되어 있음'이 1,371명(35.1%), '무직, 전업 가사노동 또는 구직 중'이 596명(15.2%), '직원 없이 혼자 자영업(또는 프리랜서)을 하고 있음'이 217명(5.6%), '직원을 고용하여 자영업을 하고 있음'이 33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의 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 노동 시간, 고용 형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적용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종사상 지위의 분포는 상용직이 71.2%, 임시직이 26.8%, 일용직이 2.0%를 차지했다. 노동시간별로 살펴보면 전일제로 고용된 응답자가 75.7%, 시간제로 고용된 응답자가 24.3%였다. 고용 형태의 분포는 직접고용이 93.2%, 파견이 3.8%, 용역이 1.5%를 차지했다. 주휴수당 적용받는다는 응답자는 62.5%, 적용받지 않는다는 19.5%를 차지했고,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18.0%를 차지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는 6.2%였다. 응답자의 단 10.0%만이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본인이 가입된 상태라고 응답하였으며, 56.9%는 현재 직장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정체성별로 고용 상태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트랜스여성(MTF)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트랜스여성(MTF)은 상대적으로 임시직(39.5%) 및 시간제(39.5%)로 고용되어 있는 비중이 높고, 주휴수당(47.4%) 및 최저시급(89.5%)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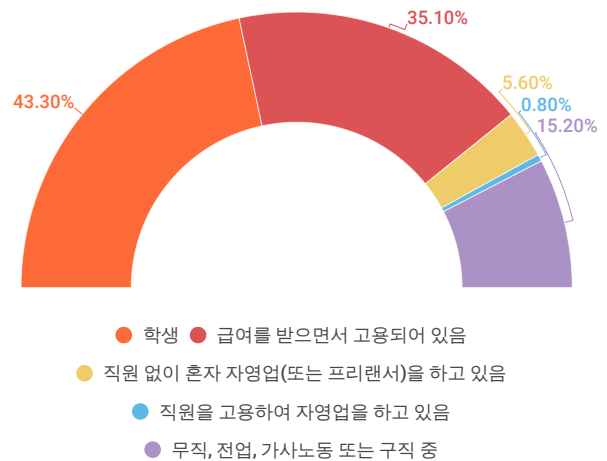


그림 26. 취업상태

표 35. 고용상태의 특성 및 분포

단위: %, 중복응답		전체 n=1,371	시스젠더 여성 n=518	시스젠더 남성 n=622	트랜스 남성 n=20	트랜스 여성 n=38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173
종사상 지위	상용직	71.2	67.8	77.2	80.0	52.6	63.0
	임시직	26.8	29.3	22.0	15.0	39.5	34.7
	일용직	2.0	2.9	0.8	5.0	7.9	2.3
	모름						
노동 시간	전일제	75.7	72.6	81.8	70.0	60.5	67.1
	시간제	24.3	27.4	18.2	30.0	39.5	32.9
고용 형태	직접고용	93.2	94.6	93.1	90.0	86.8	91.3
	파견업체	3.8	3.5	4.0	0.0	7.9	3.5
	용역업체	1.5	1.2	1.3	10.0	2.6	2.3
	모름	1.5	0.8	1.6	0.0	2.6	2.9
주휴 수당	적용	62.5	60.8	66.2	70.0	47.4	56.6
	적용 안 됨	19.5	22.4	15.1	10.0	26.3	26.0
	모름	18.0	16.8	18.6	20.0	26.3	17.3
최저 시급	최저시급 이상	93.8	95.2	92.9	100.0	89.5	93.1
	최저시급 미만	6.2	4.8	7.1	0.0	10.5	6.9
노동 조합	가입함	10.0	7.7	13.7	5.0	2.6	5.8
	가입 대상 아님	7.5	6.4	8.5	15.5	13.2	5.2
	가입 안 함	7.6	4.6	10.3	0.0	2.6	8.7
	노조가 없음	56.9	56.4	55.5	55.5	60.5	63.0
	존재를 모름	18.0	24.9	12.1	25.0	21.1	17.3

직장 내 경험과 관련하여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가운데 73.3%는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다고 응답하였다.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하거나(12.3%), 동료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20.7%)도 적지 않았다. 또,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경우도 42.5%에 달해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직장 경험이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가운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문제로는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느낀다'(52.3%),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조심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심하다'(51.3%), '가급적 업무 이외의 직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51.0%), '상사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해도 가급적 따르는 편이다'(46.3%), '이직을 고민한다'(42.1%), '소속감이 없다'(37.6%), '배우자/자녀 관련 대화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이 든다'(37.1%),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26.7%), '정체성을 숨기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가운데 69.5%가 현재 직장에서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17.4%는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현재 직장에서 펴고 있다고 답한 정책으로는 '차별금지 명시'(9.3%),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이나 캠페인'(4.4%) 등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들이 성소수자로서 직장생활을 잘 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로는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61.6%),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 존재'(49.5%), '직장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36.9%)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직장에서의 경험

전체(n)=1,371	단위: %	그렇다*
직장에서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냈음	13.2	
직장에서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음	73.3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함	12.3	
동료가 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하는 것을 듣거나 보았음	20.7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함	42.5	

표 37. 직장 생활의 어려움

전체(n)=1,371	단위: %	그렇다*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느낀다	52.3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조심해야 하므로 스트레스가 심하다	51.3	
가급적 업무 이외의 직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51.0	
상사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해도 가급적 따르는 편이다	46.3	
이직을 고민한다	42.1	
소속감이 없다	37.6	
배우자/자녀 관련 대화에서 배제되어 소외감이 든다	37.1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26.7	
정체성을 숨기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거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9.7	

*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한 값임.



69.5%

직장 내 성소수자 관련 제도가 전무함



61.6%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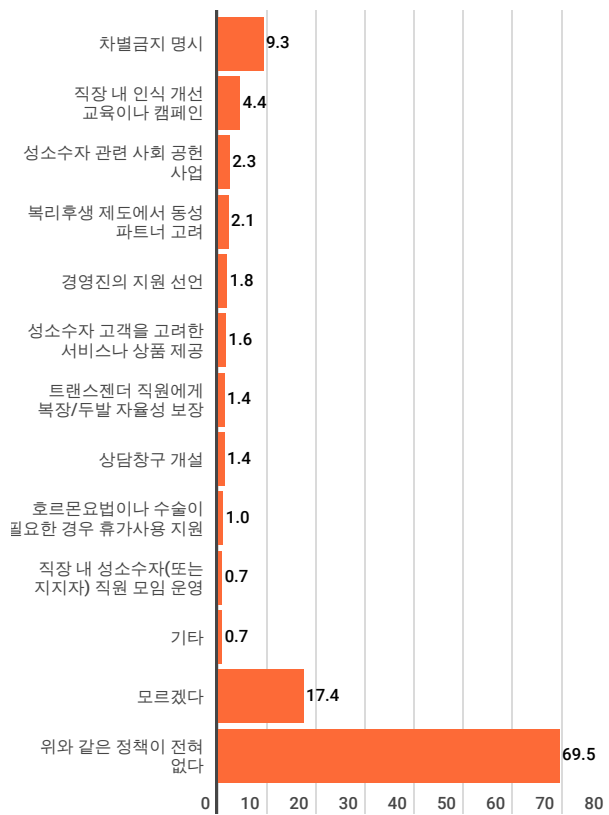


그림 27. 현재 직장 내 성소수자 관련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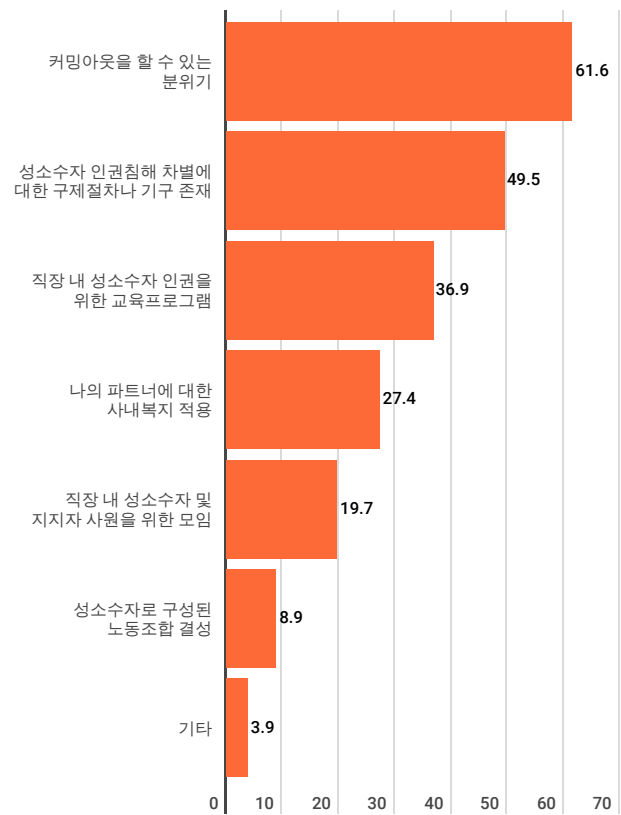


그림 28. 직장에 바라는 성소수자 관련 욕구

성소수자 직장인의 남모름 고충

직장을 다니고 있는 면접참여자들 또한 성소수자로서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이나 위험이 적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정체성이 드러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큰 편이었는데, 교사 등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성소수자의 경우 그러한 위험이 심했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면접참여자는 안전하고 편안한 조직문화를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고려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직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내 복지 제도 등이 이성애자 배우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동성 커플 등이 배제되는 문제에 대한 아쉬움도 컸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법적으로 다 공무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해고 사유로요. 이거는 파면 사유죠. 이게 되게 주관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 정말 운이 안 좋은 케이스에는 게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그런 걸로도 자를 수 있구나. 사실은 다른 걸로는 자를 수가 없잖아요. 게이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거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조항이 있으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참여자 1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9세)

두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소수자라는 소문은 언제나 저를 따라다니고, 직접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고, 동료 교사들 중에서도 직접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 실제로 이전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 말고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정교사를 뽑는다고 해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떨어지고 나서 뒤에서 교장 선생님이 제가 속했던 부서의 부장님한테 'OOO 선생님이 성소수자라는 얘기, 동성애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어떻냐'는 질문을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술자리에서 듣게 되기도 했고. (...) 저는 되게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어떤 위협의 순간은 좀 무섭더라고요. 특히 이제 직장은 또 이제 생계와 직결되니까.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2세)

업무 특성상 일 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병적인 부분에서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검사항목에 HIV가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좀 제가 이제 결혼 적령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직장 동료 분들도 그런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이고.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것처럼 퀴어라는 정체성도 중요해서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조직문화가 있는 곳으로 골랐고 그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 19,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9세)

정규 직원만 상조회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상조회가 돈이 모자란지 한 달에 3만 원씩 걷어가거든요. 상조회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나의 결혼, 나의 출산, 내 자녀의 결혼, 내 부모의 상 그렇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저는 돌아가실 부모도 한 명밖에 안 남았고, 내 결혼도 그렇고 자식 결혼도 그렇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 매달 3만원이 진짜 별거 아닌데도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다들 지금은 하겠죠. 결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니깐. 근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동성 파트너가 있을 때 그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 내가 상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참여자 17, 시스젠더 남성 게이, 32세)

한편 향후 12개월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물었을 때 전체 응답자의 29.4%는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49.1%는 '변함없을 것이다', 21.5%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레즈비언(34.2%)과 게이(33.6%)에서 가장 높았고, '나빠질 것이다'라는 응답은 트랜스여성(43.1%)과 논바이너리/젠더퀴어(30.9%)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현재의 취업 상태도 상대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향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다른 이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랜스여성의
43.1%

향후 나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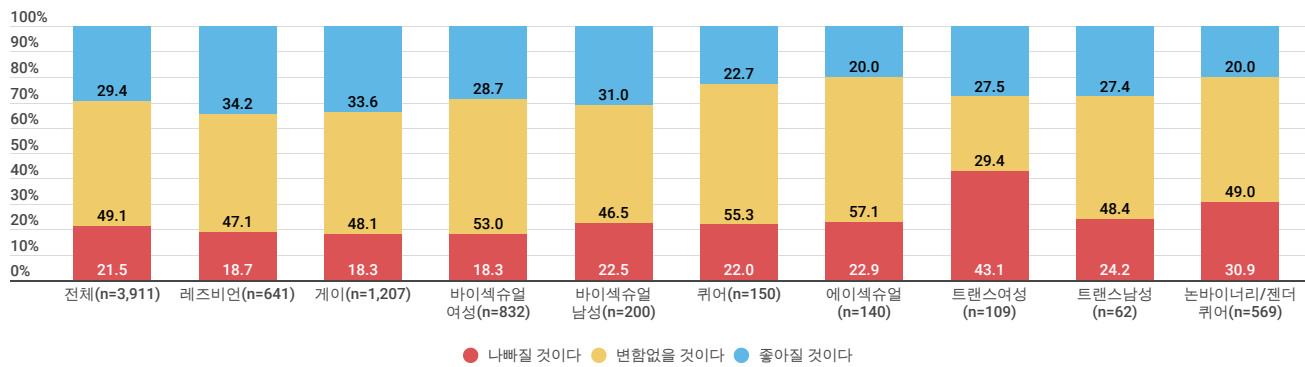


그림 29. 경제적 미래전망

07 가구 형태와 주거 독립

가구 형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724명(18.51%)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90명(17.64%), 100만원 미만 637명(16.2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86명(12.43%),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03명(7.75%),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60명(6.65%),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193명(4.93%)으로 나타났으며, 7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15.8%였다.

응답자의 주된 가구 수입원에 대한 응답으로 부모의 지원이 73.5%, 본인 수입이 70.8%, 친지의 보조가 10.9%, 국가의 지원이 10.0%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가구원 수는 1인 가구가 1,273명(32.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4인 가구 1,012명(25.9%), 3인 가구 706명(18.1%), 2인 가구 653명(16.7%), 5인 가구 223명(5.7%), 6인 가구 31명(0.8%), 7인 가구 13명(0.3%) 순의 분포를 나타냈다.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으로는 부모님(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35.6%), 혼자 삼(하숙집 포함)(32.5%) 순의 분포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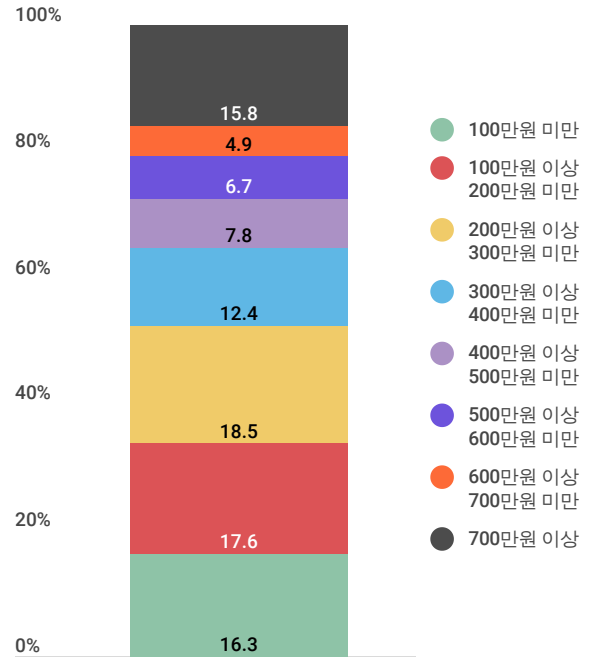


그림 30. 월평균 가구소득

표 38. 가구 주수입원

전체(n)=3,911	중복응답	%
부모의 재산/수입/보조		73.5
본인의 수입		70.8
친지의 보조		10.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포함)		10.0
배우자(파트너)의 수입		8.2
종교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원조		0.7
기타		0.9

표 39. 가구원 수

전체(n)=3,911	%
1명(1인가구)	32.6
2명	16.7
3명	18.1
4명	25.9
5명	5.7
6명	0.8
7명	0.3

표 40. 함께 사는 사람

전체(n)=3,911	중복응답	%
부모님		53.4
형제자매		35.6
혼자 삼(하숙집 포함)		32.5
애인 및 파트너		7.1
조부모		4.1
친구		2.7
기타		1.4

주거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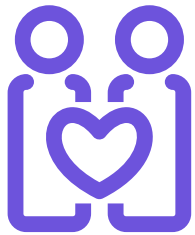


34.0%

독립을 결정하는 데 정체성이 영향을 미침

부모 및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주거상 독립한 응답자 1,784명의 최초 독립시기는 평균 2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정체성에 따른 최초 독립시기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응답자의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이 독립에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4.0%였다. '독립을 결정하는 데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을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시스젠더에 비해 트랜스여성(62.3%), 트랜스남성(54.2%), 논바이너리/젠더퀴어(44.8%)에서 높게 나타났고, 에이섹슈얼(4.3%)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49.9%

파트너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 독립함

응답자의 독립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49.9%)가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퀴어임이 드러날 수 있는 물품(긋즈, 연인 간의 편지, 선물 등)을 숨기기 싫어서'(33.3%),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서'(3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커밍아웃 혹은 아웃팅 이후 부모형제와의 갈등으로 인해 독립을 하게 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표 41. 성소수자 정체성이 독립에 영향을 미친 여부

단위: %	그렇다
전체(n=1,784)	34.0
레즈비언(n=288)	34.0
게이(n=634)	37.2
바이섹슈얼 여성(n=315)	21.0
바이섹슈얼 남성(n=101)	24.8
퀴어(n=101)	28.3
에이섹슈얼(n=60)	4.3
트랜스여성(n=53)	62.3
트랜스남성(n=24)	54.2
논바이너리/젠더퀴어(n=261)	44.8

표 42. 독립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

전체(n)=607	단위: %, 복수응답	그렇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		49.9
퀴어임이 드러날 수 있는 물품(긋즈, 연인 간의 편지, 선물 등)을 숨기기 싫어서		33.3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서		31.8
이성과의 연애나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괴로워서		22.7
파트너와 동거하기 위해		21.7
성별표현을 위한 각종 물건들을 숨기기 어려워서		17.5
커밍아웃/아웃팅 이후, 부모 또는 형제와의 갈등 때문에		15.7
커밍아웃/아웃팅 이후, 부모 또는 형제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6.6
기타		7.7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 2,127명 가운데 독립 고려 여부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591명(74.8%)이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536명(25.2%)로 분포를 나타내 대다수의 응답자가 독립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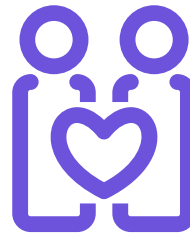
현재 독립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1,591명 가운데 독립을 고려하는 요인 가운데 자신이 성소수자인 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3.2%이다. 트랜스여성(86.7%)에서 상대적으로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독립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립 고려의 요인으로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61.4%)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퀴어임이 드러날 수 있는 물품(굿즈, 연인 간의 편지, 선물 등)을 숨기기 싫어서'(40.9%),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서'(37.5%), '파트너와 동거하기 위해'(31.7%), '이성과의 연애나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괴로워서'(19.5%)의 순으로 나타났다.



74.8%

현재 주거 독립을 고려하고 있음



37.5%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서

표 43. 성소수자 정체성이 독립을 고려하는데 영향을 미친 여부

단위: %	그렇다
전체(n=1,591)	63.2
레즈비언(n=256)	68.4
게이(n=454)	70.5
바이섹슈얼 여성(n=380)	52.9
바이섹슈얼 남성(n=79)	57.0
퀴어(n=62)	56.5
에이섹슈얼(n=55)	30.9
트랜스여성(n=45)	86.7
트랜스남성(n=27)	59.3
논바이너리/젠더퀴어(n=233)	67.4

표 44. 독립을 고려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

전체(n)=1,005	단위: %, 복수응답	그렇다
파트너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		61.4
퀴어임이 드러날 수 있는 물품(굿즈, 연인 간의 편지, 선물 등)을 숨기기 싫어서		40.9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서		37.5
파트너와 동거하기 위해		31.7
이성과의 연애나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괴로워서		19.5
성별표현을 위한 각종 물건들을 숨기기 어려워서		19.7
커밍아웃/아웃팅 이후, 부모 또는 형제와의 갈등 때문에		15.9
커밍아웃/아웃팅 이후, 부모 또는 형제의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		5.6
기타		5.3

'자기만의 방'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면접참여자들은 가족과 한 공간에 사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는 편안한 공간에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대부분의 면접참여자에게 존재했다. 트랜스젠더나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일상적인 젠더 표현이나 호르몬 요법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등에 있어서 가족과의 갈등이 심한 편이어서, 이들은 빠른 시일 내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한편 이미 독립을 한 면접참여자들은 독립한 공간이 일종의 퀴어 안전공간처럼 기능하는 것이 무척 만족스럽다며 대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가족이 만약에 저의 성정체성이나 성지향성을 인지를 하고 깊이 존중을 할 수 있다면 그거에 위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존중받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로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4세)

퀴어 친구들과 내 공간에서 일종의 세이프존처럼, 제 집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서 여자들이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지 여자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참여자 4,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5세)

저는 전화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친구랑 전화도 좋아하고 아니면 낯선 사람들이랑 아까 뭐 말씀하실 때 같은 데서 글 올려 가지고 전화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게 제일 커요. 집에 있으면 전화 자체를 못 하나니까.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집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집 상황이 그다지 퀴어프렌들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깔끄럽고 힘들었던 적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집에 있으면 머리 깎으라는 얘기를 정말로 많이 듣거든요. (참여자 35, 트랜스젠더 여성 에이섹슈얼, 22세)

저는 일단 갈등도 심하고, 시간을 오래 겪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기대도 안 하고. 계속 같이 살면은 삶의 방식이랑 정체성을 계속 부정하고 제 인생을 갇아 먹겠다 싶어서. 사실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당장이라도 독립을 넘어서 그냥 가족과의 교류를 끊고 혼자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세)

저도 독립을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못했지만 있었어요. 그때는 커밍아웃하기 전이거든요. 커밍아웃 직전에 만약에 가족들이 그렇게 되면 나는 백 퍼센트 배제될 것이다. 가족들하고 불화를 겪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 스스로 안전해지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피하고 싶었고. 여러모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독립을 시도했었는데 잘 안 됐고.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인 것도 있었고요.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세)

저는 호르몬을 자가로 맞고 있어서 일단 호르몬이나 주사기 등을 집에 보관해야 되고 숨기는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 한 번 정체성 관련으로 부모님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감기 때문에 약 봉지가 꽤 많았는데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놓으니까 어머니께서 호르몬이냐고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 아버지는 (성별)정정하면 집에서 쫓아내버리신다고 하셨고. 어머니도 웬만하면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무래도 쫓아내시기 전에 먼저 나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호르몬을 하게 되면 피부 말고도 목소리 라든지 각종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매일 만나면 사실 크게 변화된 거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계속 부모님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여자 3, 트랜스젠더 남성 에이섹슈얼, 28세)

성소수자에게 서울이란

성소수자로서 서울에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많은 면접참여자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성소수자 관련 인프라와 행사가 많은 서울에 사는 것이 성소수자로서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지방에서는 의료적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인프라적인 부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지만, 특히 게이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만남의 기회도 많고. 지방에 살면 주변에 둘러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생활비가 많이 나가고 집값이 많이 나가더라도 수도권에 사는 게 낫겠다.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병원 문제 때문에. 저는 호르몬을 병원에서 타서 맞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맞는데요. 매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서 아예 앰플을 타서 집에서 직접 자가주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에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서울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없으니까.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세)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서울에는 그나마 트랜지션이라든가 아니면 인식이라든가 그나마 좋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좀 트랜스젠더를 위한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상담소 아니면 인식 문화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좀 많이 안타까워요. (참여자 8, 젠더퀴어 바이섹슈얼, 23세)

본가가 좀 시골 동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이고, 사람들끼리 거의 다 아는 사이거나 한 두 다리 건너면 이어지는 사이고 해서 굉장히 커넥션이 질긴 편인데요. 나쁘게 말하면 안 좋은 소문도 굉장히 빨리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제가 내놓고 트랜지션을 하고 성소수자로서 산다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고 눈총이 되게 따가울 거고. 그런 조금 작은 사회에선 견디기가 힘든데, 서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참여자 35, 트랜스젠더 여성 에이섹슈얼, 22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주는 해방감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해방감이나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게 사실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되는 작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면 그런 장소가 많이 정말 없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개인을 만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또 풀이 너무 좁잖아요. (참여자 4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4세)

모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도 거의 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모임이나 세미나 시간이 거의 대부분 평일 7시, 8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면은 절대 못 가는 그런 시간대. 그 모임 자체가 서울 사람들만 모이자 이런 모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참여자 7, 퀘스처너리 바이섹슈얼, 26세)

저는 서울 외에서 살 거면 정말 안 살고 싶은 정도로 서울에서 사는 거 집착을 하는데. 일단 서울이 아무래도 이런 퀴어 업소 같은 데에서 접근성이 좀 더 높고. 제가 지방에는 어떤 퀴어 업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클럽이나 바나 이런 것들 대부분이 다 서울에 몰려 있어 있기는 해요. (참여자 4,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5세)

뭔가 지역 격차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은 그래도 뭔가 대학도 많고 물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서로 막 조인트다, 행사다 하면서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봤을 때 그래 보이는데. 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서울을 엄청 많이 다니고 서울에 있는 그런 분위기를 동경했었어요. (참여자 13, 논바이너리 게이, 23세)

인구 밀도 탓이 큰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곳에 퀴어도 많으니까 뭐랄까 양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퀴어들끼리도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퀴어 세이프스페이스도. 그 결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근데 결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결집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이 서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25, 논바이너리 퀴어, 25세)

08 건강

주관적 건강과 행복도

1점부터 5점 사이로 답하도록 한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체 평균 3.3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문항을 활용해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다른 조사와 비교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 집단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4.28, 2019년 「한국복지패널」의 19~34세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4.09로, 청년 성소수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전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되었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게이(3.5)와 바이섹슈얼 남성(3.4), 레즈비언(3.3) 순서대로 주관적 건강 상태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트랜스여성(2.8)의 경우 주관적 건강 상태의 평균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에게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하십니까?”라고 묻고 1점에서 10점 사이로 답하도록 했다. 응답자의 주관적 행복도의 전체 평균은 5.9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 집단 주관적 행복도 6.8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정체성별로 나누어보면, 게이(6.2), 바이섹슈얼 남성(6.1), 레즈비언(6.0), 바이섹슈얼 여성(6.1)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트랜스여성(4.8)의 주관적 행복도가 몹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4.28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4.09

2019 한국 복지패널 (만19세-만34세)

* 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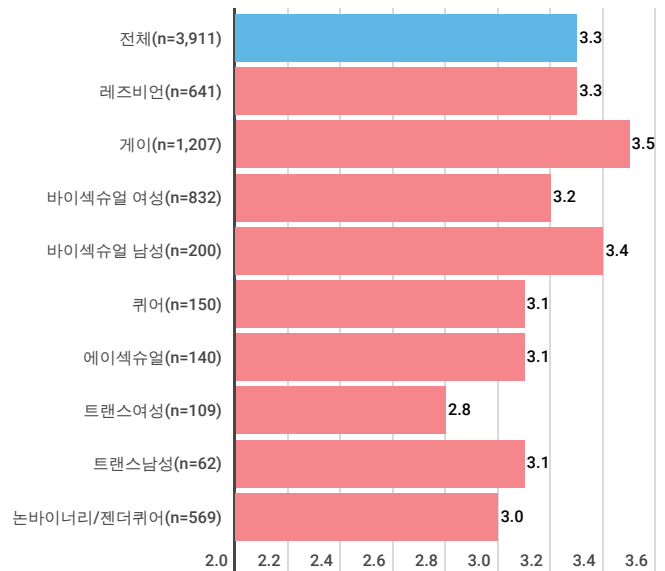


그림 31. 주관적 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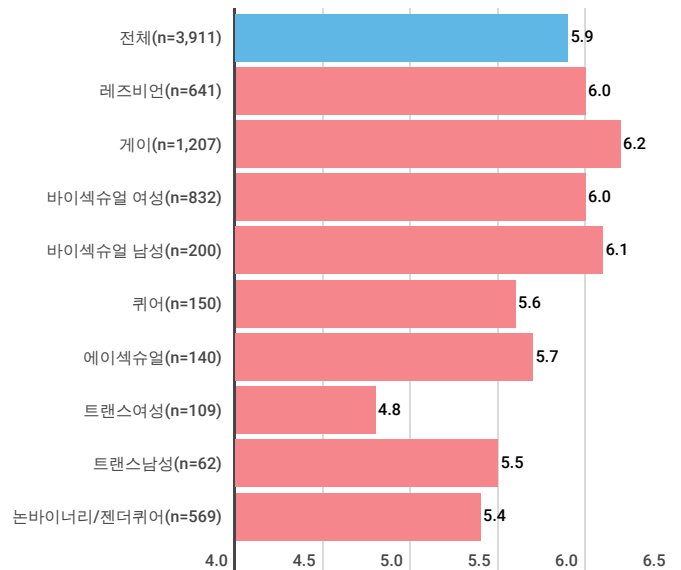


그림 32. 주관적 행복도

* 10점 만점

정신건강

다음으로는 우울 증상 및 정신과 경험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의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우울감 척도(CES-D 11)를 활용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울감 척도 (CES-D) 11개 문항에 대해 2, 7번 문항을 역코딩하고 1~4점을 0~3점으로 계산하여 합한 총점을 20/11로 곱한 결과를 바탕으로 16보다 높은 경우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응답자의 우울감 척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우울 증상을 의심할 수 있음(16점 초과)에 해당하는 비율이 49.8%로, 응답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여성의 71.6%,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68.2%, 퀴어의 58.7%, 트랜스남성의 53.2%, 바이섹슈얼 여성의 51.1%가 최근 일주일간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지와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37.6%는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으며, 30.8%는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었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 트랜스여성, 퀴어, 에이섹슈얼, 트랜스남성에서 정신과 이용 및 약물 복용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는 우울 증상 척도가 16점을 넘거나 '지난 1년 사이에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년 367명에 한정해서 전문가(의사, 상담가)와 상담한 경험과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사 응답자의 단 11.9%만이 전문가를 만났다고 응답했고, 8.4%만이 정신적인 문제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본 조사의 경우, 우울증상 척도가 16점을 넘는 응답자 1,949명 가운데 50.1%가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43.0%가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9.8%

최근 일주일간 우울증상이 의심됨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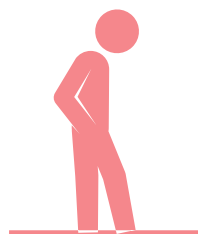
최근 1년간 정신과를 이용함

표 45. 우울증상 및 정신과 이용 경험

단위: %	우울증상 (최근 1주)	정신과 이용 경험 (최근 1년)	정신과 약물 복용 (최근 1년)
전체(n=3,911)	49.8	37.6	30.8
레즈비언(n=641)	47.4	35.1	28.5
게이(n=1,207)	39.9	26.0	20.7
바이섹슈얼 여성(n=832)	51.0	39.5	32.1
바이섹슈얼 남성(n=200)	42.0	30.0	23.5
퀴어(n=150)	58.7	42.0	34.0
에이섹슈얼(n=140)	49.3	41.4	28.6
트랜스여성(n=109)	71.6	50.5	45.0
트랜스남성(n=62)	53.2	40.3	33.9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8.2	59.8	52.2



41.5%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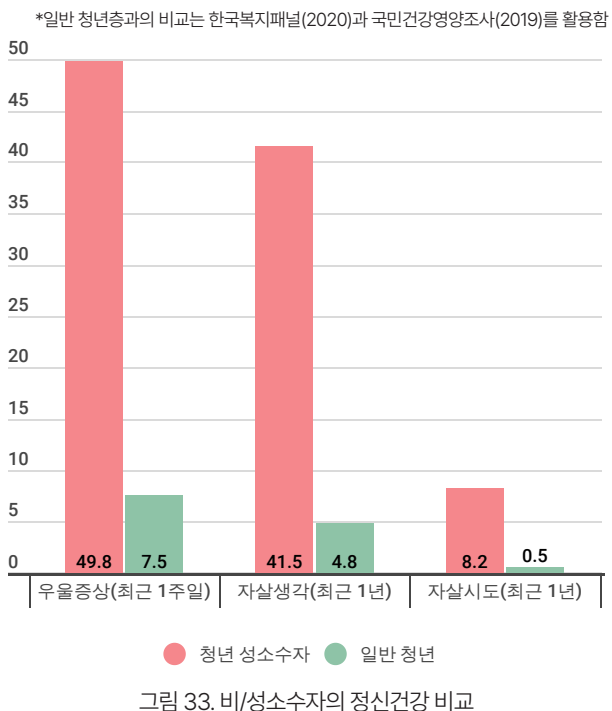


8.2%
최근 1년간 자살을 시도함

표 46.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단위: %	자살생각 (최근 1년)	자살시도 (최근 1년)
전체(n=3,911)	41.5	8.2
레즈비언(n=641)	40.4	9.4
게이(n=1,207)	27.9	4.5
바이섹슈얼 여성(n=832)	45.2	8.5
바이섹슈얼 남성(n=200)	31.5	4.0
퀴어(n=150)	44.7	10.0
에이섹슈얼(n=140)	44.3	8.6
트랜스여성(n=109)	58.7	20.2
트랜스남성(n=62)	59.7	12.9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2.9	12.1

다음으로는 최근 1년간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경험에 대해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41.5%는 최근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8.2%는 최근 1년간 실제로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청년들에게 '자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를 물었더니 단 2.74%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62.9%, 트랜스남성의 59.7%, 트랜스여성의 58.7%가 최근 1년간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응답했고, 실제 자살 시도 또한 트랜스여성(20.2%), 트랜스남성(12.9%), 논바이너리/젠더퀴어(12.1%)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HIV/AIDS

전체 응답자 3,911명 가운데 HIV 상태를 양성으로 응답한 자는 75명(1.9%)이었다. 응답자의 59.4%는 자신의 HIV 감염 여부를 음성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8.6%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게이 응답자 중에서 HIV 양성의 비율은 5.0%, HIV 음성의 비율은 66.8%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HIV 감염 상태를 모르겠다는 응답도 28.3%나 되었다. 트랜스여성 응답자의 2.8%, 바이섹슈얼 남성 응답자의 2.5%는 자신이 HIV 양성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7. HIV 상태

단위: %	HIV 양성	HIV 음성	모르겠음
전체(n=3,911)	1.9	59.4	38.6
레즈비언(n=641)	0.2	56.8	43.1
게이(n=1,207)	5.0	66.8	28.3
바이섹슈얼 여성(n=832)	0.1	57.5	42.4
바이섹슈얼 남성(n=200)	2.5	67.0	30.5
퀴어(n=150)	0.7	46.0	53.3
에이섹슈얼(n=140)	0.0	62.9	37.1
트랜스여성(n=109)	2.8	58.7	38.5
트랜스남성(n=62)	0.0	53.2	46.8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0.7	50.6	48.7

성생활

지난 1년간 누군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43.1%는 지난 1년간 성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56.9%는 한 번 이상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살펴보면 게이(79.9%)의 성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에이섹슈얼의 경우 최근 1년간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7%로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 성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1,686명에게 성관계를 갖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47.7%가 '관심은 있지만,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를 최근 1년간 성 경험이 없었던 이유로 꼽았다. 그밖에도 '흥미가 없어서'가 43.1%, '외모나 몸에 자신이 없어서'가 33.6%,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1.8%, '코로나로 인한 걱정 때문'이 19.5%, '건강상의 이유로'가 3.0%의 응답 분포를 차지했다.

정체성별로 에이섹슈얼에서는 '흥미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88.8%로 매우 높았고, 트랜스여성(55.6%), 게이(45.9%), 트랜스남성(43.2%)에서는 '외모나 몸에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게이 응답자의 7.0%는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HIV 감염 여부별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1년간 성 경험이 없고 HIV 양성인 게이 응답자 9명 가운데 8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최근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8. 최근 1년간 성생활

단위: %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전체(n=3,911)	43.1	56.9	12.9	21.8	22.2
레즈비언(n=641)	48.2	51.8	14.0	20.6	17.2
게이(n=1,207)	20.0	79.9	16.3	30.9	32.7
바이섹슈얼 여성(n=832)	55.9	44.2	12.4	17.7	14.1
바이섹슈얼 남성(n=200)	32.0	68.0	12.0	24.5	31.5
퀴어(n=150)	56.0	44.0	10.0	16.0	18.0
에이섹슈얼(n=140)	89.3	10.7	2.1	4.3	4.3
트랜스여성(n=109)	49.5	50.5	14.7	14.7	21.1
트랜스남성(n=62)	59.7	40.3	14.5	16.1	9.7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53.6	46.4	8.3	17.0	21.1

표 49. 최근 1년간 성생활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관심은 있지만, 파트너를 찾지 못해서	흥미가 없어서	외모나 몸에 자신이 없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한 걱정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전체(n=1,686)	47.7	43.1	33.6	21.8	19.5	3.0
레즈비언(n=309)	55.0	35.3	32.7	24.3	22.7	1.3
게이(n=242)	50.0	22.7	45.9	26.4	24.4	7.0
바이섹슈얼 여성(n=465)	57.0	34.4	28.6	21.5	17.8	2.4
바이섹슈얼 남성(n=64)	57.8	31.3	40.6	28.1	29.7	4.7
퀴어(n=84)	51.2	48.8	33.3	21.4	25.0	1.2
에이섹슈얼(n=125)	8.8	88.8	15.2	6.4	6.4	0.8
트랜스여성(n=54)	50.0	38.9	55.6	27.8	11.1	3.7
트랜스남성(n=37)	35.1	59.5	43.2	18.9	10.8	5.4
논바이너리/젠더퀴어(n=305)	38.4	61.0	33.4	20.3	19.0	3.0

09 사회정치적 욕구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한국사회는 어떠합니까?"라고 물었을 때, '매우 안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2,195명(56.1%), '다소 안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603명(41.0%)로 응답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다소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00명(2.6%), '매우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13명(0.3%)였다. 이를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의 만 19세~만 34세 응답 결과와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견해('매우 안 좋음'과 '다소 안 좋음')의 응답 비중이 93.6%에서 97.1%로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불관용, 폭력이 늘어났습니까? 혹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었습니까?"라고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35.7%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났다'고 응답한 반면 32.4%는 '줄어 들었다'고 응답하였고, 23.6%는 '그대로이다', 8.4%는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트랜스남성(59.7%), 트랜스여성(54.1%), 논바이너리/젠더퀴어(52.9%)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온오프라인에서 펼쳐진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담론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7.1%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가 살기에 좋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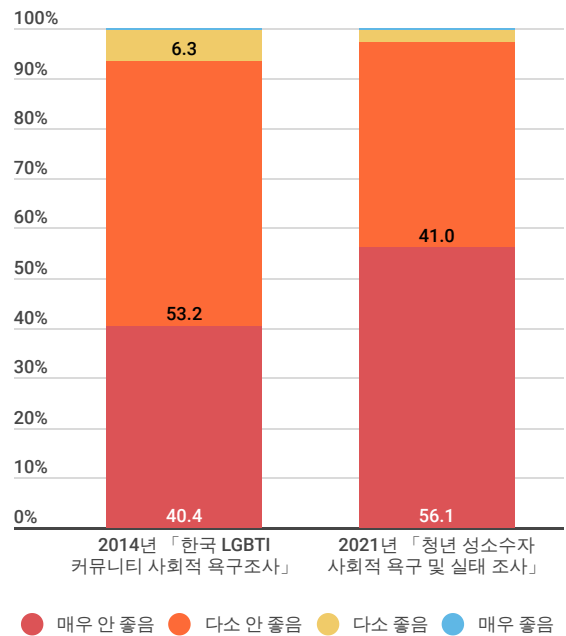


그림 34.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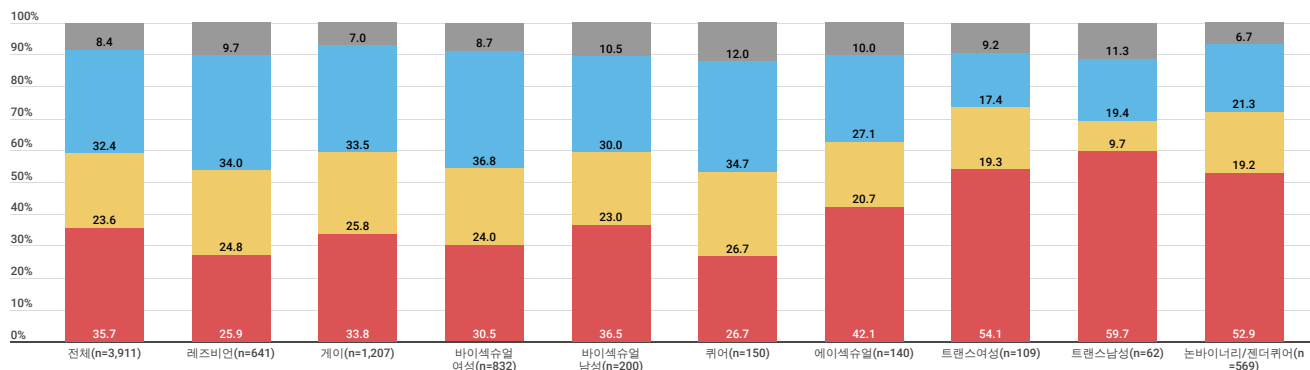


그림 35.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변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70.0%)를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미디어의 긍정적 보도 증가'(40.3%), '시민사회의 지지'(40.0%), '영향력 있는 사람의 커밍아웃'(37.5%), '공인과 유명인사의 지지'(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62.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증가'(50.5%),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33.7%), '성소수자 차별적인 교육'(32.2%), '시민사회의 지지 부족'(24.9%),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 부족'(2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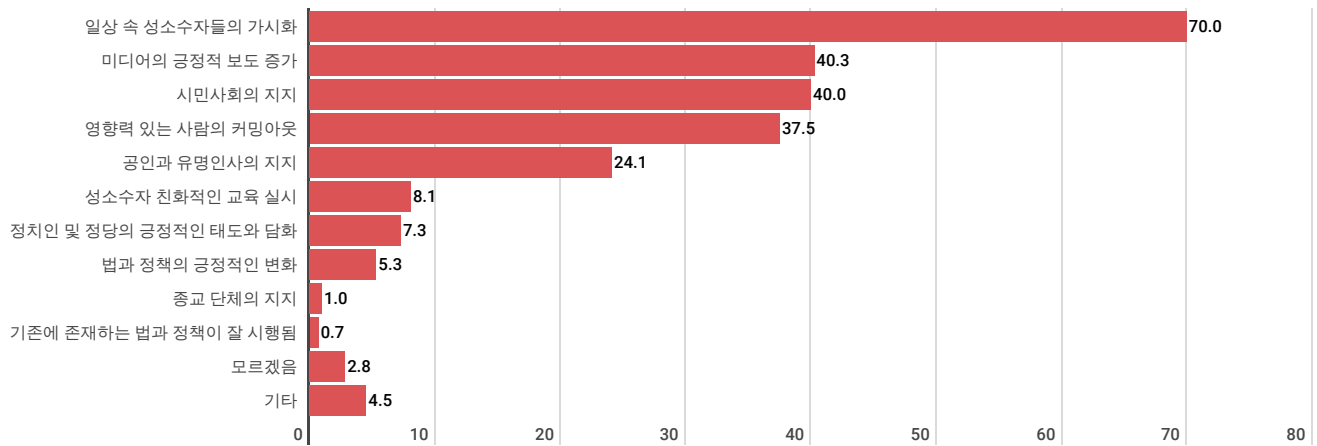


그림 36.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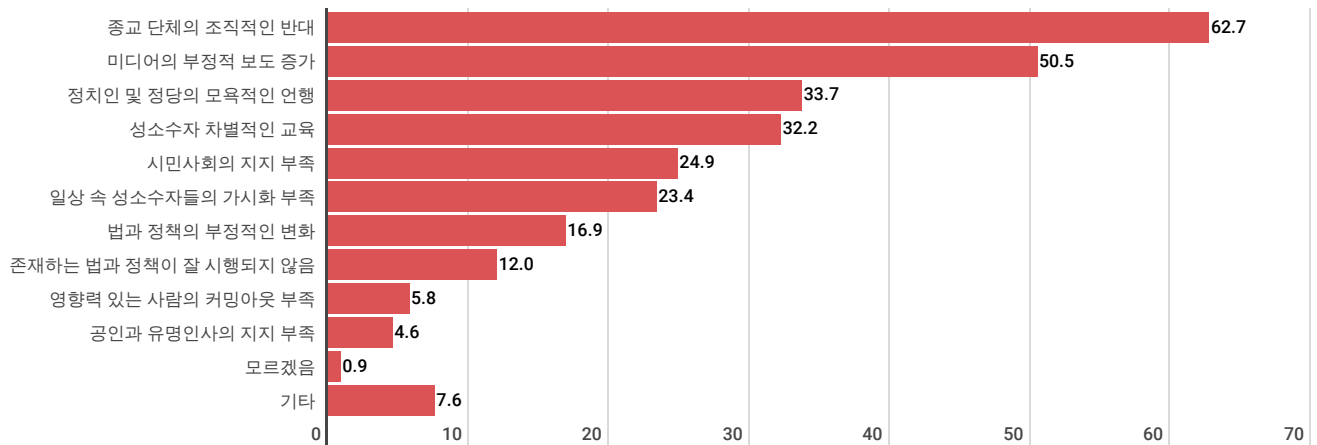


그림 37. 지난 5년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이유

가시화도 늘고, 혐오도 늘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나는 질문에 대해 면접참여자들이 내놓은 답은 서로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이전보다 성소수자가 더 많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을 들어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했지만,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혐오 발화도 늘어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좋아지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그 반대의 혐오의 목소리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지만 엘라이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잘 들리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9, 트랜스 논바이너리 팬로맨틱 게이, 29세)

전반적으로 인식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더 나아졌느냐 하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별로 나아진 건 없지만 어쨌든 인식은 좀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회화성으로 다뤄졌던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불편하다라거나, 잘못됐다, 옳지 않다고 말해 주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를 그냥 오픈된 장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얘기하는 곳들도 많아졌고.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세)

트위터를 예로 들자면 제가 아무래도 트랜스젠더 얘기 혐오를 많이 듣게 돼요. 트위터에서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레디컬 페미니스트 예를 들자면, 그런 쪽에서 열심히 트랜스젠더 혐오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연령대가 주로 청소년층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러한 우리들이 많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이고요. (참여자 3, 트랜스젠더 남성 에이섹슈얼, 28세)

특정 정체성에 대한 혐오는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 주변에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 보면 옛날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심해지는 거라고. (참여자 4, 시스젠더 여성 바이섹슈얼, 25세)

법제도로 보면은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거녕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제 개인 주관일 수 있지만 옛날부터 계속 말해 오던 어떤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보호자동반법이라던가 그런 게 정말 예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너무 안 하고 아직도 계속 멀었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되게 답답하죠. 인식은 개선이 됐는데 도대체 저기 법은 언제 개정이되지. (참여자 40,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6세)

* 경찰과 심리상담 기관은 2014년 조사 항목에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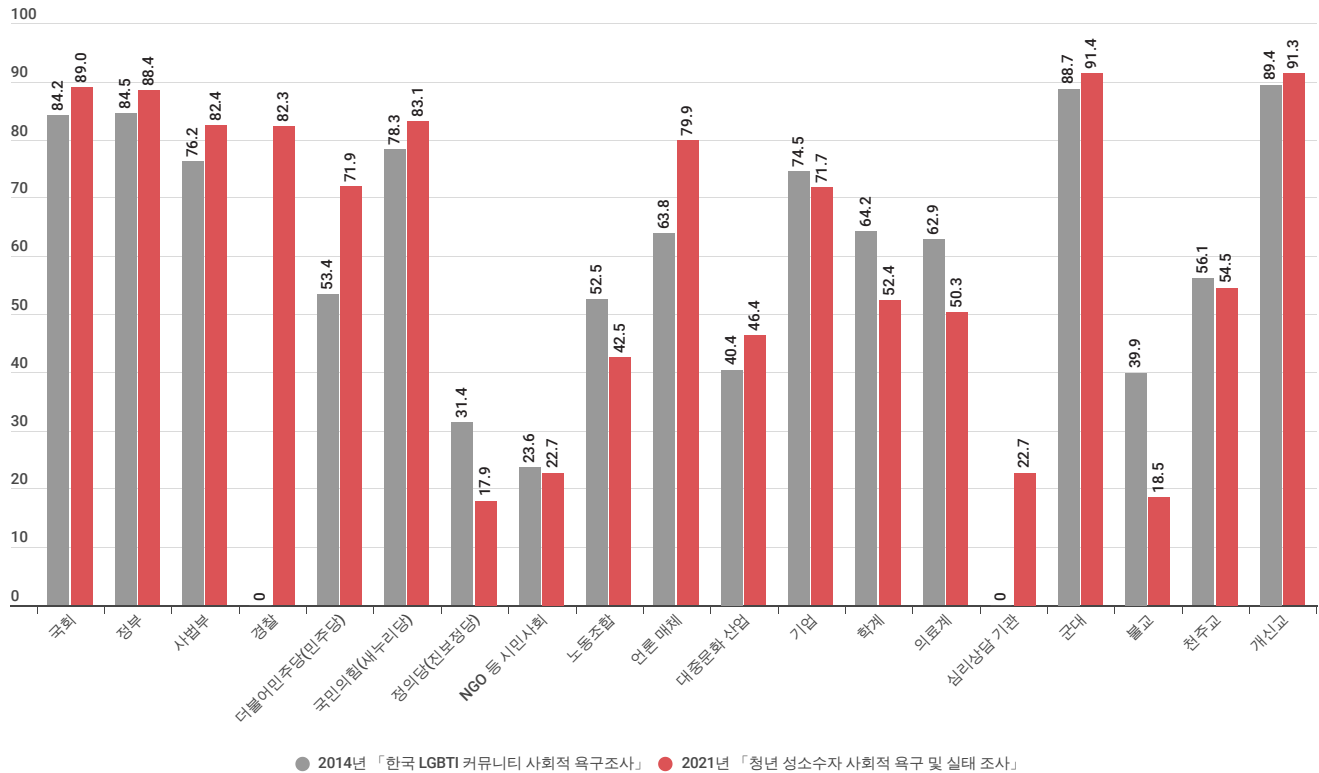


그림 38. 각 영역(조직)별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

다음으로는 각 조직(영역)별로 성소수자에 대한 우호도 및 비우호도를 평가해달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대부분의 조직들이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91.4%), 개신교(91.3%), 국회(89.0%), 정부(88.4%), 국민의힘(83.1%), 사법부(82.4%), 경찰(82.3%) 언론 매체(79.9%)가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조직(영역)은 정의당(60.8%)과 불교(52.9%)에 불과했다.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의 만19세~만34세 응답결과와 비교해보면, 성소수자에 대해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이 가장 크게 늘어난 영역(조직)은 '더불어민주당'으로 2014년 대비 18.5퍼센트포인트가 상승한 71.9%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언론 매체'가 성소수자에 비우호적이라는 응답도 16.1퍼센트포인트 상승하였고, 국회, 정부, 사법부 등 주요 권력기관들의 응답치도 골고루 상승하였다.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비우호도가 하락한 영역(조직)은 불교, 노동조합, 정의당(진보정당) 학계 등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욕구

* 3개 이하 복수응답



그림 39. 관심 있는 정치적 의제

* 3개 이하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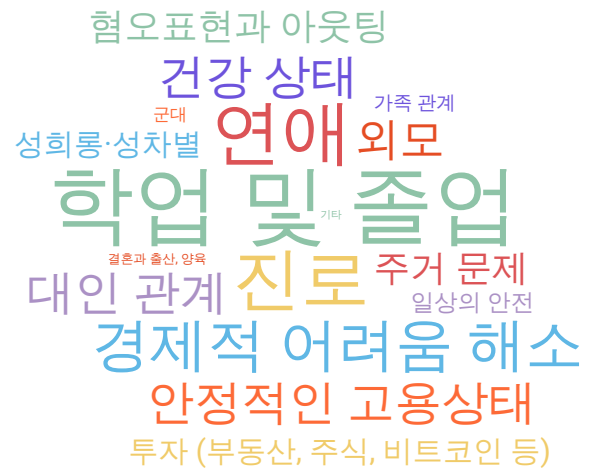


그림 40. 지난 1년간 관심을 가진 이슈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평소 관심을 가지는 정치적 영역으로 성소수자 인권(57.6%), 여성 인권(46.2%)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과학기술(15.7%), 동물권(15.1%), 기후위기(14.2%), 환경(13.3%), 아동청소년(13.2%), 교육(13.1%), 노동권(10.0%)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설문참여자들 정치 관심사 이외에도 지난 1년간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학업 및 졸업(39.7%), 연애(33.0%), 진로(31.2%)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26.0%), 대인 관계(20.7%), 건강 상태(20.6%), 안정적인 고용상태(20.1%)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3%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42.5%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

다음으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3개 이하로 고르게 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60.3%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그밖에도 응답자들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42.5%),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8.0%),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언론·미디어 환경 구축'(27.8%),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19.6%)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체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레즈비언을 제외한 모든 정체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레즈비언 응답자 가운데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한 정책은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59.6%)이었다. 한편 게이 응답자들은 다른 정체성에 비해 '군형법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29.6%),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15.4%)을 중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트랜스남성, 트랜스여성, 논바이너리/젠더퀴어는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및 공적 문서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 삭제',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 제정',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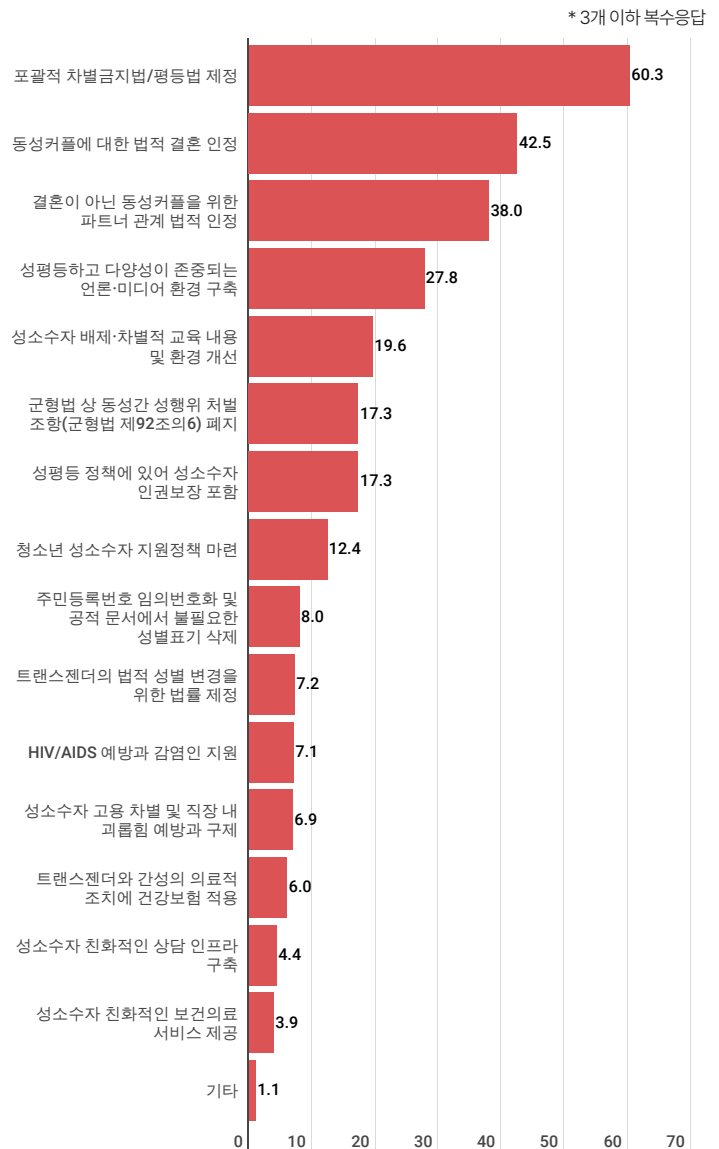


그림 41.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표 50. 정체성별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

전체(n)=3,911	단위: %, 3개 이하 복수응답	레즈비언	게이	바이 섹슈얼 여성	바이 섹슈얼 남성	퀴어	에이 섹슈얼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n=641	n=1,207	n=832	n=200	n=150	n=140	n=109	n=62	n=569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51.5	57.7	62.1	48.0	63.3	65.7	60.6	56.5	75.7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		59.6	42.5	50.4	30.0	39.3	27.9	19.3	29.0	26.7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		49.0	39.5	42.2	30.0	34.7	34.3	9.2	22.6	28.1
성평등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언론·미디어 환경 구축		32.1	24.8	34.5	30.0	33.3	33.6	9.2	11.3	21.6
성소수자 배제·차별적 교육 내용 및 환경 개선		21.4	17.3	21.4	17.0	24.7	24.3	7.3	12.9	21.1
균형법 상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7.5	29.6	10.3	22.5	14.7	8.6	4.6	9.7	17.0
성평등 정책에 있어 성소수자 인권보장 포함		18.3	17.4	16.5	19.0	18.7	18.6	14.7	14.5	16.9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정책 마련		11.5	13.8	11.7	13.0	14.7	11.4	11.0	6.5	11.8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화 및 공적 문서에서 불필요한 성별표기 삭제		4.4	1.7	5.9	2.5	7.3	11.4	23.9	33.9	23.7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한 법률 제정		3.4	3.3	5.2	5.0	6.7	10.7	48.6	30.6	12.1
HIV/AIDS 예방과 감염인 지원		1.1	15.4	1.2	20.0	4.0	0.7	6.4	1.6	3.2
성소수자 고용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구제		7.3	6.0	7.2	7.0	7.3	7.9	7.3	6.5	7.0
트랜스젠더와 간성의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 적용		1.7	1.5	3.0	4.5	4.0	7.9	45.9	30.6	15.1
성소수자 친화적인 상담 인프라 구축		3.0	4.4	5.0	7.5	4.0	7.1	6.4	3.2	3.3
성소수자 친화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4.1	2.8	2.4	5.0	2.7	5.0	9.2	1.6	6.9
기타		0.5	1.1	1.0	3.5	2.0	0.7	1.8	0.0	1.1

성소수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조사참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제도적 변화는 차별금지법 제정이었다. 이는 성소수자 인권 보장의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밖에도 동성혼과 다양한 가족구성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교육 등이 중요한 의제로 고루 지적되었다.

아무래도 차별금지법이 정말 가장 첫 단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나 다른 트랜스젠더 분들은 정정 조건이 지금보다 조금 더 완화된 게 될 인권 침해적으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말 급하게 느껴져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세)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이제 안전망으로서 기본적인 안전망으로서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럴 수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타협을 통해서 뭔가 이 조항을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차별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어느 또 다른 소수자들을 소외시키고 이러지 못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충분히 목소리도 나왔고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4세)

저는 일단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청원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 그걸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거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동반자법도 같이 완수가 되면 사실 이기적으로 봤을 때 제 삶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이를 입양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니까. 그냥 생활동반자법까지만 입법이 되어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인생에서 너무 감사하겠죠. (참여자 28, 시스젠더 남성 게이, 27세)

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보통 성에 대한 지식을 접하는 때가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제 순수한 궁금증을 통해 이런 거 막 찾아보지만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성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다 이제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우오는 성교육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이 굉장히 모자르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성교육은 지금 아마 성교육이라는 게 다 학교에서 외부 업체 외부 강사를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다면 좋겠고. 혐오라든가 그런 건 다 무지해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해요. (참여자 21, 시스젠더 남성 게이, 24세)

가족의 구성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점을 반영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 제가 지금 어쨌든 대학원생이니까 30대 이상 되면 어쩔 수 없이 막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으로 가입해가지고 내야 하고 그리고 또 뭐죠. 연금도 대학원생이 아니면 사실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사실 없어지고. 4대 보험부터도 '가족이 되어서 우선 사세요. 아니면 적어도 직장을 가지시던가.' 약간 이러한 태도에 그런 제도들이 사실 이런 혼자 사는 퀴어들을 조금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참여자 22, 시스젠더 남성 게이, 30세)

신혼부부에 비하면 엄청나게 불리하죠. 사실 청약 열심히 넣어보고 있는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안 되네요. 이게 흔히 말하는 정상 가족이라는 거에서 그 인생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야 되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생의 사이클에서는 확실히 벗어난 존재가 됐구나 라는 거를 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자 45, 시스젠더 남성 게이, 34세)

교육적인 문제에서 더 바뀌었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면서 저희도 배웠던 것들이 있지만은 저희보다 현재 세대는 아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게 뭐랄까 친화적인 교육들을 받게 되면은 퀴어친화적이고 이런 것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이상하지 않은 거야라고 교육받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 가지 보태자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 같은데 성별을 아예 나오지 않게 하자라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혹은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성별란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런지 않게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빈칸으로 남겨놓는다든지 혹은 자신이 원하는 젠더를 적어놓는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도입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떠한 법안들이든 다 좀 먼 얘기일 것 같아요. (참여자 30, 트랜스젠더 남성, 29세)

응답자의 선호 정당은 정의당(33.6%), 더불어민주당(8.5%), 여성당(5.5%), 국민의힘(4.6%), 녹색당(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9%였다.

현재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 회비를 내거나 후원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7명(18.6%)였다.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에 회비를 내거나 후원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후원을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결정 요인으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1명(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분노'(17.2%), '개인적 행복감'(14.9%), '경제적 여유'(7.4%),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 요청'(7.2%), '연말 정산 등 세제혜택'(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에 회비를 내거나 후원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 1,401명(44%)이 후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몰라서'라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후원을 하지 않는 그밖의 이유는 '후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20.6%),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13.4%), '후원을 요청한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9.6%),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6.8%), '후원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3.1%)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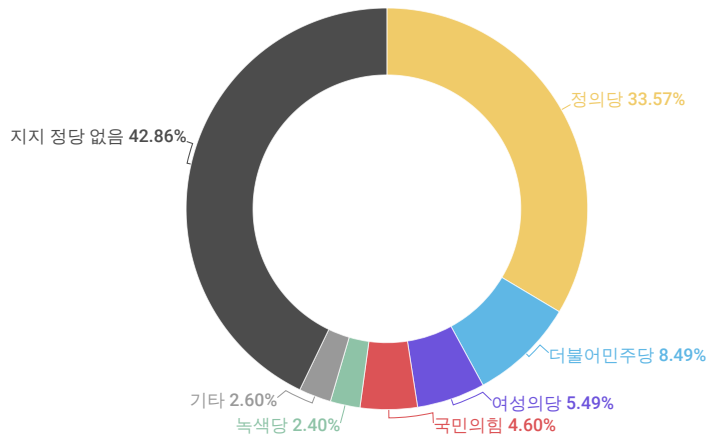


그림 42. 선호 정당



18.6%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후원 중

표 51. 후원을 하는 이유

전체(n)=727	%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감	49.7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분노	17.2
개인적 행복감	14.9
경제적 여유	7.4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친구, 동료 등)으로부터의 자극, 요청	7.2
연말 정산 등 세제 혜택	1.2
기타	2.5

표 52. 후원을 하지 않는 이유

전체(n)=727	%
나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44.0
후원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20.6
어디에,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 몰라서	13.4
후원을 요청한 단체를 신뢰할 수 없어서	9.6
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	6.8
후원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1
기타	2.5

페미니즘

"귀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4.1%,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35.9%를 차지해, 전체 응답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에 따른 페미니스트 자기인식 비율은 논바이너리/젠더퀴어(84.5%), 바이섹슈얼 여성(82.9%), 에이섹슈얼(81.4%) 퀴어(74.7%), 레즈비언(74.4%)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바이섹슈얼 남성(33.0%), 게이(39.7%), 트랜스여성(45.0%)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페미니즘과 관련된 여섯 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답변을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의 비율이 다소 차이나기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와 '성평등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제이다'라는 문항의 경우,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동의 비율이 99.5%와 99.2%,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95.9%와 87.5%로 나타나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94.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68.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성소수자와 페미니스트는 연대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도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한 집단은 85.5%가 동의를 표한 반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71.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내가 속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여성혐오는 심각하다'는 문항의 경우,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36.4%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63.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22.1%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7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대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의 경우, 페미니스트라고 응답한 집단과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응답한 집단 모두에서 비슷한 비율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64.1%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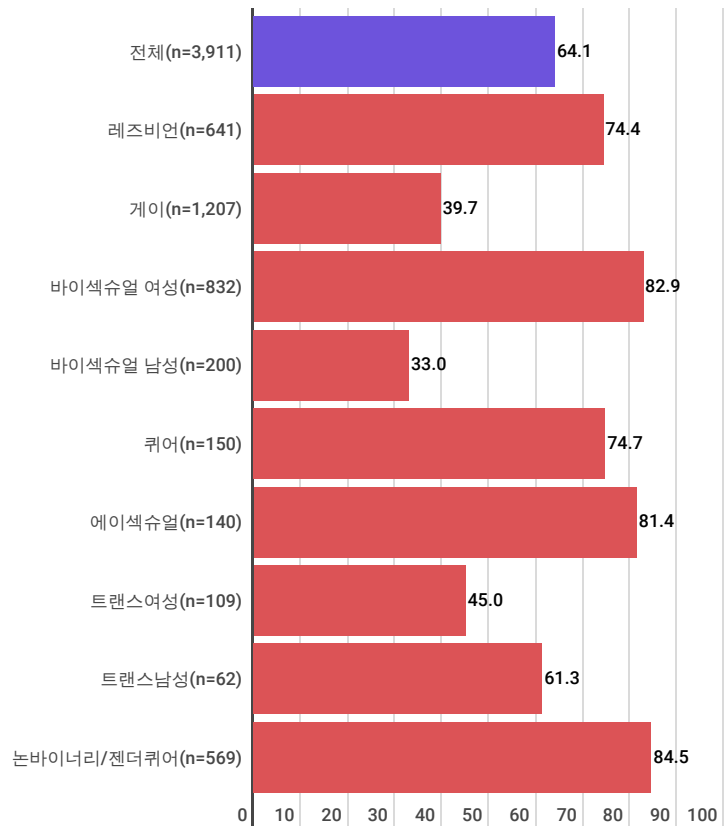


그림 43. 페미니스트 여부

프라이드 마케팅



48.3%

제품 구입시
프라이드 마케팅을 고려한다

기업의 성소수자 친화적인 마케팅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 프라이드 마케팅에 대한 고려 여부 및 해당 제품 구입 경험을 물어보았다. 제품 구입 시 프라이드 마케팅을 고려하는지에 관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8.3%를 차지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프라이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2개월 동안 기업의 성소수자 포용적인 활동과 고용관행, 또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정치적 태도를 의식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구입한 적이 실제로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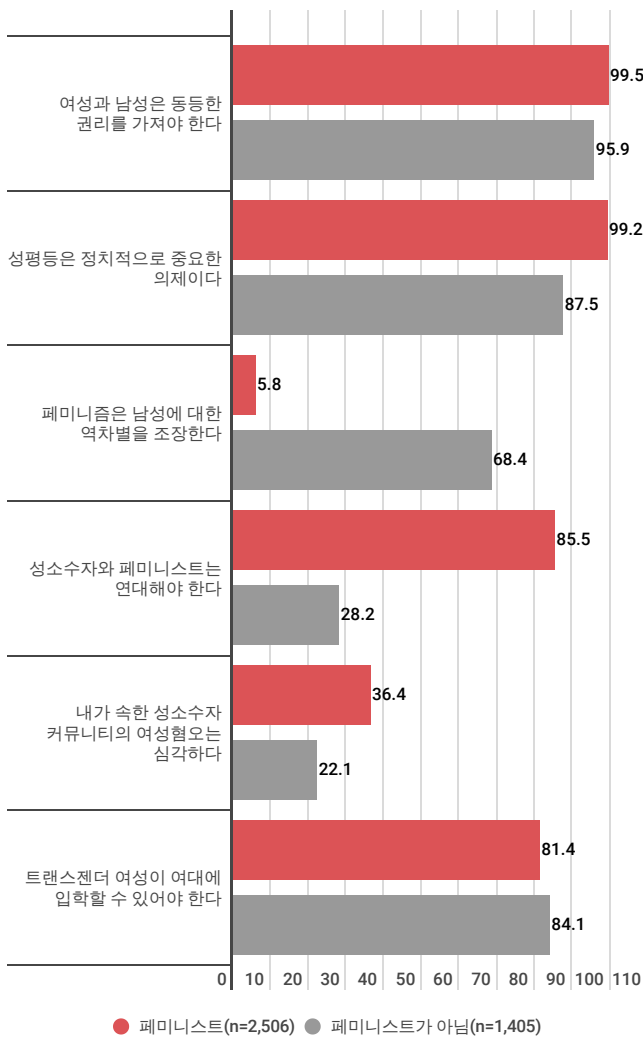


그림 44. 페미니즘 관련 의제별 동의 비율

10 코로나19

코로나19에 대한 걱정



63.2%

역학조사로 아웃팅이 될까 걱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이하 '코로나19')에 관련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먼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내가 확진 환자가 될까봐 두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4.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내가 확진 환자가 될 경우 그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6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주변의 비난이나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걱정보다는 자신이 확진 환자가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섹슈얼(+15.7%), 레즈비언(+8.4%), 논바이너리/젠더퀴어(+6.3%)에서는 자신이 감염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게 나타났지만, 게이(-1.7%)와 트랜스남성(-1.6%)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자체보다 주변으로부터의 비난이나 피해를 걱정하는 응답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 이태원에서 발생한 게이 클럽 집단 감염 사태 및 그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와 사회적 낙인, 실제 게이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아웃팅 피해 등으로 인한 차이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이 꼽은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한 코로나19로 인한 걱정이나 스트레스로는 '역학조사로 성소수자 정체성이 원치 않게 밝혀지는 것'(63.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42.4%), 이태원 등 '성소수자 공간이 대중적으로 노출되는 것'(37.3%)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53.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걱정

단위: %	내가 확진환자가 될까봐 두렵다	주변으로부터 비난이나 피해를 받을까봐 두렵다
전체(n=3,911)	64.6	61.2
레즈비언(n=641)	65.8	57.4
게이(n=1,207)	60.1	61.8
바이섹슈얼 여성(n=832)	67.7	64.5
바이섹슈얼 남성(n=200)	60.0	57.0
퀴어(n=150)	66.7	60.7
에이섹슈얼(n=140)	69.3	53.6
트랜스여성(n=109)	64.2	63.3
트랜스남성(n=62)	58.1	59.7
논바이너리/젠더퀴어(n=569)	68.7	62.4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게 한 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합친 응답 비율

표 54.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로 걱정되는 것

단위: %	그렇다
역학조사로 성소수자 정체성이 원치 않게 밝혀지는 것	63.2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낙인과 차별을 경험하는 것	42.4
이태원 등 성소수자 공간이 대중적으로 노출되는 것	37.3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빈도가 늘어나는 것	14.7
가정 폭력(부모, 형제 등)이 심해지는 것	3.7
애인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이 심해지는 것	1.0
기타	8.8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57.6%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응답자들 중 85.1%가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 지인 및 커뮤니티와의 관계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57.6%), '오프라인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39.9%), '성소수자 관련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다'(32.4%),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줄어들었다'(21.4%)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표 55. 코로나19로 인한 커뮤니티의 변화

단위: %, 복수응답	그렇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졌다	57.6
오프라인 모임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다	39.9
성소수자 관련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었다	32.4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이 줄어들었다	21.4
활동하던 모임이 활동이 저조해지거나 해산하였다	19.6
변화한 게 없다	14.9
가까운 지인 및 애인과 더 자주 만난다	14.3
줌(zoom), 디스코드 등 비대면 사적모임이 늘었다	13.7
자주 가던 성소수자 업소가 사라졌다	12.1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많아졌다	8.1
성소수자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참여가 쉬워졌다	7.4
기타	1.1

'게이 클럽'이라는 낙인

2020년 5월 초, 이태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자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게이 클럽에 다녀갔다는 점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이러한 낙인찍기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지만,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성소수자들은 아웃팅과 그로 인한 여러 차별을 경험해야만 했다.

인터넷에 막 'OO 수면방' 이런 식으로 막 뜨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뜨는 걸 보고 약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발가벗겨진 느낌.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건 아니지만, 뭔가 발가벗겨진 남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런데 또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 개인들이 겪은 일이잖아요. 좀 서글픈 마음이 좀 있긴 있었죠. 도매금으로 '이 음란한 놈들. 기름 붓고 불태워야 할 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깐 뭔가 좀 서글프다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더라구요. (참여자 27, 시스젠더 남성 게이, 25세)

꼭 그런 그 사건만이 아니라도 사람들 반응이, 성소수자가 범죄를 저지른 기사 같은 게 하나 좀 화제가 됐다 이러면은 그 기회에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도 좀 엄청 비하하는 단어로 그 게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집단 감염하고 상관없는 것까지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사람이 많아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참여자 31, 트랜스젠더 남성 무성애자, 28세)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언론에서는 게이 클럽이란 걸 많이 부각시켰지만 그게 골자가 아닌데. 그리고 당연히 방역 관련해서 방해를 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긴 하겠으나 포커스가 다른 데 너무 과도하게 몰렸더라는 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광기를 느꼈어요. 마녀사냥하는 느낌이 들어서. 인민재판 이라고 해야 하나. 저도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죠 집에서 잘 안 나왔고.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거리두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오프라인 기반의 다양한 친목 모임과 상업시설, 문화행사 등은 오랜 기간 운영을 중지해야만 했고, 대학교 내 성소수자 모임 등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활동 규모가 매우 줄어드는 등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는 일상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가혹한 변화였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들은 성소수자 행사가 점차 온라인 개최로 전환됨에 따라 참여 기회가 늘어난 점을 반기기도 했다.

그전에 약간 친목모임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이쪽에서, 그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서로 만나기 힘든데, 만남에 있어서 플랫폼에 제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약이 좀 많이 있어서. 단톡으로 한 15명 정도 있었고, 그냥 맛집이나 술집들도 가고 샵샵 먹으러 가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관계 형성도 어렵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어렵죠. (다른 성소수자를 만날 때 두려움을) 엄청 느꼈죠. 이게 코로나 자체에 걸려 가지고 질병적 측면보다 그렇게 낙인 찍히는 게 훨씬 더 무서웠어요. 성소수자인게 드러나고... (참여자 44, 시스젠더 남성 게이, 28세)

코로나가 사실 가장 큰 게 쿼퍼를 비롯한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이나 지향성,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불안이나 소속감을 나름대로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역 단계로도 연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되게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스스로도 좀 그 불안을 가지고 있고. (참여자 1, 에이젠더 에이엠브렐라, 2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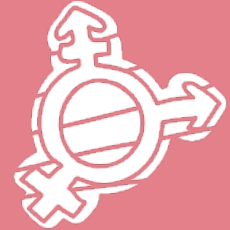
저희 동아리가 해체하게 된 데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코로나 시국에 모이기 어려운 게 다들 전국 각지에 살고 외국에 살고 막 이러니까 모임 수가 없잖아요. 행사 같은 것도 하기 어렵고 더 이상 어떤 만남의 구심점들이 생기기 어렵고. (참여자 13, 논바이너리 게이, 23세)

일단 비대면을 굉장히 많이 한다면 저는 좋아요. 어디 돌아다녀서 행사를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한참 저는 행사를 많이 돌아다닐 시절에 그냥 제가 어딜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거든요. '아니 이거를 왜 거기 왜 이 지역에서만 하지 다른 데서도 좀 해주면 안 되나 한 번은 올 만하지 않나' 약간 그런. 그래서 코로나 이거 하면서 그런 이동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아무튼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다양한 걸 제공해 주잖아요. (참여자 10, 시스젠더 여성 레즈비언, 27세)

11 결론 및 함의

01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



- 청년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다양해짐

본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응답자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과거 다른 조사들에 비해 다채로워졌다는 것이다. 흔히 전통적인 성소수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뿐만 아니라 범성애(팬섹슈얼), 퀴어, 무성애(에이섹슈얼), 논바이너리와 젠더퀴어 등 성소수자 정체성의 다양한 분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

2014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실시한 '한국 LGBT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참여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분포를 살펴보면 시스템더가 90.2%, 트랜스젠더가 5.8%, 논바이너리가 4.0%를 차지했다. 성적지향은 동성애(레즈비언, 게이)가 58.5%, 양성애(바이섹슈얼)가 34.7%, 이성애가 3.3%를 차지한 가운데 범성애(팬섹슈얼)는 2.3%, 무성애(에이섹슈얼)는 0.7%, 기타(직접입력)는 0.5%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 조사의 경우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비율이 14.6%로 대폭 상승했으며, 범성애(팬섹슈얼) 10.8%, 무성애(에이섹슈얼) 7.3%, 퀴어 5.5%, 기타(직접입력) 2.7% 등 LGBT 이외의 정체화를 따르는 응답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전통적인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범주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스스로 정체화하는 젊은 세대의 등장은 한국만의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최근 해외 연구들도 유사하게 10대와 20대의 젊은 성소수자들이 팬섹슈얼이나 논바이너리, 에이섹슈얼 등 전통적인 LGBT 범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정체화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 본 조사의 참여자 분포를 자세히 살펴보려면 3장 조사참여자의 분포와 특성을 참고할 것.

- 응답자 중 논바이너리/젠더퀴어 14.6%, 팬섹슈얼 10.8%, 에이섹슈얼 7.3%, 퀴어 5.5% 등

'전미 10대 LGBTQ 조사 *LGBTQ National Teen Survey*'에는 만 13세부터 만 17세의 청소년 성소수자 17,112명이 참여했는데, 비전통적인 성적지향으로 팬섹슈얼이 13.2%, 퀴어가 4.1%, 에이섹슈얼이 4.2%, 퀘스처닝이 2.5%, 기타(직접입력)가 2.1%, 비전통적인 성별정체성으로 논바이너리가 23.7%를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인터넷 매체의 발전으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기존보다 더 쉽게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높아진 것에 비례하여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갤럽 조사 결과 스스로 성소수자로 정체화하는 인구가 2012년 3.5%에서 2021년 7.1%까지 상승했고, 'Z 세대'로 불리는 1997년생부터 2003년생 사이에서는 스스로 LGBT 또는 그밖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이들의 비율이 20.8%까지 늘어났다. 특히 바이섹슈얼과 팬섹슈얼로의 정체화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소수자 정체성의 다양화는 향후 성소수자 대상 연구조사는 물론 커뮤니티와 법제도 차원 모두에서 복잡다단하고 새로운 필요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 Watson, R. J., Wheldon, C. W., & Puhl, R. M. (2020). Evidence of Diverse Identities in a Large National Sample of Sexual and Gender Minority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0, 431-442.

*** Jones, Eva M. (2018). The Kids Are Queer: The Rise of Post Millennial American Queer Identification. in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Americans at Risk: Problems and Solutions*. Praeger.

**** Jones, Jeffrey M. (Feb 17, 2022). "LGBT Identification in U.S. Ticks Up to 7.1%." Gallup. (<https://news.gallup.com/poll/389792/lgbt-identification-ticks-up.aspx>)

02

두렵지만 하고 싶은 커밍아웃



- 성소수자로서의 '나'를 일상 속에서 드러내도 괜찮은 사회를 바람
- 직장인 응답자의 61.6%는 일터에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바람'

방송인 홍석천과 하리수의 커밍아웃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다. 커밍아웃을 하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혐오적인 반응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상당히 크다. 정체화 과정에서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83.9%,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걱정된다는 응답이 82.4%를 차지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에게도 가장 큰 걱정은 '신분 노출 등 아웃팅의 위험'(45.9%)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역학조사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 등으로 인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아웃팅'에 대한 불안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소수자에게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은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응답자의 88.2%는 '내가 성소수자인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만 하는 현실은 많은 청년 성소수자에게 괴롭고도 지겨운 일일 수밖에 없다. 직장생활을 잘하는데 성소수자로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약 61.6%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꼽은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다.

- '정체성을 드러내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한다는 비율, 2014년 10.8%에서 2021년 26.2%로 상승

차별과 폭력을 수반하는 정체성의 노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년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더욱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용한다'는 응답이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서는 10.8%에 불과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26.2%로 늘어났다.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불관용, 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70.0%는 긍정적인 변화의 요인으로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를 꼽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커밍아웃, 또는 정체성의 노출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자 하는 욕구 속에서 이것이 변화를 추동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03

모두에게 안전한 커뮤니티



- 청년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교류하고 '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함

가족이나 학교, 직장 등에서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운 청년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찾아 참여하고자 한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많은 이들에게 단순히 친교를 위한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응답자들이 꼽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기대로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간의 친교(68.0%), 내 정체성을 드러내도 안전한 공간(57.3%),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38.7%),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유통(35.6%)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나'로 존재해도 괜찮은 안전한 공간이며, 정체성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응답자의 75.4%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서(16.7%), 성소수자 중에서도 비주류인 정체성 때문에 배척받을까봐 두려움(14.9%), HIV/AIDS 감염인에 대한 낙인 때문에(2.8%) 등 적지 않은 이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도 여러 위험과 배제가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트랜스남성(36.0%)과 트랜스여성(29.4%), 논바이너리/젠더퀴어(39.5%),

-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도 비주류 정체성에 대한 배척 등이 존재하고, 페미니즘을 둘러싼 갈등 또한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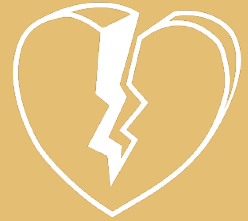
에이섹슈얼(35.8%)은 비주류인 정체성에 대한 배제를 크게 체감했고, 바이섹슈얼 남성은 상대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23.8%). 이는 신분 노출 등 아웃팅의 위험에 대한 걱정이 이들에게서 크기 때문으로 추측된다(66.9%).

최근 이른바 '남녀 갈등'이 확산되고, 일부 페미니스트의 트랜스혐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답한 응답자의 36.4%는 자신이 속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또, '트랜스여성이 여대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답한 응답자의 81.4%,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의 84.1%가 '동의한다'고 답해 두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고, 일부 성소수자 당사자들 또한 트랜스여성의 여대 입학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바라고 기대하는 바와 달리 커뮤니티 안에 여러 배제와 갈등이 다스려 존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상대적으로 비주류의 정체성을 지닌 이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함께 어울리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04

일상 속 차별과 혐오



• 많은 청년 성소수자는 일상 속에서 크고작은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함

앞선 결과에서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도 존중받는 환경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 이유로 자신의 정체성을 사회적 약점으로 인지하고 아웃팅의 위험을 의식한다는 점이 있었다.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일종의 약점으로 인지하면서 아웃팅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은 일상 영역에서의 반복적인 차별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결과일 수 있다.

응답자 중 33.6%가 최근 1년 간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트랜스남성의 71%, 트랜스여성의 68.8%는 다른 성별정체성보다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의 비중이 두 배 가량 높았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 응답자는 높은 비율(85.2%)로 최근 1년 간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화장실, 구직 과정,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차별 경험이 주로 보고되었다. 사회 전반에 공고한 성별이분법적 사고와 구조가 일상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 차별 사례가 누적되면서 청년 성소수자의 커밍아웃은 더욱 어려워지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화가 더욱 문제시되지 않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음

청년 성소수자가 주로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에서 차별 경험이 높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하다. 학생의 32.4%가 대학(원), 취업자의 26.8%가 직장, 무직/주부/구직 중인 자 중 20%가 구직 과정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대학(원), 직장, 구직 과정은 취업 상태에 따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공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치고 경험하는 공간에서의 차별 사례는 단지 차별 피해자 한 명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별을 우려하는 청년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게 되고, 성소수자의 비가시화와 함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효과가 생겨난다. 성소수자 개개인이 개입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점점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차별 경험과 혐오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05

차별을 방관하는 국가



• 차별을 당해도 많은 청년 성소수자는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고 있음

청년 성소수자들의 일상 속 차별 경험이 높다는 결과가 더욱 문제적인 것은 차별의 해결과 피해 구제가 개인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차별을 경험한 사람 중 85.7%나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신고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서'(53.0%),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53.0%), '내가 성소수자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38.6%),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서'(28.6%) 등이다. 청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우리 사회가 자신이 겪은 차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차별을 신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로서 본인을 드러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유추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 그래서 성소수자는 차별을 겪어도 신고하지 않고 그저 혼자서 앓을 뿐이다.

“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단지 직장과 학교 등의 공간 내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고 차별 시정을 지원하는 자원이 부재하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가 문제인 셈이다. 설문참여자의 거의 대부분은 국회와 정부, 사법부 모두가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았다.

•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공적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진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낮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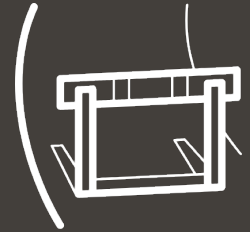
국가기관이 성소수자 차별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시정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처럼 성소수자 차별을 방관하는 공권력은 그 효과로서 성소수자가 입을 피해를 개인화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불신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더불어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받은 조직이 이를 쉽게 거부할 수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송실대학교의 경우 2018년과 2020년에 학내 성소수자 차별 문제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대학 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어긋난다며 불수용 입장을 고수한 바가 있다.

청년 성소수자의 60.3%는 가장 중요한 성소수자 관련 정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꼽았다. 이는 성소수자로서 겪는 계속된 차별, 그리고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해결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06

더 높은 구직의 벽



- 성소수자 정체성은 직업 선택과 구직 과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문턱으로 작용함

성소수자 정체성은 청년 성소수자의 직업 선택 및 구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26.7%가 구직에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스젠더에 비해 트랜스젠더(트랜스여성 62.9%, 트랜스남성 60.7%) 응답자들에게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면접참여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현실 속에서 마주해온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내면화하여 특정 직업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른 복장/유니폼, 두발 규정이 있는 직업은 재고의 여지 없이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HIV 감염인 응답자들에게는 병적(兵籍) 사항으로 인한 고용 차별과, 취직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는 병력정보의 공개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청년 성소수자들의 구직 선호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누적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어려움은 응답자들의 구직 선호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시스젠더 여성 응답자의 경우 '여성이 많은 직장(57.9%)'을, 시스젠더 남성 응답자의 경우 '다양성이 존중되는 직장(36.1%)'을 가장 선호하였다.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경우 '복장/두발 자율성이 보장되는 직장', '성별에 따른 유니폼이 없는 직장',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장' 등 성별정체성에 구애받지 않는 직장을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질적 악화, 구조적 불안정성이라는 청년세대 공통의 고충 외에도, 성소수자 청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수반된 차별로 인한 특수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이 어려움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과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성소수자 청년의 선택지를 좁혀 좌절과 포기를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다.

07

직장에서의 이중생활



-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노력함

노동 환경에서 성소수자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어렵사리 협소한 구직과정을 통과한 후, 직장생활에서도 성소수자 청년들은 고유한 어려움을 겪었다. 급여를 받으며 고용되어 있는 응답자 1,371명 중 73.3%가 직장에서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숨기거나 속였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직장에서 정체성을 은폐하거나 적극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응답자의 42.5%는 직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경험했으며, 20.7%는 동료가 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하는 것을 듣거나 보았고, 12.3%는 본인의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언행을 경험했다. 성소수자 청년들이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려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이중생활'은 성소수자 청년들에게 큰 스트레스이자 직업적 역량 발휘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 일터에서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청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을 위험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음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직장에서 드러낸 여부와 무관하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52.3%) 및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조심하면서 겪는 스트레스(51.3%)를 겪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와 위축으로 인해 되도록 업무 이외의 직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51.0%), 상사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가급적 따르고(46.3%) 있었다. 직장인 응답자의 42.1%는 이직을 고민하였고, 37.6%는 직장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근무하는 직장 내에 성소수자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았지만, 69.5%가 관련 정책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이들이 성소수자로서 직장생활을 잘 하는 데 필요로 하는 직장 내 요소로 '커밍아웃할 수 있는 분위기'(61.6%),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 존재'(49.5%), 그리고 '직장 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36.9%)를 꼽았다.



08

노동시장 진입부터 어려운 트랜스젠더

-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의 차별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 속에서 어떤 종류의 직업은 진작부터 포기하는 결정을 내림

청년 성소수자들은 다른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구직과 취업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많은 청년 성소수자가 직장 내에서는 물론 구직 과정에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떠한 취업 기회는 일찍이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트랜스젠더가 구직 과정 및 직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매우 크다.

구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 전체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 구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이들은 26.7%였는데, 트랜스여성은 62.9%, 트랜스남성은 60.7%로 평균의 두 배를 상회했다. 논바이너리/젠더퀴어 응답자도 42.5%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많은 트랜스젠더는 구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여성의 69.1%, 트랜스남성의 66.7%는 구직 과정에서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점으로 인해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트랜스여성의 17.9%는 트랜스젠더라는 점으로 인해 입사가 취소되거나 채용이 거부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도 특정 직장에 지원하기를 포기하거나, 신상 정보가 담긴 지원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주민등록번호에 제시된 성별과 외모, 성별표현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상한 시선을 받는 등 트랜스젠더의 구직 과정은 다양한 어려움으로 가득차 있다.

- 이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거나 드러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직장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높은 수치는 그만큼 한국 사회와 노동 환경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줌

트랜스젠더 응답자들은 혼자 일할 수 있는 직장이나 성별에 따른 유니폼이 없는 직장,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직장, 고향 친구나 동창 등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는 직장,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장, 객관적 자격(시험이나 자격증)을 중시하는 직업 등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선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 가운데 트랜스여성의 고용상태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과 비교해보면,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 또는 일용직,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다른 이들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미래전망에서도 트랜스여성은 다른 청년 성소수자에 비해 몹시 부정적인 편이었다.

09

불가피한 독립



- 청년 성소수자들은 이른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 살기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성소수자라는 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침

청년 성소수자 평균적인 독립시기는 21.8세로, 꽤 이른 나이에 부모 및 가족으로부터 주거상 독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독립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1,784명)들 중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이 독립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는 34%에 달했다. 성별정체성의 경우 이 영향이 상당히 컸는데, 트랜스여성의 경우 62.3%가, 트랜스남성의 경우 54.2%가 독립을 결정하는데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독립에 있어 성소수자 정체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숨기는 것이 어려워 자유롭게 연애하기 위해서(49.9%), 귀어임이 드러날 수 있는 물품을 숨기기 싫어서(33.3%), 커밍아웃을 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서(31.8), 이성과의 연애나 결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괴로워서(22.7%), 성별표현을 위한 각종 물건들을 숨기기 어려워(17.5%), 그리고 커밍아웃/아웃팅 이후 부모 또는 형제와의 갈등(15.7%)과 폭력적인 언행 때문에(6.6%) 독립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 성소수자들은 불가피하게 자신만의 오롯한 삶을 꾸리기 위해 원가족을 떠나는 결정을 내림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응답자 중 독립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1,591명 중 자신이 성소수자인 점이 독립을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63.2%으로, 이미 독립한 청년 성소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독립을 고려하게 된 이유와 양상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청년들의 이른 독립과 높은 독립 지향의 배경에는 자신의 안전과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성소수자 청년들에게 독립은 “1인 가구”라는 인구정책상 표지에 그치지 않는 문제였다. 이는 성소수자 청년들에게 안전한 가정 환경을 제공하고, 가족의 부정적 영향 및 심지어는 폭력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10 위기의 건강상태



• 청년 성소수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과 심리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사람의 건강은 실로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여있는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폐를 상하게 하듯, 자신이 속한 환경과 사회에서 생활하며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청년들의 주관적 건강 상태와 정신 건강이 또래 청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청년 집단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4.28, 2019년 「한국복지패널」의 19~34세 주관적 건강 상태 평균은 4.09인데 반해, 본 조사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 상태는 전체 평균 3.3으로 보고되었다. 이들 중 시스젠더 남성의 주관적 건강 상태가 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시스젠더 여성이 3.2, 트랜스남성 3.1, 논바이너리/젠더퀴어 3.0, 트랜스여성 2.9 순으로, 정체성별 차이를 보였다. 우울증 척도(CES-D)를 통해 확인한 정신 건강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49.8%가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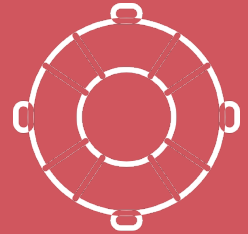
•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문제는 이들이 처해있는 사회적 환경을 되돌아보게 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한 건강 관련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줌

주관적 건강 상태 지표가 현재 건강 상태 및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청년 성소수자들은 현재 한국 청년 평균 대비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며 사망률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은 심각한 반면, 한국에서 성소수자 건강 연구는 이제 막 태동하였으며 정책적 개입은 전무한 상황이다. 성소수자 청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이 연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 우혜경, & 문옥륜. (2008).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사망률 차이. 보건행정학회지, 18(4), 49-65; 최요한. (2016). 주관적 건강인식은 실제 건강상태의 유효한 대리변수인가: 주관적 건강상태(SRH)과 주관적 건강변화상태(SACH)의 비교. 보건사회연구, 36(4), 431-459.

11

심각한 자살위험



-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그 중에서도 청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만연한 차별과 혐오 속에서 매순간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

청년 성소수자의 건강 및 심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파악된 가운데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41.5%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이 있으며, 8.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한국복지패널(2020)이나 국민건강영양조사(2019)의 만 19세~만 34세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거의 열 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응답 수치가 심상치 않다. 트랜스여성의 58.7%, 트랜스남성의 59.7%, 논바이너리/젠더퀴어의 62.9%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응답 또한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트랜스여성 응답자들 가운데 20.2%는 최근 1년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청년 성소수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각고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최근에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온오프라인 상의 혐오표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이름이 알려진 여러 트랜스젠더가 세상을 떠나는 등 트랜스젠더의 자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지점 중에서도 제일 앞자리에 위치한 것 같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국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다. 10대와 20대의 자살률은 기록적인 수준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부정적인 경향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 성소수자들은 다른 청년들에 비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져 있는 것이다.

12

역학조사의 두려움



• 코로나19 초기에 실시된 엄격한 역학조사는 많은 청년 성소수자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줌

성정체성이 원치 않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전체 응답자의 63%가 '역학조사로 성소수자 정체성이 원치 않게 밝혀지는 것'을 꼽았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에서 엄격한 동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동선에서 만난 사람과 공간이 성소수자이거나 성소수자 상업시설 등일 경우 확진자의 지인과 일터의 동료들이 그 사람의 성정체성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성소수자들의 두려움이 무척 컸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 5월 초중순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는 성소수자들에게 크나큰 두려움과 상처를 남겼다.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일부 언론에서는 이 게이클럽의 이름, 위치와 특성 등을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특히 게이를 비난하는 여론이 조성되었다. 당시 확진되었던 성소수자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정체성이 알려질 위기에 처했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 해당 사건에 관해 다수의 면접참여자가 두려움, 슬픔, 분노를 느꼈다고 진술했다.

•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건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이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수 있고, 직접적인 공포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당시 성소수자 인권단체(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가 악의적인 언론보도를 비판하며 정부에는 익명조사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이것이 받아들여졌다. 이를 바탕으로 확진되거나 밀접접촉한 성소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면서 상황이 호전됐다. 그러나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소수자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13 한국에서 못 살겠다



- 전반적으로 성소수자로서 한국 사회에서 살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2014년 조사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해짐

97.1%의 청년 성소수자들이 '한국은 성소수자가 살기 안 좋다'고 응답하였다. 심지어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와 비교하면 부정적 견해가 상승하였으며 '매우 안 좋다'는 응답이 17%나 증가하였다.

거의 모든 응답자로부터 '한국에서 못 살겠다'는 답변이 모아진 데에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권력 기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거나 시정하기는 커녕 조장한다는 평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집단(조직)으로는 군대(91.4%), 국회(89.0%), 정부(88.4%), 국민의힘(83.1%), 사법부(82.4%), 경찰(82.3%), 언론매체(79.9%), 더불어민주당(71.9%)가 꼽혔다. 2014년에 비해 이들 집단(조직) 모두가 성소수자에게 비우호적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아졌다.

2014년 이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새누리당)은 여당과 야당을 번갈아 수행하였다. 두 당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대립구도를 이어갔으나, 성소수자 권리 증진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두 당에 가지는 기대가 다를지언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성소수자가 살아가기에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했고, 그 실현 의지조차 미약했다는 평가가 설문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우호도는

- 제도정치권에 대한 청년 성소수자의 불신은 매우 컸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일삼는 미디어와 보수 개신교 집단에 대한 분노도 크게 나타남

2014년에 비해 20퍼센트포인트 이상 늘어나면서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 5년 간 여당으로서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어떠한 정치적 노력도 쏟지 않은 채 '사회적 합의'란 말 뒤에 숨어 책임을 방기한 결과가 반영된 셈이다.

우리 사회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주된 이유로는 '종교 단체의 조직적인 반대'(62.7%)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미디어의 부정적 보도 증가'(50.5%), '정치인 및 정당의 모욕적인 언행'(33.7%)가 뒤를 이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요소이다. 보수 개신교의 무분별한 성소수자 혐오는 미디어를 통해 증폭되고, 정치권은 받아쓰면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청년 성소수자의 목소리는 이들 사이에서 사실상 들리지 않고 있다. 조사참여자들은 마치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 맞는가?"

* 뉴스앤조이. (2018.10.13). "'가짜 뉴스' 나팔수 자처한 기독교 언론들."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346>

14

가족구성권에 대한 열망



- 청년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음

전체 응답자 중 약 95%가 동성결혼 또는 생활동반자 제도 중 최소 하나 이상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1인가구가 늘어나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혼인 건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때문에 현재 청년세대는 결혼이나 가족결합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반면 본 조사에서는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성소수자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 세 가지를 꼽으면 무엇이냐는 질문에서도 2, 3위로 나온 것이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결혼 인정'(42.5%)과 '결혼이 아닌 동성커플을 위한 파트너 관계 법적 인정'(38%)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청년 성소수자에 한해서는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 구성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이 미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이성애자 중 52.6%가 생활동반자법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에서 생각해볼 수 있듯이, 파트너십이 꼭 성애를 기반으로 한 결합이 의미하지만 않는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전통적인 의미의 결혼을 넘어 더 다양한 결합관계를 위한 제도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파트너십에 대한 욕구는 꼭 성애적인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족구성권이라는 문제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한편 다양한 가족구성권 이전에 청년 성소수자들의 결혼제도에 대한 욕구 또한 낮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살펴봐야 한다. 결혼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면접참여자들은 동성결혼의 인정이 성소수자들에게 사회적으로 큰 상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15

차별 없는 사회, 평등한 시민권



• 청년 성소수자는 차별 없는 사회,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바람

성소수자로서 한국 사회에 어떤 점을 바라는 주관식 질문에 많은 응답자가 차별 없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앞선 함의들에서도 충분히 언급되었지만, 결국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온전하게,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구성원이 될 권리 말이다. 성소수자들은 교육, 시장, 행정, 입법, 사법, 종교, 의료, 군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다.

사회적 집단과 공공기관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비우호적인가 묻는 질문에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았던 점, 그리고 차별받았을 때 어디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의 사유로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 같아서”(53%), “신고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서(항상 일어나는 일이니까)”(53%)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동성에게 끌리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람을 제외했을 때, 폭력, 위협, 괴롭힘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동성 파트너와의 스킨십을 꺼린다고 답변한 비율 또한 77.3%에 달했다. 성소수자가 도대체 어떤 차별을 겪느냐며 반문하는 이들이 이제는 응답할 차례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작에 불과하며,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이들이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시작되어야 함

반복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맞서, 청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오롯이 드러내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바란다. 이런 맥락에서 설문참여자의 대부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장한 시급한 정책으로 꼽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밖에도 청년 성소수자들이 바라는 정책적, 제도적 변화는 성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나아가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이 당연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종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적 변화 또한 필수적이다.

12 제언

조사 결과와 함의를 바탕으로 다음은 아래의 열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변화가 필요한 요소는 무궁무진하나, 그중에서도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추려서 변화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향후 다음의 활동도 아래의 제언을 바탕으로 힘차게 이어갈 예정이다.

청년 성소수자는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전반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청년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가 성소수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공통적으로 응답하면서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참여자들은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성소수자 친화적인 미디어 환경, 성소수자 포괄적인 성교육, 군형법 추행죄 폐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관련 제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법제도적 변화에 대한 큰 관심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든 변화보다 중요한 변화로 꼽힌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며, 면접조사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은 마치 차별금지법이 다른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의 선결 조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있어서 성소수자 차별 및 인권 제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이슈로 수렴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그밖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정책 변화의 첫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설문참여자 가운데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고, 그 주된 장소가 직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성소수자들의 정치적 욕구와 필요가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이 청년 이슈로 인식되지는 못한 것이 사실이다. 청년 정책이나 청년 이슈가 주로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문제로 수렴되거나 '젠더 갈등'으로 이슈화되는 가운데 청년

성소수자가 직장이나 학교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은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성소수자에 국한된 특수한 문제이자 논의가 불필요한 영역으로 정치권에서 여겨졌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법무부에서 제안된 이후 오랜 시간동안 보수 개신교 집단의 조직적 반대로 수차례 좌절되어 왔으며, 정치권은 언제나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입법 시도를 거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겨레>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여성의 85%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년 성소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

* 한겨레. "'스윙보터 20대, 싸늘한 대선 관망...주요 이슈 남-여 괴리 커." 2021.11.29.

동성혼과 대안적 가족구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여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 또한 졸업과 취직, 보금자리 마련, 원가족을 벗어나 자신만의 가족(공동체) 구성 등 청년기의 생애주기 과업들을 수행한다. 그러나 성소수자 청년들은 보통의 청년들이 짊어진 짐에 더해 자신이 꾸릴 가정이 법과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며, 사회초년기에 필요한 공적 지원이 기혼, 이성애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별을 경험한다.

본 조사의 결과, 파트너십에 대한 청년 성소수자들의 높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그 욕구가 결혼제도의 평등이고, 누군가에게는 결혼이 아닌 형태의 생활공동체 형성이다. 요즘 청년들이 가족 구성에 대한 욕구가 더 낮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지극히 '이성애' '결혼' 중심의 결합에 기반한 전통적 관점에 기인해서는 아닐까?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 구성에 대한 욕구를 묻는 질문이 아닌, 사회적 환경의 개선 없이 이성애중심적인 '결혼'과 '출산'을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청년들은 'No'라고 답한 건 아닐지 우리는 한 발 물러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 '결혼 제도'가, 혹은 '가족구성권'이 왜 필요한지 원초적인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 돌보고 챙기며 함께 살아갈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동성결혼과 대안적 가족구성을 요구할 때, 우리는 '청년 성소수자들의 욕구와 요구'라는 답을 넘어서 그것이 당연한 '제도적 평등'이자 돌봄과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자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고 싶다.

진정 청년 성소수자의 안녕과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길 바라다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고 평등한 결혼-결합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포괄적인 교육으로 편견을 종식하라

본 조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일상 속 성소수자들의 가시화가 꼽힌 것과 같이 성소수자가 일상에서 드러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 개개인들의 실천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동등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노력은 공교육이 맡아야 할 사회적 역할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는 변화 중 성소수자 포괄적인 교육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성소수자 배제적이고 학내 성소수자 혐오적 문화가 만연하다고 보고한다. 성소수자에 배제적인 교육은 성소수자가 마치 잘못된 존재이거나 '비정상'이라는 편견을

재생산하고,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를 축소시키면서 사회적 차별을 공고화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공교육은 각 개인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재의 차별적인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진행함은 물론,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임을 알려주는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교육과정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교 공동체에서 성소수자가 동료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실 문화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 성소수자 당사자에게도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대부분 성소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청소년 시기에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성정체성을 탐색할 때 교사나 상담사에 의지한다는 비율이 0.1%였다는 점에서 드러나듯, 학교 현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체화의 고민을 거듭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은 오로지 개인이 감당할 몫이 된다. 성소수자가 배제되지 않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학교에서 정체성을 안전하게 탐색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하여 때로는 혐오와 차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점은 애석한 일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교사들의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 또한 제고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성소수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교육은 학교 현장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와 편견은 이미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고,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직장에서부터 서비스, 행정 등의 공공기관 등 여러 공동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성소수자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늘려나가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공적 영역의 감수성과 역량을 강화하라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많은 청년 성소수자들은 학교와 직장 등 일상에서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만 이를 신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여타의 노력을 이어가지는 않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응답자들 가운데는 이러한 차별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하기에 굳이 신고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문제는 실제로 신고를 했을 때 학교나 직장은 물론 경찰 등 공적 영역의 시정기관마저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진지한 차별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뭐 이런 걸 신고하느냐"는 반응은 성소수자라는 존재가 다소 희화화된 방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혐오의 한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성소수자 차별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 성소수자들은 반복되는 차별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건강 및 심리상태 또한 악화되어 자살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며, 일자리를 구하거나 취업 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와 직장에서 경험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교육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최근에는 퀴어문화축제 개최 등 계기를 통해 경찰 등 조직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고, 일터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성 가이드라인」*이 2018년에 배포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들을 더욱 가속화하여 성소수자가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를 공적 절차를 통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 SOGI법정책연구회. (2018).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http://diverseguide.org/>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라

차별금지법과 더불어 중요하고 시급한 변화로는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집단이다. 생애주기별로 보면 이는 가족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가꾸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청년 성소수자의 많은 이들은 구직 과정과 직장에서 단지 성소수자라는 점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다양한 혐오 발언 및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가운데 많은 부분이 고용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정책에 있어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트랜스젠더 청년들은 구직 과정에서부터 선택권을 제한받는 경우가 많으며, 구직과 직장 내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또,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 당시 성소수자 확진자들이 아웃팅을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일터에서 혐오 발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으나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은 제대로 파악되지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가령 기업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채용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며, 차별금지를 명시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며, 성소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성소수자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017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기업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포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것이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7. Tackling Discrimination against Lesbian, Gay, Bi, Trans, & Intersex People: Standard of Conduct for Business: At a Glance. [『성소수자 친화적 직장을 만들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에 부록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음. <http://diverseguide.org/code-of-conduct-summary/>]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및 상담체계를 구축하라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즉, 청년 문제로서 자살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집단의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 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행복도 지표 또한 일반 청년에 비해 청년 성소수자 집단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청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정신건강 이슈를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청년 정책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한 만남이 단절되는 등 청년 성소수자의 고립감이 커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정신건강의 부정적 변화 가능성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성소수자를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근본적으로는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로서 차별과 낙인 없이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 성소수자들 가운데 많은 수는 의료기관이 성소수자에게 전반적으로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및 상담시설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상당수의 청년 성소수자가 필요한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담사를 만난 청년 성소수자는 사회적 차별과 혐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길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또, HIV/AIDS 감염인의 경우 노골적인 치료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 및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시급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자살예방에 있어 트랜스젠더에 관련한 정책과 역량, 활동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연합뉴스. (2021.09.28.) “한국 자살률 OECD 1위...20대 여성·10대 남성 크게 늘어.”

** 한겨레. (2017.02.24.) “동성애자에 ‘치료 받으라’...어이없는 상담가.”

***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2016). HIV/AIDS감염인 의료차별/진료거부 실태조사.

성소수자가 아닌 군대 문화를 전환하라

2020년 고 변희수 하사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이래로 군대가 성소수자 군인을 어떻게 수용하고 포용할 것인지 질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청년 성소수자에게 군대는 어떤 곳일까? 군대가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라도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했다. 또한 성소수자로서 겪은 군복무의 어려웠던 점으로 “성소수자 비하적인 발언과 이를 용인하는 문화”(57%), “성소수자 정체성이 알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53.6%)이 주로 꼽혔다. 외모가 여성적으로 더 인식되는 군경험자들이 겪은 성희롱·성폭력 경험 사례가 조금 더 많았고, 성소수자로서 차별받은

사례들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당연히 군대에는 성소수자도 존재하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요받는다.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때보다 차별과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군대는 이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비하를 용인하는 문화를 방치하고 있고, 성소수자 군인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군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아닌 성소수자 군인 개인을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10월,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국방부의 강제전역 처분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22년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를 순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균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로 기소당했던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하여 대법원은 최근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이 세 건의 전향적인 결정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아선 안 된다는 전제에서 도출되었다. 이제 국방부 역시 바뀌어야 하는 때가 왔다.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성소수자 군인 동료를 포용할 수 있는 군대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시점이다.

모두가 안전한 커뮤니티, 우리 함께 만들어요

한국 사회가 보다 성소수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일상 속 성소수자의 가시화가 이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듯 청년 성소수자들에게 커밍아웃은 여전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과제와도 같다. 즉, 커밍아웃은 단순히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확인의 과정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직장 내에서 가장 필요한 변화로 조사참여자들이 꼽은 것이 자유롭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인 것이 의미하듯 내가 나서서 당당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를 하나 밝히는 것 이상의 큰 의미인 셈이다. 청년 시기는 청소년을 보내고 사회로 진출하는 시기이지만 여전히 가족 및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청년 성소수자는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크게 지고 있다. 가정과 학교, 직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더불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역할 또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한 한국 사회에서 많은 성소수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존재인 다른 성소수자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 안도하며, 성소수자들이 만들어온 문화 속에서 위안을 얻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크게 위축되고,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관련 문화행사도 줄어들면서 청년 성소수자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또, 성소수자 커뮤니티라는 단일한 이름 아래 묶여있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다 비주류에 해당하는 정체성을 지닌 성소수자의 경우 장벽을 느끼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좀처럼 어울리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문화를

조성하고, 비대면 환경에 맞는 성소수자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요청된다.

트랜스젠더의 존엄한 삶과 권리를 보장하라

본 조사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 부분은 청년 성소수자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차별이 매우 심각하며, 이들의 전반적인 노동환경과 건강상태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에도 일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에 반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이름이 알려진 트랜스젠더 몇 명이 세상을 떠나는 사이에도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거나 의료적 조치에 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의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온오프라인 상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표현과 집단 린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트랜스젠더를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신분증에 성별 표기를 여성과 남성 두 가지로 제한하지 않거나, 아예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트랜스젠더의 의료적 조치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관련해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연방방법으로 공공기관에서 트랜스젠더의 고용을 일정수준 할당하도록 제도화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 World Economic Forum. (29 June, 2021). New law in Argentina could change lives in the transgender community. <https://www.weforum.org/agenda/2021/06/new-law-in-argentina-could-change-lives-in-the-transgender-community/>

국가대표성 있는 조사에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하라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청년 성소수자의 전반적인 욕구와 실태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그러나 청년 성소수자가 직장이나 대학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차별의 경험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며, 군대나 가족 관계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이고 다방면의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2014년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 비해 LGBT에 포함되지 않는 팬섹슈얼, 에이섹슈얼, 퀴어,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등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스스로 정체화하는 청년 성소수자가 참여한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에는 이처럼 비가시화된 다양한 성소수자 정체성 집단의 구체적인 욕구와 인식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보다 대표성 있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청년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다양한 청년 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 성소수자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국가 단위의 대표성 있는 통계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포집되지 못해온 청년 성소수자의 삶이 정책적 필요로 전환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통계청 등에 성소수자 관련 문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관련 연구자들 또한 성별정체성 및 성적지향 문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은 2020년 1월 창립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청년 활동가 단체입니다. 다움은 성소수자 당사자와 비당사자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성소수자 의제에 관심을 갖는 청년 활동가를 모아 역량을 강화하여 성소수자 인권과 청년의 다양성이 가치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 다움의 활동을 응원하신다면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메 일 dawoom@dawoom-t4c.org
홈페이지 <http://dawoom-t4c.org>
페이스북 @Dawoom.t4c
트 위 터 @Dawoom_t4c
인스타그램 @Dawoom_t4c

정기후원 신청

<https://dawoom-t4c.org/pages/donate>

일시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3-894043

(예금주: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